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 대비
연구



2014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손 해 서

문 학 박 사 학 위 논 문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 대비 연구

지도교수 채 영 희

이 논문을 박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국 어 국 문 학 과

손 해 서

손해서의 문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4년 2월 21일



주심 문학박사 우형식 (인)

위원 문학박사 김정필 (인)

위원 문학박사 김창경 (인)

위원 언어학박사 김희섭 (인)

위원 문학박사 채영희 (인)

차 례

I. 서론	1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1
1.2 연구 방법	4
1.3 연구 범위	7
1.4 선행 연구	9
II. 한·중 한자어 형용사의 특징과 유형	14
2.1 한자어 및 한·중 형용사의 개념 범위	14
2.2 한국 고유어 형용사와 한자어 형용사 분석	22
2.3 한국 한자어 형용사 유형과 특징	26
III. 한·중 동형 한자어 형용사의 형태 층위 분석	30
3.1 한자어 형용사의 파생 특징	31
3.2 한자어 어근과 접미사 파생 1	34
3.3 한자어 어근과 접미사 파생 2	61
IV. 한·중 한자어 형용사 어근의 특징과 유형	73
4.1 한자어 형용사 어근의 분류	73
4.2 한자어 형용사 어근이 중국어에서 품사 종류와 접미사 선택 관계	88
V. 한·중 동형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 층위 분석	102
5.1 한·중 동형 한자어 의미 차이 형성 요인	105
5.2 한·중 동형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 차이	108
5.3 한국 한자어 형용사 의미 특징	129
V. 결론	145
참고 문헌	148

〈표 목차〉

<표 1> 한자어의 개념 정의	15
<표 2> 한국어 형용사의 파생 접미사의 종류	32
<표 3> 접미사에 따른 한자어 형용사의 빈도수	33
<표 4> 심리 명사와 ‘-스러다’, ‘-롭다’와 결합 상황	54
<표 5> 한자어 형용사의 사용 빈도1	63
<표 6> 한자어 형용사의 사용 빈도2	65
<표 7> 한자어 형용사 빈도3	69
<표 8> 한자어 형용사 어근의 분류	75
<표 9> 한자어 형용사 어근들이 접미사와 결합 상황	98
<표 10> 한·중 의미가 완전히 다른 동형한자어	110
<표 11> 한국어에서 의미 범위가 넓은 동형한자어	112
<표 12> 중국어에서 의미 범위가 넓은 동형한자어	118
<표 13> 의미가 유사하지만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동형한자어	120
<표 14>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 경중	122

A Contrastive Study on The Adjectives of The Same Forms
Between Korean Chinese Characters and Chinese
Sun Hairui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and Language,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In the Korean vocabulary there are a lot of words written with Chinese characters and so does the adjectives. There are nearly 80% Chinese characters in the <Investigation of using frequency in modern Korean 2> edi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the Korean Language in 2005 years. This phenomenon has aroused a lot of attention of scholars. Up to now, studies on the Chinese characters of the Korean Language have reached a considerable degree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Little research is related to the adjectives of the Chinese characters and only several papers comparatively analyze these from the Chinese characters word form, meaning, and categories as well as other aspects. So I, as a international student who is learning Korean, in the aim to help international students, especially Chinese students willing to learn Korean. Comparing the Chinese characters in the same forms of Chinese adjectives with the adjectives in modern Chinese from a new perspective.

Before the formal analysis, chapter 2 introduces the definitions of the adjectives and the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and the definitions of adjectives in Chinese by summarizing the former research and making a simple comparison between the adjectives of the Chinese characters and the adjectives of the Korean native word, finding the difference and the common points between them.

Chapter 3 analyzes the form of the Korean Chinese characters

that are the same in forms of the Chinese adjectives. Even with the same form of the Chinese adjectives, there exists fund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Chinese character adjectives and the Chinese adjectives because of the derivational suffixes. The adjectives from the <Investigation of using frequency in modern Korean 2> that are the same in the form of the Chinese adjectives are divided into 3 categories by the independence and the words' number. Chapter 3 explains the meaning of the derivational suffixes, compares '-hada', '-seureobda', '-lobda' forms, which are the most common vocabulary, sorts 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three suffixes and finds out the difference and the common points between them.

Chapter 4 continues to analyze the unsolved problems in chapter 3 and divides the root word of the adjectives into three categories by the action, the state and the psychology, to find out the formation rules in choosing suffixes. Because the Chinese characters in Korean and Chinese have the same origin, analyze the root word from the <Investigation of using frequency in modern Korean 2> that are in the same form as the Chinese adjectives, find out the influence of the root word on choosing the derivational suffixes when forming the Korean word. Finally explain the reason why the root word and the Suffixes combine.

Chapter 5 analyzes the meaning and the usage of the adjectives of the Chinese characters. Prior to that, I had explored the reason why the two countries characters are the same in form but different in the meaning. Unlike the usual research, I did not classify the meaning and the forms together. Rather, by consulting the meaning in the dictionary and lots of sample texts, I sorted out all the Chinese character adjectives in the <Investigation of using frequency in modern Korean 2> and show the result in the chart form. I analyzed the different situations in using the Chinese

character adjectives in Korean and Chinese and based on these studies, I summariz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character adjectives used both in Korean and Chinese and explained why these characteristics had arose.

The last is the conclusion and the summary and description of the research.



I. 서론

1.1 문제 제기 및 연구 목적

어느 나라든지 국가 간의 교류가 빈번해지면 문화 유입과 언어 수용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각 언어의 사용에도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언어 간의 빈번한 접촉에서 오는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외국어 차용 현상이다. 한국어 역시 그동안 다양한 언어로부터 어휘를 차용해 왔는데¹⁾, 그 중에서도 한국어 어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단연 漢語²⁾, 즉, 중국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어로 유입된 한어는 한국어 어휘 확대에 기여했으며, 한국어의 구성에 중요한 요소로 스며들면서 한국어에서는 ‘한어’가 아닌 ‘한자어’라는 명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중국에서 한국어로 유입된 한자어 어휘들은 당시의 중국어와 유사했던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는 형태와 의미, 화용적인 면에서 현대 중국어와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먼저, 형태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중에는 중국어에서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많다. 즉, 한국어 한자어에 대

1) 중국에서는 한자·한문을 비롯하여 몽고어·여진어·만주어 등이 한국어로 유입되었으며, 근대에는 일본어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또한, 서구 기술이 도입되면서 라틴어·영어,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히랍어 등이 유입·차용되었다(박영섭, 1999:7)

2) 漢語는 中國 漢族의 言語를 가리키는 개념으로서, 영어로는 Chinese에 해당한다. 漢語는 역사적으로 장구한 발전과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고, 시기상의 차이, 지역 간 方言의 차이, 口語와 書面語의 차이 등으로 인해 다양한 변이형이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이것이 모두 동일한 민족의 언어이며, 언어상에서 기본적인 공통점을 공유한다는 전제 하에 이를 모두 통틀어 한어(漢語)라고 칭하기로 한다.

응하는 어휘를 중국어에서 찾으면, 완전히 다른 한자를 사용하고 있거나 같은 글자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어순이 일치하지 않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한국어에서는 한자어가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경우, ‘-하다’, ‘-스럽다’, ‘-롭다’ 등의 접미사를 필요로 하므로 중국어와의 근본적인 형태 차이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파생 후의 결과에 따라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어휘의 품사와 일치하지 않는 등 통사적 차이가 생겨나기도 한다³⁾.

한편, 의미적인 면에서는 동형의 한·중 한자어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동형의 한·중 어휘는 같은 한자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같을 것이라고 단순히 추정할 수 있으나, 형태가 같은 경우에도 양국의 언어에서 그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어휘가 존재한다.

(1) 한: ㄱ. 모습이 발랄(潑刺)하다.

ㄴ. 발랄(潑刺)한 여자

ㄷ. *물고기가 물에서 뛰어나올 때 ‘발랄발랄(潑刺潑刺)’이라는 소리를 낸다.

중: ㄱ.* 表情발랄(潑刺)

ㄴ. 활발(活潑)의女子

ㄴ'. 발랄(潑刺(潑辣))의女子(양갈스러운 여자)

ㄷ. 魚跳出水面時發出‘발랄발랄(潑刺潑刺)’的聲音。

위의 예문 (1)은 한자어가 사용된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여 보인 것이다. 예에서 제시한 ‘발랄(潑刺)하다’는 한국어에서 ‘표정이나 행동이 밝고 활기가 있다’는 뜻의 한자어 형용사로 사용되고 있는데, 동형어인 ‘발랄(潑刺)’은 중국어에서 ‘물고기가 물에서 뛰는 소리’라는 뜻의 의성어로 사

3) ‘活躍’은 한국어에서 명사로 사용되며, 접미사 ‘-하다’를 붙이면 동사가 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형용사로 사용된다.

용되고 있다. 따라서 (1한, ㄱ)의 ‘모습이 발랄(潑刺)하다’를 중국어로 표시할 때는 같은 형태의 ‘발랄(潑刺)’을 사용할 수 없어 (1중, ㄱ)의 ‘表情발랄(潑刺)’은 비문이 되어버린다. 이를 같은 의미의 중국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1중, ㄴ)과 같이 형용사 ‘활발(活潑)’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1한, ㄴ)과 같은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는 경우, 원래의 의미를 살리려면 (1중, ㄴ)과 같이 ‘활발(活潑)’을 사용해야 하지만, 동일한 형태인 ‘발랄(潑刺)’을 사용하더라도 비문이 되지 않고 일정한 의미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발랄(潑刺)’은 중국어 형용사 ‘潑辣’과 통용될 수 있는 ‘가차(假借)’ 어휘로, (1중, ㄴ´)과 같이 여자를 수식하는 말로 쓰일 때는 ‘박력이 있다’, ‘억척같다’, ‘앙칼스럽다’ 등의 뜻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1중, ㄴ´)에서 ‘발랄(潑刺)’은 한국어의 ‘발랄(潑刺)하다’와 동형 한자어이지만, 의미가 다르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예문 (2)는 한국어 형용사 ‘활발(活潑)하다’와 중국어 ‘활발(活潑)’이 사용된 예이다. 한국어의 ‘활발(活潑)하다’는 (2중, ㄱ-ㄴ)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어의 ‘활발(活潑)’과 의미가 비슷하지만 그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다.

(2) 한: ㄱ. 성격이 활발(活潑)하다

ㄴ. 활발(活潑)한 교류

중: ㄱ. 性格활발(活潑)

ㄴ. 交流활발(活潑)/活躍

사람의 성격을 묘사하는 경우 양국의 언어에서 모두 ‘활발(活潑)’이 사용될 수 있지만, 교류에 대해 묘사하는 경우 한국어의 ‘活潑하다’가 중국어에서는 (2중, ㄴ)에서와 같이 ‘활발(活潑)’, ‘활약(活躍)’ 두 가지로 나타난다. 중

국어로 ‘交流活潑’은 ‘교류하는 사람의 태도 및 교류의 분위기’ 측면에 대한 것이고 ‘交流活躍’은 ‘태도’, ‘분위기’를 비롯하여 ‘교류의 빈도’까지도 표현할 수 있는 어휘이다. 즉, 한국어의 ‘활발(活潑)하다’는 중국어의 ‘활발(活潑)’, ‘활약(活躍)’의 의미를 다 포함할 수 있어서 중국어 ‘활발(活潑)’에 비해 확장된 의미와 용법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한국어와 중국어 한자어의 형태와 통사, 의미상의 차이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그리고 중국어를 배우는 한국인 학습자에게 학습상의 어려움을 야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어에 수많은 한자어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양국 언어 학습자의 어휘 습득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만큼 많은 어휘가 자동적으로 전이되어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는 동형 한자어의 경우, 양국의 언어에서 동일한 기능과 의미를 가질 것으로 오인되어 학습자의 어휘 사용 오류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형 한자어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동형 한자어의 형태 및 의미 차이를 분석하여 한국어와 중국어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칙성을 발견하는 것이 본고의 주요 목적이다.

1.2 연구 방법

王力(1985)⁴⁾은 외국어 교수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중국어와 외국어

4) 王力은 1985년 8월 13일의 국제한어교학연토회(國際漢語教學討論會)에서 “對外漢語教學, 我認爲最有效的方法就是中外語言的比較教學。”라고 말했다.

의 비교 교수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비교는 인류의 인식과 사물을 연구하는 근본이자 언어학 연구의 기본 방법론이 된다. 비교의 방법 중에서도 대비는 상이한 점에 중점을 두는 방식이다. 언어학에서는 대비의 방법을 통해 비교 대상이 되는 두 언어를 더 자세하게 인식하여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며, 언어 이론을 구축하게 된다. 또한, 언어 대비는 제 2언어의 교수와 번역, 이중 언어사전의 편찬 등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도 한다.

어휘 대비는 언어 대비의 기본 구성 성분(許余龍, 2001)⁵⁾이자 인류 언어 비교 연구에서 가장 흔히 보이는 연구 방법이기도 하다. 어휘 대비는 어휘 형태학 대비와 어휘 의미학 대비를 포함한다. 어휘 형태학 대비는 단어 형식에 중점을 두고 형태학에서 출발하여, 단어의 범주, 어휘계통의 형태적 특징, 파생사와 복합사의 특징을 비교하는 데 중점을 둔다. 예를 들면, 파생의 방식과 작용, 복합어의 구조, 즉 조어의 방법 등을 비교 분석한다. 王文斌, 周慈波(2004)⁶⁾에서는 '어휘 의미학 대비'를 '단어의 의미에 중점을 두고, 어휘 의미학(意味學)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어휘의 근거, 단어화 정도, 단어의 결합, 의미장(意味場) 등을 대비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중국어는 漢藏語族에 속하는 반면, 한국어는 알타이어족에 속하며, 모음 조화현상과 어법상의 짐작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지리적·역사적 원인으로 한자와 한문은 한국어의 언어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한국어에 존재하는 많은 한자어는 한·중언어 대비의 측면에서 언어연구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고는 기술언어학(描寫語言學)과 대비언어학(對比語言學)의 이론을 기초로 삼아, 개별언어학(個別語言學)과 공시언어학(共時語言學)을 바탕으로 한

5) 許余龍(2001), 『對比語言學』, 上海外語教育出版社. 이 책에서는 적자가 語音, 語彙, 語法, 篇章 및 語用 등 내용을 논술했다.

6) 王文斌, 周慈波(2004) “英漢'看'類動詞的語義及詞化對比”, 『外語教學與研究』, 第2期를 참조했다

국어 한자어 형용사의 형태 특징과 구성 성분, 조어법 등의 특징을 고찰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의 형태적 특징, 의미적 특징, 화용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표준국어대사전』(1999), 과 중국의 『現代漢語辭典』(2012)을 참고하여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의 목록을 뽑아내고, 『뉴밀레니엄 韓中사전』(2000), 『동아 중·한사전』(2006), 『한·중 한자어 비교사전』(2006)등을 참고하여 어휘 분석의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한국 한자어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를 대비하기 위한 예문을 찾기 위해서 한국의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과 ‘네이버사전’ 및 중국의 ‘漢典’과 ‘中文幫助’를 참고하였다.

이 글은 형태론, 의미론, 화용론적 입장에서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의 특성과 두 언어에서 차이점을 밝히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한다.

2장은 한국어의 한자어, 형용사 및 중국어 형용사의 개념 규정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다. 선행 연구의 바탕으로 한국어의 한자어 형용사와 중국어의 형용사의 개념을 정리를 하고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의 기본적인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3장은 한자어 형용사의 형태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이 장에서는 본 연구 대상의 모든 한자어 형용사 접미사들을 사전에서 나타내던 의미에 따라 자립성의 유무를 판정하면서 분류할 것이다. 한자어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 여부에 따라 이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 볼 것이다. 선행 연구자들의 접미사에 대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각 접미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의미기능을 다시 분석할 것이다. 특히 한자어 어근과 ‘-하다’, ‘-스럽다’, ‘-롭다’의 주관적인 접근성과 객관적인 자질성의 여부에 대한 선행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분석하여 중국어와 같은 동형의 한자어가 한국어에서는 어떤 접미사와 결합하는지를 분석하여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학

습자의 사용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본다.

4장은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과 접미사의 관계를 의미 층면에 접근을 시도한다. 이 장에서는 ‘-하다’, ‘-스럽다’, ‘-롭다’ 이 세 가지 한자어 어근의 특징을 분석할 것이다. 의미에 따라 동작성, 심리성, 성상성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이러한 기초에 모든 한자어 형용사 대상 중 ‘-하다’, ‘-스럽다’, ‘-롭다’와 결합하여 생성하는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이 이 세 가지 특징에 속하는 비율을 찾아 학습자의 입장에서 한자어 어근이 왜 ‘-하다’, ‘-스럽다’ 혹은 ‘-롭다’를 택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각 어근들은 중국어에서는 어떤 품사로 분류되는지 또한 그 품사 종류가 접미사를 선택할 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것이다.

5장은 한자어 형용사에 대한 한국어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 의미와 화용적 접근을 시도한다. 이 장에서는 의미 및 형태에 따라 동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등의 분류를 하지 않고 각 사전의 의미 해석과 예문을 정리하여 용례 제시하는 바탕으로 한·중 두 언어의 의미차원의 차이점을 살펴본다. 대다수의 한자어 형용사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의미적으로 비슷하지만 언어 습관에 따라 적용되는 범위가 다른 경우가 많다. 학습자에게 한국어 한자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한다면 언어 학습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1.3 연구 대상

한국어 형용사는 선행 요소에 따라 크게 고유어와 한자어, 외래어로 나눌 수가 있고 그 중 고유어와 한자어의 수량이 가장 많다. 그러나 고유어

와 한자어로 구분하는 데 경계가 모호한 예가 있었다. 가난과 같이 한자어이던 것이 고유어화한 형태가 있다. ‘가난’은 한자어 ‘간난(艱難)’에서 온 것이지만 그 형태가 변하여 고유어화 되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예들은 한자어가 아닌 고유어로 처리하였다. 그리고 ‘향긋’과 같이 한자 ‘향(香)’과 고유어 접미사 ‘긋’이 합쳐서 만들어진 어휘는 ‘혼동한자어’로 보고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시대적으로 봤을 때 사어(死語)에 해당하여 사용되지 않는 어휘는 제외하고 현대 한국어에서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 형용사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를 위해 국립국어원의 어휘조사 보고서인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2』 7)에 수록된 한자어 형용사를 조사하여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중국어 어휘의 경우, 한국어 형용사 어휘와 마찬가지로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는 어휘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현대 중국어는 일반적으로는 ‘현대 한어⁸⁾’를 일컫는 것으로서 중국 ‘오사운동(五四運動)’부터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중국어를 말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現代漢語辭典』, 『新華辭典』 등 상용적인 중국어 사전에 수록된 형용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그리고 인터넷 사전 ‘漢典’과 ‘中文幫助’에 수록된 단어의 예문을 조사했을 때, 예문의 출처가 ‘오사운동’ 이후의 것으로 나타난 것만을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예를 들어, ‘독야청청(獨也青青)하다’와 같은 한국에서 만든 형용사는 중국어에 존재하지

7) 1990년 이후에 출판된 한국어 문헌을 대상으로 국어 교육용 기본 어휘를 선정한 조사로서, 3백만 어절의 문헌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어 자모, 음절, 일반 어휘, 조사, 어미, 구(句) 등 다양한 언어 당위의 빈도를 제시하고 있다.

8) 한어(漢語)의 시기 분류는 학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고대(古代), 근대(近代), 현대 세 부분으로 나뉜다. 고대한어는 보통 진나라 전부터 오사운동(五四運動)전의 문언문(文言文) 부분, 근대한어는 북송(北宋)시기부터 오사운동전의 백화문(白話文) 부분, 현대한어는 오사운동이후부터 현재까지를 이른다. 趙永大(1995)참고.

않는 어휘이고 ‘가상(嘉尙)하다’와 같이 중국 고전 문헌에는 많이 나타나지만 현대 중국어에서는 다른 어휘로 변한 어휘의 경우도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의거하여 현대 한국어의 한자어 형용사 중 현대 중국어 어휘와 같은 형태를 사용하고 있는 형용사 911개를 추출할 수 있었는데, 이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1.4 선행 연구

한자어는 한국에 오래 전 유입되어 예로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고, 지금까지도 한국어 어휘 체계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에 대한 연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왔다.

한국에서 한자어에 대한 초창기 연구는 한자 유입에 대한 역사적인 연구, 한국 한자어의 독음과 기원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 후 60년대 말부터 70년대 초까지 한국어 한자어가 많이 연구되기 시작하였고 연구 범위와 수준이 양적, 질적으로 확대되었다. 80, 90년대에는 한자어의 구조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용주(1974), 성환갑(1983), 심재기(1987), 박영섭(1987), 노명희(1998) 등을 들 수 있다

한국 학자들의 한자어에 대한 연구는 한·중 수교를 기점으로 나뉜다. 수교 전 이루어진 연구는 주로 한자어의 기원, 계보, 음운, 종류, 조어, 구조 및 귀화, 고유어와 대응에 대한 것이었다면 한·중 수교 이후에는 한국에서의 중국어 교육과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이 활발해지면서 한자어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특히 양국의 유학생들이 늘어나

면서, 한국어 한자어와 중국어 어휘를 대조 연구한 논문도 점차 많아졌다. 이러한 대비 논문의 소재가 되는 연구 대상, 연구 범위도 넓어져, 한국 한자어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사자성어, 의성어, 양사, 신조어(新造語), 접두사, 접미사 등을 다룬 연구들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중 한자어에 대조 연구로는 이득춘(1994), 채옥자(2004), 김찬화(2005), 문연희(2007), 장호득(2009), 손금추(2011), 이상정(2012)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이득춘(1994)에서는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구조와 의미 차이를 고찰하였고, 채옥자(2004)는 국립국어연구원에서 발행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선정 결과 보고서』에서 제시한 한국어 학습용 어휘 5,965개 중 2,424개의 한자어를 대상으로 형태와 의미론적인 차이점을 밝혔다. 김찬화(2005)는 인간의 오관에 근거하여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에 따른 현대 한·중 감각형용사들을 확정하고 의미적인 공통점과 차이점을 기술하였다. 문연희(2007)의 경우에는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습자들이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의미 차이를 정확히 알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어를 동형완전동의어, 동형부분동의어, 동형완전이의어, 동형부분이의어, 도소역순동의어, 일반이형동의어로 나누어 비교함으로써 의미 차이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장호득(2009)에서는 ‘한자어+하다’류 단어들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각각 어떻게 생성되어 도출되었는지를 살펴보았고, 손금추(2011)는 어순유형론을 바탕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기본 어순, 명사구 어순, 합성명사 어순, 부치사구 어순을 분석하여 어순유형학 이론을 다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정(2012)은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자어를 同形完全同義語, 同形部分 同義語, 同形完全 異義語, 異形 同義語로 나누고 의미 범위, 품사 종류, 어감 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았고, 번역에서 나타나는 오역 현상을 분류하여 오역의 원인을 밝혔다.

한편, 중국에서의 한국어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2000년 이전에는 한국

어 관련 연구가 거의 없었음을 알 수 있다⁹⁾. 2000년 이전에 이루어진 연구로는 張光軍(1982)의 「南朝鮮語言中的日語漢字詞」, 劉世剛(1997)의 「中、日、韓三國漢字一体化的初步設想」, 賀國偉(1997)의 「韓國語中的漢字源詞及對韓漢語的詞語教學」, 및 朱英月(1999) 「韓中詞綴比較初探」를 들 수 있는데, 그 중에서 朱英月(1999)의 연구는 한·중 한자어에 대한 연구로서 한국어의 한자어를 중심으로 한·중 접사 종류와 차이를 대체적으로 설명한 것이었다.

2000년 이후에는 중국에서도 한·중 한자어에 대한 연구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金敏呈(2001), 白蓮花(2011), 陳志宏(2013) 등의 연구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金敏呈(2001)에서는 한국 『민중국어대사전』 수록된 34,173개 한자어 동사를 음절수 기준으로 1음절부터 6음절까지 분류하였고 한자어를 同形同義語, 同形異義語, 異形同義語, 異形異義語로 나누어 중국어와 비교하였다. 그리고 한국어에서는 동사로 사용되나 대응하는 중국어가 동사와 다른 품사를 점유하여 나타나는 경우를 ‘명사 겸 동사’, ‘동사 겸 형용사’ 등으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白蓮花(2011)는 한국어와 중국어에 나타나는 각종 어순 유형의 특징 및 그 어순 형성 원리에 초점을 맞추어 한국어와 중국어 어순의 통시적인 변천을 밝혔다. 陳志宏(2013)은 1998년 출판했던 『延世韓國語詞典』에 수록된 한자어 접두사 103개, 접미사 246개 및 이러한 접사로 이루어진 단어들과 중국어 접두사 32개, 접미사 49개

9) 중국의 조선족은 보통 ‘한국어’라는 말 대신 ‘조선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국인에게는 한국어와 북한어 및 중국의 조선어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2000년 이전에 한국어 관련 연구가 없었다고 하기 보다는 조선어 관련 연구가 있었다고 해야 한다. 周剛(1956)은 북한에서 1954년에 출판되었던 『朝鮮語綴字法』의 내용을 번역하여 「朝鮮語詞兒連寫規則」을 발표했다. 그 후부터 북한과 중국의 조선어와 관련된 연구들이 점차 증가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崔奉春(1989)에서는 형용사를 구조, 의미 분포, 형용사의 분류 등 세 가지의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를 비교하였다. 金基石(1997)은 의미 특징, 사용 특징의 측면에서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를 비교하여 기술하였다.

및 이들 접사로 형성된 단어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한·중 접사 판정 기준과 특징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두 언어에서 접사로 만들어진 단어들의 품사 종류, 의미, 구조를 살펴보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혔다.

본고의 논의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므로, 한국어와 중국어 형용사에 관한 연구도 주요 선행 연구로서 분석되었다. 한국어 형용사에 대한 연구로는 주시경(1910), 최현배(1937)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에서는 형용사에 대한 의미론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또한, 형용사에 대해 형태적으로 접근한 연구로는 송철의(1992), 김창섭(1994), 신순자(1996)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정인수(1994)에서는 형용사의 어휘, 의미적 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시도하였으며, 임두학(1996)은 형용사의 품사 범주를 정립하고 형태 구조를 분석하여 형용사 사용 양상을 고찰했다. 또한, 유현경(1998)에서는 말뭉치 분석을 토대로 국어 형용사에 대한 유형을 분류하여 격틀을 제시하였다. 김건희(2005)는 형용사의 논항 구조의 고찰을 통해 형용사의 다층적인 상태가 다양한 논항 구조를 허용하고, 복합적인 사건 구조로 표상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마지막으로, 한자 형용사와 대응하는 중국어와의 비교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 대표적인 연구는 오문의(1994), 이명숙(2010), 왕단(2005) 등이 있고, 중국에서는 黃貞姬(2009) 등이 있다. 오문의(1995)는 2,138개의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와 대응하는 중국어 단어를 통해 의미와 용법 범위 등을 논의한 바 있고, 이명숙(2010)은 현대 중국어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경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왕단(2005)은 한국어 형용사와 중국어 형용사의 형태, 통사, 의미 등 전반적인 대조를 통해 한·중 형용사의 차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중국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형용사의 효과적인 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黃貞姬(2009)는 한국의 한자어 형용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아 한·중 동형

형용사를 중심으로 정하였다.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의 형태와 구조 특징을 밝히고 한자어 형용사의 조어법, 품사 종류, 의미 등 측면에서 중국어와 비교하였다. 의미 비교할 때는 다른 논문과 비슷하게 同形同義語, 同形異義語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상으로 한국어와 중국어의 한자어 형용사와 관련된 한국과 중국의 연구들을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에서의 연구가 중국에 비해 더 오래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 역시 연구 대상의 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한자어 명사에 관한 연구보다는 형용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 형용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와 현대 중국어 형용사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Ⅱ. 한·중 한자 형용사의 특징과 유형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는 한국어의 형용사이며, 한자로 이루어진 어휘를 가리킨다.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어휘는 ‘건강(健康)하다’와 같이 어근이 한자로 표시 가능한 한국어 형용사들이다. 한·중 한자어 형용사 대조에 앞서 한자어와 형용사의 개념이 어떻게 규정될 수 있는지를 우선 살펴보고자 한다.

2.1 한자어 및 한·중 형용사의 개념 범위

가. 한자어

어떤 언어에서나 외국어가 외래어로 유입되는 과정에 외국어 본래의 모습을 잃고 점차 그 나라의 언어의 음운체계에 변하는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차용 당시의 원어 형태로 전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언중의 머릿속에 깊숙이 고유어로 인지·의식화 되고 침투·고정화되는 과정을 거친다¹⁰⁾. 장명희(2004:2)에서는 한국의 한자어가 ‘한국 고유의 한자 발음으로 읽힌다는 점에서 고유어로서 귀화성이 인정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하였으나, 한자로 적힐 수 있다는 특징으로 인해 한자어라는 명칭을 붙여 서양말을 기원으로 하는 외래어와 구별하고 고유어와 구별하였다. ‘한자어’라는 용어는

10) 조세용(1985:5-28) 참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는 하나, 그 용어의 명확한 개념은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한자어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한자어에 대한 여러 논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한국에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들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외래어의 일부분이지만 오랜 역사¹¹⁾를 거쳐 고유어화 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한자어의 개념을 규정하기 위해 한자어에 대한 여러 논자들의 주장을 살펴보았다.

<표 1> 한자어의 개념 정의

학자	한자어의 개념
심재기(1987)	우리말 가운데 한자로 적을 수 있는 낱말
최규일(1990)	어원에 관계없이 한자로 표기될 수 있는 단어
노명희(1990)	기원에 관계없이 한국어 어휘에 해당되는 것으로 한자로 표기될 수 있으며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
宋基中(1992)	어휘항을 구성하는 개별 음절이 어떤 한자의 국어 독음과 일치하는 어휘
김창섭(1999)	한자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휘 항목, 한자 형태소로 된 단어, 관용구, 접사, 어근 모두 포함됨
박종석(2000)	漢語界 형태소로 이루어진 낱말

<표 1>에 나타난 한자어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비판의 여지가 있다. 예

11) 朴英燮(1999;11)에서는 한자·한문의 유입 시기에 대한 확실히 기록이 없어 ‘推定の段階’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韓·中 交渉은 ‘史實의에 根據할 때 B.C 3-4세기부터’ ‘漢四郡을 設置(B.C-198) 한 때’를 한자·한문의 유입 시기로 짐작한다. 즉 지금까지 2000여 년 전의 시간이다.

를 들어, 김규철(1997)은 노명희(1990)의 정의에 대해 ‘분명한 중국어의 단어일지라도 한국 한자음으로 읽으면 한국어 한자어가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代溝(generation gap), 自助餐(cafeteria)’ 등이 ‘대구, 자조찬’으로 읽힌다고 해서 한국어 한자어라고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하였다. 또한, 宋基中(1992)은 한자어를 보다 정확히 정의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어휘항의 개별음절에 일치시킬 ‘어떤 한자의 한국어 독음 선택’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즉, 어떠한 한국어 어휘가 한자어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자에 대한 지식이 있는 언중의 경우에는 한국어 독음을 쉽게 찾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언중은 한국어 독음을 찾기가 쉽지 않고 한자어를 비한자어로 인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박종석(2000)에서는 누가 낱말을 만들었는가, 소리가 얼마나 달라졌는가, 어떤 방식으로 들어왔는가에 상관없이 어떤 낱말이 漢語界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으면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의 예들은 모두 한자어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ㄱ. 가치, 도로, 부모, 선생, 언어

(한어 낱말이 한자로 적힌 것을 보고, 이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어 받아 들인 것)

ㄴ. 다홍, 무명, 비단 사탕, 탕건

(한어 낱말을 말소리를 듣고 받아들인 것들. 이들 낱말은 ㄱ과 달리 현대 한국 한자음으로 소리 나 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음)

ㄷ. 기차, 병원, 수학, 정부, 철학

(일본에서 漢語界 형태소를 이용하여 만든 낱말들인데 이것이 한자로 적힌 것을 보고,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어서 받아들인 것)

ㄹ. 매상, 입장, 입구, 명도, 추월

(일본어 낱말이 한자로, 또는 가나와 섞여서 적힌 것을 보고, 이를

한국식 한자음으로 읽어서 받아들인 것들)

ㄱ. 감기, 고생, 채독, 환장, 총풍

(한국에서 漢語界 형태소를 이용하여 만든 낱말들)

ㄴ. 가이당, 단까, 무데뽀, 분빠이, 신뽕

(漢語界 낱말인데, 일본 사람의 말소리를 듣고 받아들인 낱말들)

그러나 이러한 주장 역시 논쟁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ㄴ과 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ㄴ의 경우는 ‘대흥, 목면, 필단, 사당, 당건’이 변한 것이다. ‘다, 무, 비’ 등에 해당하는 한자가 없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면 ‘다흥, 무명, 비단’ 등은 한자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언중들은 이들을 한자어라고 인식한다. 그것은 비록 언중들이 ‘대흥→다흥, 목면→무명, 필단→비단’ 등의 변화 과정을 알지 못하더라도, 구성 성분 중 하나 이상이 한자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전체 어휘를 한자어로 인지하게 된다고 판단된다. 즉, 언중은 혼용한자어¹²⁾와 순수 한자어를 구분하지 않고 다 한자어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ㄴ의 경우는 한자어로 보기 힘들다. 비록 ㄴ의 기원이 한어계(漢語界) 낱말이기는 하나, ‘단까’로부터 ‘담가(擔架: 들것)’를 유추할 수 있는 한국어 화자는 거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이와 같은 종류의 어휘는 한국어 한자어가 아니라 일본어 기원의 외래어 또는 외국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한자어의 개념에 대한 정의는 논자들마다 다양해서 하나의 통일된 개념으로 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것은 한자어가 가지는 성격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한자어가 지니는 성격이라 함은 한자어를 이루는 각각의 성분이 의미를 가지며, 그로 인해 생겨나는 한자어의 성격 규정에 대한

12) 한자어끼리 결합된 것 외에 한자어가 고유어 및 외래어와 결합하여 단어를 생성하기도 한다. 이를 ‘혼용한자어’로 보고자 한다.

논란을 두고 이르는 말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논자들은 한자어를 낱말 또는 단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창섭(1999)에서 말한 것과 같이 한자어 형태론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단어뿐만 아니라 접사, 어근 등의 형태소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宋基中(1992)에서 주장한 것과 같이 한자어를 어휘의 범위에서 살펴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자어를 기원과 상관없이 어휘항을 구성하는 개별 음절이 어떤 한자의 한국어 독음과 일치하고 한자 형태소로 이루어진 어휘로 규정하기로 한다.

나. 한국어 형용사

어떤 개별 언어의 품사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그 언어의 문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작업이다. 품사론은 항상 문법사의 중심에 놓여 있었다. 한국어 연구가 70년대에 들어서 통사론, 의미론 쪽으로 발전을 이루기까지 한국어학사도 품사론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신순자, 1996:9). 한국어 형용사는 ‘엇, 얻, 엇씨, 얻씨, 어떻씨, 꼴말, 그림씨, 形容, 형용사’ 등 9가지로 모든 명칭은 ‘어떠하다’의 의미를 나타내거나, ‘형용’의 의미를 표현한다는 차원에서 지어진 것으로 의미적 명칭에 해당한다. 한국어 형용사의 개념이 전체적으로 보면 초기문법서에서 형용사에 구조적으로 정의 내린 것을 제외하면 의미적으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어떠함을 나타내는’으로 정의할 수 있다. 한국에서의 형용사에 대한 기존 연구는 崔惠玲(2011:83-86)¹³⁾의 내용을 참조하여 시기별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3) 崔惠玲(2011:83-86) 참조

첫째, 도입기(1897-1930)는 형용사에 대한 정의가 의미와 구조적 정의로 나눌 수 있다. 이 시기의 연구는 서양의 전통문법을 바탕으로 하여 쓰였던 일본 문법의 영향을 받게 된다. 유길준(1909), 주시경(1910)등은 ‘형상 및 성질을 발표’, ‘명사나 대명사의 형용을 씌’ 등으로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광옥(1908), 이규방(1922), 김진호(1925) 등은 ‘명사의 전 혹 후에 재하여’, ‘명사의 상 또는 하에 부하여’, ‘이름말의 위와 아래의 붙이여’ 등과 같이 형용사의 구조적 기능을 어휘적 의미에 첨가하여 정의를 내리고 있다.

둘째, 모색기(1930-1946)는 박상준(1932)에서 박종우(1946) 이전까지를 이르며, 구조적인 내용이 없고, ‘성질과 상태를 표현’, ‘사물의 상태를 서술’, ‘사물의 상태를 서술’하는 등 의미적인 정의만 있다. 이 시기 대표적으로 최현배(1937)라고 말할 수 있다. 그의 문법서는 아직 학교 문법과 많은 문법서에 영향을 끼친다.

셋째, 구조문법이 도입되었던 심화기(1946-1963)이다. 앞의 도입기와 모색기에 ‘어떠함을 표시하는 것’과 ‘성질과 상태를 표시하는 것’ 두 가지 정의하는 방식을 이 시기에도 계속 사용했다. 형용사에 대한 정의가 큰 변화를 보이지 않지만 구조주의 문법의 영향으로 ‘모든 일과 물건의 바탕’, ‘대상의 표식’, ‘행동이나 모양의 정도’하는 등 문법상의 개념은 이 시기의 특징으로 된다.

넷째, 혁신기(1964-1975)는 문법통일안이 발표되고 나서 대부분 한국 문법서에서는 존재사를 형용사에 소속시키고, ‘존재’라는 말이 형용사의 정의에 많이 나타난다. 존재사는 ‘사물의 있음과 없음’을 나타내므로 ‘있다, 없다’가 그 전부이다. 그러나 존재사는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동시에 지녔기 때문에 학교문법에서는 존재사와 같은 개념을 사요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정착기(1975-현재)는 형용사의 정의에 의미적인 차원에 치우쳐 있다. 혁신기의 ‘존재사’와 같이 쟁점 있는 관점을 빼고 모색기의 사상이 다시 심화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형용사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가 ‘성질이나 상태’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기존 학자들이 형용사에 대해 내린 정의는 의미적으로 유사하다. 이를 다시 정리해 보면, 형용사는 ‘인물이나 사물에 존재하는 성질, 바탕, 모양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품사 또는 단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중국어 형용사

한자는 세계적으로 가장 오래된 문자로 한자의 품사에 대한 기록은 漢代 ‘어조(語助)’ 연구부터 시작된다. 그 후 청나라까지 각 왕조마다 한자의 현상과 특징에 대하여 설명이 더해졌으나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개인학술 저작물이나 기록에 흩어져 있는 실정이다. 清代는 중국고대 품사연구가 집대성되는 시기로 ‘형용사’의 개념에 해당하는 ‘形容辭’의 명칭이 중국 청나라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다. 1898년 『馬氏文通』의 탄생은 중국어 품사연구의 진정한 출발점이 되었으나 중국어 품사의 연구는 현재까지 성숙하지 못한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동시에 품사의 분류에 대한 표준이 여전히 논쟁으로 남아있다.

1953년부터 1970년대까지 중국어 품사구분에 대한 기준은 ‘어휘·어법’의 이론에 따라 ‘다표준(多標準)’이 대세였고,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구조주의 언어학이론의 영향 하에 단일어법 기능표준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초로 단일어법기능(句法機能)표준을 명확하게 제기한 사람은 陳望道이다. 그는 여러 번 ‘의미설(意義說)’, ‘형태설(形態說)’ 그리고 의미 형태 기능이 서로 결

합된 ‘다표준설(多標準說)’을 부정하고 ‘기능설(機能說)’을 주장하였다. 陳望道(1978 : 38-57)에서 “품사는 본질적으로 단어의 기능분류이다”, “의미는 품사를 구분하는 표준 근거가 아니다”, “형태도 품사를 구분하는 근거가 아니다”, “표준이 여러 개 가 있다는 것은 표준이 없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1950년대 초 이래로 중국어의 품사 구분에 대한 문제는 계속 논의되어 왔지만, 아직 설득력 있는 체계적 이론이 확립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이는 중국어의 품사 분류가 복잡하고 까다롭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어 형용사의 정의도 학자마다 견해가 다른 편이다. 그 중에 대표적인 학자들의 관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呂叔湘·朱德熙(1952:11)에서는 ‘형용사는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품사이며, 명사·동사·형용사¹⁴⁾을 한정하거나 수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丁聲樹(1979:6-7)에서는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며,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또한 모든 형용사는 술어로 쓰일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了·起來’가 뒤따라 올 수 있다.’고 개념과 특징을 설명했다. 또 朱德熙(1982:55)에서는 ‘형용사는 限의 수식을 받을 수 있지만 목적어를 취할 수 없는 술어이다.’로 정의하였다. 지금까지 학자들이 형용사를 정의할 때 문장의 기능적인 특징도 같이 설명했지만 전체적으로 일치하는 관점이 있다. 즉 ‘사람이나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다’라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앞서 살펴본 한·중 두 언어에서 형용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접사가 발달되었으므로 형태론적인 특성이 형용사의 특징에 반영이 된다면, 중국어에서는 통사론적인 특성이 강하다고 볼

14) 呂叔湘·朱德熙(1952:11) 형용사가 동사나 다른 형용사를 한정하거나 수식하는 경우는 수식어인 형용사가 부사어로 쓰였을 때를 말한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양국 언어의 형용사에 대한 정의 중 공통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성질과 상태’를 강조한 것이다. 본고는 바로 이러한 의미론적인 정의를 양국의 형용사를 바라보는 기본 입장으로 취하고자 한다. 한·중 두 언어에서 형용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완전하게 다르다. 한국어에서는 접사가 발달되었기 때문에 형태론적인 특성이 강하다면 중국어에서는 통사론적인 특성이 강하다.

2.2 한국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 분석

이절에서는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기로 한다.

한자어 형용사는 한국어 형용사로서 고유어 형용사와 같이 단일한 어근의 형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어근의 뒤에 최소 한 개의 접미사를 첨부해야 그 서술 기능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이다.

가. 공통점

(1) 문법기능

문법 기능 면에서 살펴보았을 때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의 공통점은 다음의 여섯 가지로 규정된다.

첫째,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가 서술어의 일부분으로 주어의 서술성(predicative), 즉 수식과 제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둘째,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는 문장에서 주로 서술어로 존재한다. 관형어 및 부사어로 사용할 때는 형태적인 변화가 있다.

셋째,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는 목적어와 같이 사용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자동, 타동, 사동 및 비동적인 구분 못한다.

넷째,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는 현재시제 어미와 결합할 수 없고 동작이 지속 상태를 표시하는 보조동사구조와 함께 쓰일 수 없다.

다섯째,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는 부사에 수식을 받는다.

여섯째,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는 조사와 함께 쓰일 수 있다.

(2) 형태적 측면

형태적으로 한자어 형용사가 고유어 형용사는 어근¹⁵⁾과 접사의 결합 구조를 보인다. 아래의 예를 보자.

ㄱ. 시퍼렇다, 알뵈다, 드높다

ㄴ. 불가능(不可能)하다, 무책임(無責任)하다, 몰염치(沒廉恥)하다

ㄷ. 까칠하다, 꺾끄럽다, 아름답다

ㄹ. 건강(健康)하다, 가증(可憎)스럽다, 향기(香氣)롭다

15) 단어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인 어근(root), 어간(stem),어기(base)에 대한 개념 규정은 논자에 따라 일정하지가 않아 서로 경계가 넘나들기도 하고 포용하는 범위도 일치하지 않는다. 김정은(1994)에서는 ‘어근’과 ‘어간’을 구별시킨 이익섭(1968,1969, 1975)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부분적으로 수정을 가하여 ‘어근, 어간, 어기’의 개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어근(root): 굴절어미가 결합될 수 없는 단일형태의 의존형식으로서 단어의 핵심부. a.개구-, 아름답-

어간(stem): 굴절어미가 결합될 수 있거나, 그 단독으로 단어가 될 수 있는 단어의 핵심부. 이러한 어간은 복합형태일 수 있어서 그 속에 파생접사를 포함하기도 하고, 하나 이상의 어간을 포함하기도 한다.

ㄱ. 국, 먹-, 달-

ㄴ. 미치광-, 푸르스름-, 푸르데데-;

어기(base): 어근, 어간을 포괄하는 이름.

위의 (ㄱ, ㄴ)는 “접두사+어근” 구조의 형용사이고 (ㄷ, ㄹ)는 “어근+접미사” 구조의 형용사이다. ‘시-’, ‘알-’, ‘드-’, ‘부/불(不)-’, ‘무(無)-’, ‘몰(沒)-’은 접두사이고 ‘-다’, ‘-하다’, ‘-럽다’, ‘-답다’, ‘-스럽다’는 접미사이다. 한국어 형용사 일부는 접두사가 없어도 형용사가 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시퍼렇다→퍼렇다; 불가능(不可能)하다→가능(可能)하다 등의 경우이다. 그러나 접미사 없으면 형용사로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위 ㄷ, ㄹ의 경우 뒤에 있는 접미사를 빼면 자립성 있는 명사 혹은 자립성 없는 어근으로 되어 혼자서는 단어를 생성하지 못한다. 중국의 한자 어휘는 명사이지만 한국에 유입되어 한국어 접사와 결합하여 다른 품사가 되었다.

나. 차이점

崔奉春(1989), 金基石(1997)에서 나타난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적인 분류에 대한 논의를 참고하면,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정태(靜態)형용사에서는 주로 고유 형용사가 많이 사용되고, 한자 형용사는 보조이다. 고유 형용사가 발음의 편의와 의미에 따라 다양한 접사가 선택되며, 다양한 동의어군을 이루고, 한자 형용사와 다양한 층차(層次) 동의관계를 이룬다.

둘째, 사물외형에 특징을 나타내고 고유어 형용사의 표현력은 풍부하다. 예를 들어 색의 농담, 명암, 감정색채, 사물의 표상특징(多寡, 松緊, 稠濃) 등을 묘사하는 고유어가 매우 발달 되어 있다. 그러나 사물성질을 묘사하

는 어휘로는 한자어가 고유어에 비해 훨씬 풍부하게 발달되어있다. 예를 들어 ‘좋다’의 뜻을 표현할 때 ‘양호(良好)하다, 우수(優秀)하다, 현저(顯著)하다, 저명(著名)하다,出色(出色)하다, 결출(傑出)하다, 탁월(卓越)하다, 발군(拔群)하다, 우월(優越)하다’ 등이 쓰일 수 있다.

셋째, 동태(動態)형용사 중 고유어 형용사와 한자어 형용사는 중점을 두는 부분이 다르다. 예를 들면, ‘빠르다’의 뜻을 표현할 때, 한국어에서는 한자어 형용사가 더 많이 사용된다. 신속(迅速)하다, 신속(神速)하다, 민첩(敏捷)하다, 급속(急速)하다, 쾌속(快速)하다, 급(急)하다, 반면 ‘늦다’라는 뜻을 표시할 때는 ‘늦다, 느직하다, 느지막하다, 느리다, 느릿하다, 느릿느릿하다, 늘쩍지근하다, 더디다, 천천하다.’와 같이 고유어 형용사가 더 많이 사용된다. ‘기세가 강하다’의 의미를 드러내는 경우는 한자어를 많이 쓰는 편으로, ‘강렬(強烈)하다, 격렬(激烈)하다, 성대(盛大)하다, 급격(急激)하다’ 등이 사용되며, ‘약하다’의 뜻을 표현할 때는 ‘자그맣다, 조그맣다, 작달막하다, 작다, 작다’ 등이 사용된다.

넷째, 일이 잘되는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한자어 형용사가 고유어 형용사보다 더 풍부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순조(順調)롭다, 원만(圓滿)하다, 완벽(完璧)하다, 원활(圓滑)하다’ 등이 있다.

다섯째, 감각 형용사에서는 고유어 형용사의 사용 비율이 높다.

여섯째, 관련 형용사 중에서는 한자어가 다수를 차지한다. 관련 형용사란 사물들 간의 각종 관계와 연계를 지시대상으로 삼는 형용사로서 이동(異同)관계, 점유관계, 조화관계 등을 나타내는 어휘를 이른다. 이동 관계 형용사를 예로 들면, 고유어 형용사 ‘같다’에 대응되는 한자어 형용사는 ‘균등(均等)하다, 동일(同一)하다, 대등(對等)하다, 동등(同等)하다, 상당(相當)하다, 비등(比等)하다’ 등이 있으며 ‘다르다’에 대응되는 한자어로는 ‘각별(各別)하다, 독특(獨特)하다, 부동(不同)하다, 비상(非常)하다, 이상(異常)하다,

특수(特殊)하다, 특별(特別)하다, 특이(特異)하다’ 등이 있다.

일곱째, 한자어에는 동음이의(同音異義)의 형태들이 고유어보다 훨씬 많이 존재한다. 즉, 여러 개의 한자어 형용사가 한글로 표기할 때는 같은 철자와 소리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2.3 한국 한자어 형용사 유형과 특징

가. 한자어 형용사의 유형

한국어의 한자어는 순수한 한자로 구성된 경우도 있고, 한자와 고유어, 심지어 외래어와 혼합되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한자를 ‘H’, 고유어를 ‘K’, 외래어를 ‘W’로 표시하면 한국의 한자어의 유형은 H형, HK형, KH형, WH형, HW형, HKW형, HWK형, HKH형, KHK형, HWH형, WHK형, HKHK형 12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본고의 연구 대상이 되는 한자어 형용사 선정의 근거로 사용된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는 H형, HK형, KH형, HKH¹⁶⁾형의 네 가지 유형의 한자어가 나타나므로 이들의 특징만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¹⁷⁾.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는

16) 본고의 한자어 형용사 분석 선정의 근거가 되는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나타난 한자어를 분석하면 그 유형이 H형, HK형, KH형, HKH형의 네 가지로 분석된다. 이 중에서 본 연구의 대상 어휘는 H형이다. 그리고 정민영(1994)에서는 ‘한자어에는 사실상 조사를 제외하면 굴절접사가 연결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간이라는 개념은 의미가 없으며, 자립 형식일 경우는 모두 단어로 처리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쌍(雙)꺼풀지다’와 같이 혼용한자어 형용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한자어 형용사는 어간과 어근이 같은 개념으로 나타난다. 특히 H형의 한자어 형용사는 어간, 어근 및 어기가 똑같이 나타나는 데, 예를 들어, 건강(健康)하다의 ‘건강(健康)’은 어간이면서, 어근이자, 어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용어의 편의성을 위해 이를 모두 어근이라고 칭하기로 한다.

17) 黃貞姬(2009)참조

H형, HK형, KH형, HKH형 네 가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H형이다. H형은 형용사의 어근이 순수한 한자로 구성된 것이다. 즉 '한자 어근+접미사'식 한국어 형용사이다. 이러한 유형은 어근 음절의 수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ㄱ. 單音節: 심(甚)하다, 시(實)답다, 별(別)나다 등

ㄴ. 雙音節의 한자어는 字의 행태 같은 여부에 따라

AB형: 발랄(潑刺)하다, 공의(公義)롭다, 맹렬(猛烈)하다 등

AA형: 면면(面面)하다, 묵묵(默默)하다, 미미(微微)하다 등

ㄷ. 三音節: 불가결(不可缺)하다, 적나라(赤裸裸)하다 등

ㄹ. 四音節: 변화무쌍하다(變化無雙)하다, 풍성풍성(豐盛豐盛)하다 등

둘째, HK형이다. HK형은 한자와 고유 어소로 구성된 혼합어근, 즉 '한자+고유어소+접미사'식 한국어 형용사, 이러한 한자어 형용사는 본 연구에 많지 않다. '변(變)+함+없다, 금(金)+쪽+같다, 천연(天然)+덕+스럽다, 생(生)+떼+같다, 이상(異常)+야릇+하다, 대문(大門)+작+만하다, 객(客)쩍다, 쌍(雙)+꺼풀+지다, 혼(昏)+몽하다, 추(醜)저분하다, 유명(有名)+짜+하다' 모두 11개가 존재한다.

셋째, KH형이다. KH형은 고유어소와 한자 결합하여 만든 형용사 어근이다. 즉 '고유어소+한자+접미사'식 한국어 형용사. 예를 들면, '튼+실(實)+하다, 속+상(傷)+하다, 곱+상(相)+하다, 귀염+성(性)+스럽다, 바둑+판(板)+같다' 등이 있다.

넷째, HKH형이다. HKH형은 두 한자 가운데 고유 어소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즉 '한자+ 고유어+한자+접미사', 이번 연구에서는 1개만 있다. 순(順)하디 순(順)하다, 이 단어는 한자어 '순(順)하다'의 반복 형식으로 만든 어휘이다.

나. 한자어 형용사의 특징

한자어 형용사는 한자어이며 한국어의 형용사이다. 대부분의 한자어 형용사가 중국어에서도 형용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한자어 형용사는 한국어 형용사와 한자어, 심지어 중국어 형용사의 특징까지 다 가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한자어 형용사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어휘 특징을 단순히 종합한 것이 아닌, 교차와 중첩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자어 형용사를 앞과 뒤 두 부분으로 나누면 앞부분은 어근이고 뒷부분은 접미사이다. 그리고 어근과 접미사는 문장에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여부에 따라 자립성이 있는 것과 자립성이 없는 것 두 가지로 나눈다.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은 어근만으로도 의미가 되는 자립성을 지닌 한자어이다.

둘째, 어근의 일부가 한자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한자 음절이 고유어 음절을 한정하는 기능이 있다. 예를 들면 쌍(雙)꺼풀지다, 바둑판(板)같다 등이다.

셋째,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가 한자 부분을 통해 추측 가능한 편이다. 예를 들어, ‘만족(滿足)’의 뜻을 파악하면 형용사 ‘만족하다’, ‘만족스럽다’ 등의 의미도 자연스럽게 알다. 접미사 ‘-하다’, ‘-스럽다’, ‘-롭다’ 등보다 자립성 있는 접미사 ‘같다’, ‘없다’, ‘다르다’ 등이 전체 한자어 형용사 의미에 영향이 크다.

넷째, 한자 하나가 여러 개 음을 가지고 있어 서로 교차 중복된 경우는 많이 있다. 중국어에서는 성조를 사용하여 음을 구분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성조가 없어서 몇 개의 한자어 형용사가 같은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숫자를 부가 방식으로 구분한다. 예를 들어, ‘무고하다’가 무고하다²→無告하다, 무고하다³→無故하다, 무고하다⁴→無辜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시하고 있다.

다섯째, 문장 기능 측면에 보면 한자어 형용사가 동사와 같이 서술어로 사용한다. 품사의 파생 측면엔 어근이 명사성(名詞性) 있기 때문에 접미사 빼면 바로 명사 파생이 가능하다.

여섯째, 어근이 쌍음절인 한자어 형용사는 어순 도치 가능하고, 어순이 도치되면 다른 어휘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미(細微)하다→미세(微細)하다’ 등이 있다.¹⁸⁾



18) (宋基中,1992:12-16)에서는 한자어형용사의 한자형태소에는 자음 중/ㄸ/, /ㅃ/, /ㅆ/이 존재하지 않고, 모음 중/ㅟ/존재하지 않고 /ㅓ/, /ㅕ/에 후행하는 2중모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Ⅲ. 한·중 동형 한자어 형용사의 형태 층위 분석

중국에서 한국어로 유입된 한자어 어휘들은 당시의 중국어와 유사했던 것으로 여겨지나,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한자어는 형태와 의미, 화용적인 면에서 현대 중국어와는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어의 한자어와 중국어는 형태적으로 보면 한국의 한자어 명사의 경우 중국어와 차이가 나지 않고, 의미적으로 대응 관계에 있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경우, ‘-하다’, ‘-스럽다’, ‘-롭다’, ‘-답다’ 등의 접미사와 결합하여 나타남으로 중국어와의 근본적인 형태적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경우 ‘-하다’, ‘-스럽다’, ‘-롭다’, ‘-답다’ 등의 접미사와 결합하는데, 한자어에 따라 접미사와 결합하는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가령, 한자어 ‘신비(神秘)’는 접미사 ‘-하다’, ‘-스럽다’, ‘-롭다’와 결합하여 형용사 ‘신비하다’, ‘신비스럽다’, ‘신비롭다’를 파생한다. 그리고 한자어 ‘위험(危險)’은 접미사 ‘-하다’, ‘-스럽다’와 결합하여 형용사 ‘위험하다’, ‘위험스럽다’를 파생한다. 이와 같이 한국어에서 한자어가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경우 접미사와 결합하여 나타난다. 하지만 중국어에는 접미사와 결합하여 단어를 파생되는 형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학습자들이 한국어를 학습할 때 어려움을 겪는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자어가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경우 접미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형태 층위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3.1 한자어 형용사의 파생 특징

한국어 형용사의 형태론적 특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단어 형성의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고 다른 하나는 단어 활용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여기서 분석하는 한자 형용사의 한국어 파생 특징은 단어 형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즉 한자어 형용사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형용사를 구성하는 요소들-어근이나 접미사의 특성이 어떠한 지에 초점을 두었다. 접미사 결합 이후에 한자 형용사를 만들어 내는 파생접미사의 유형에서는 다시 어근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가능하다. 어근이 어떠한 것이든 접미사가 결합된 뒤에 만들어진 단어가 형용사라는 품사 부류에 들면 그런 단어들에 한하여 파생 형용사라는 명칭을 부여한다¹⁹⁾

한국어 형용사 파생 접미사란 명사성나 부사성 등의 어근 뒤에 붙어 형용사를 형성하는 접사를 일컫는다. 한국어 형용사의 파생 접미사는 학자마다 정하는 범위가 다르다. 그중 본 연구에 분석할 접미사와 같은 경우는 심재기(1982:354), 하치근(1987:98-124) 등이 있다. 심재기(1982:354)에 의거하여 정리하면 ‘-하다, -스럽다, -롭다, -답다, -같다, -긋다, -되다, -맞다, -지다’ 등 있고, 하치근(1987:98-124)에서 본 연구와 같은 접미사로 정하는 것은 ‘-쩍-’, ‘-차-’가 있다. 이 두 학자의 논의들과 『연세한국어사전』(1998), 『표준국어대사전』(1999), 『(어휘력 향상을 위한)우리말 파생어사전』(2004)을 참고하여 필자 분석할 접미사들을 다음과 같이 <표 2>로 정리하였다.

19) 김정남(2005:33)재인용.

<표 2> 한국어 형용사의 파생 접미사의 종류

	심재기 (1982)	하치근 (1987)	연세한국어 사전(1998)	표준국어대 사전(1999)	우리말과생어 사전(2004)
-하다	○	×	○	○	○
-스럽다	○	○	○	○	○
-롭다	○	○	○	○	○
-없다	○	×	×	×	○
-되다	○	×	○	○	○
-같다	○	×	○	×	○
-적다	○	○	×	○	×
-차다	×	○	○	×	○
-답다	○	○	○	○	○
-나다	×	×	×	○	○
-지다	○	○	○	○	○
-맞다	○	○	○	○	○
-긋다	○	×	×	×	○

<표 2>와 같이 ‘-스럽다’, ‘-롭다’, ‘-답다’, ‘-지다’, ‘-맞다’ 와 같이 공통적으로 인정받는 접미사이고 ‘-하다’, ‘-같다’ 등과 같이 한 연구에서만 인정받는 접미사도이다. 이러한 차이가 있는 이유는 형용사나 동사와 동일 형태인 요소를 접미사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기인한다. 필자는 각 학자들의 접미사 설정 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한자어 형용사를 이루는 구성요소에 따라 접미사로 보았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현대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 되는 한자어 형용사를 어근과 접미사 두 부분으로 구성한 형태에 의거하여 각 접미사로 이룬 형용사의 빈도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자어 형용사의 접미사는 다양하게 쓰인다. 이렇듯 다양하게 나타난 접미사 중 어근이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인 것만 본 연구의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표 3> 접미사에 따른 한자어 형용사의 빈도수

접미사	어휘 수	접미사	어휘 수
-하다	1,339	-맞다	3
-스롭다	206	-겹다	3
-롭다	50	-긋다	2
-없다	21	-있다	2
-되다	11	-다르다	2
-같다	9	-막히다	1
-허다	6	-마르다	1
-찍다	6	-많다	1
-차다	6	-바르다	1
-답다	4	-푸르다	1
-찰다	3	-떠다	1
-나다	4	-좋다	1
-지다	4	-넓다	1
잘다	1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은 한자어 형용사의 파생 접미사는 다음과 같다.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의 파생 접미사:

-하다, -스롭다, -롭다, -찍다, -되다, -없다, -같다, -지다, -떠다, -다르다, -푸르다, -맞다, -찰다.

‘-스롭다’, ‘-롭다’, ‘-찍다’ 등과 같은 한국어 접미사는 대부분 홀로 쓰일 수 없다. 하지만 본 연구 대상 자료에서 나타나는 ‘-되다’, ‘-같다’, ‘-없다’ 등은 자립성이 있으며 홀로 문장 성분이 될 수 있지만 형용사를 파생한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접미사로 정하였다.

위에 제시한 13개의 접미사는 어근과 결합하는 양상이 달리 나타난다. 즉 중국어 한자 어근이 한국어 접미사와 결합할 때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접미사와만 결합하는 경우와 하나의 어근이 하나 이상의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건강(健康)’은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건강하다’를 파생하고, ‘신비(神秘)’는 접미사 ‘-하다’, ‘-스럽다’, ‘-롭다’와 결합하여 ‘신비하다, 신비스럽다, 신비롭다’를 파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자어가 동사나 형용사로 파생될 경우 접미사와 결합하는 양상을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접미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경우와 하나의 어근이 하나 이상의 접미사로 결합하여 형용사를 파생하는 경우, 즉 접미사의 결합에 제한이 없는 것으로 나누어 ‘한자어 어근 + 접미사 1’과 ‘한자어 어근 + 접미사 多’로 나뉜다.

3.2 한자어 어근과 접미사 파생1

하나의 어근이 하나의 접미사로 결합하는 경우를 접미사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단어의 양 및 접미사의 자립성 유무에 따라 ‘-하다’류, 순수 접미사 ‘-스럽다, -롭다, -쩍다’류, 자립성이 있는 접미사 ‘-되다, -없다, -같다, -지다, -떠다, -다르다, -푸르다, -맞다, -잘다’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된 ‘한자어 어근+접미사 120’²⁰⁾로 이룬 한자어 형용사의 접미사는 다시 생산량 및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20) ‘한자어 어근 + 접미사 1’은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 한자어 어근 하나가 한 가지의 접미사와 결합하여 이룬 형용사를 표시한 것이다.

한자어 형용사 접미사들의 계열

- (1) 第一 계열: -하다
- (2) 第二 계열: -스럽다, -롭다, -쩍다
- (3) 第三 계열: -되다, -없다, -같다, -지다, -떠다, -다르다, -푸르다, -
맞다, -잘다

‘한자어 어근 + 접미사’로 이루어진 파생 형용사는 한자어와 접미사에 따라 수많은 단어를 생성한다. 특히 ‘-하다’는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 중에도 ‘-하다’로 구성된 단어들이 많다. 때문에 ‘한자 어근+하다’로 이루어진 파생어는 외견상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분할 수 없다. 그리고 ‘한자어 어근+하다’로 이루어진 단어 중 형용사와 동사 둘 다로 쓰이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하다’와 결합하는 어근 중 자립 형식으로 분류되는 ‘건조(乾燥)’ 등이 그러하다. 그러나 어근의 성격과 의미상의 특성에서 명사의 것과 형용사의 것은 구별되는 면이 있다고 김정남(2005:35)²¹⁾에서는 자립성의 유무 기준을 참고하여 접미사와 결합하는 어근들을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아래의 기준을 설정하였다.

한자 어근의 구별 기준

[+ 자립] / [- 자립]

[+ 명사] / [+ 형용사] / [+ 부사]

[+ 자립]은 자립적으로 쓰이는 단어의 자격을 지닌 어근을 의미하고 이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자립]으로 처리하였다. [+ 명사]와 [+ 부사]

21) 김정남(2005:35) 앞과 같은 책에서 동사의 경우 ‘-하다’에 선접하는 어기들이 대체로 명사와 같은 자립 형식인데 반하여 형용사의 경우에는 비자립 형식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는 인터넷 ‘네이버 국어사전’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표시한 대로 명사, 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 형용사]는 각각 사전에 단어의 품사를 형용사로 명시한 것이다. 그리고 ‘만족(滿足)하다’와 같이 일부 단어는 형용사인 동시에 동사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는 어근 뒤에 ‘V’로 표시한다. 이상 기준의 조합으로 접미사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第一 계열: -하다

한국어 연구들 사이에도 ‘-하다’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하다’가 본동사, 동사 형성 접미사 및 10여 가지의 보조동사 기능을 가진다고 보는 것으로 주시경(1910)을 시작으로 최현배(1937)²²⁾이 대표적인 논의이다. 남기심·고영근(2002:203-204) 등은 ‘-하다’를 접사 주장하며 동사 파생 접미사와 형용사 파생 접미사 두 가지로 나누고 있다. 동사파생법에 예문 ‘밥하다, 공부하다……’를 나열하고 “-하다’는 문법가에 따라서는 단순한 동사로 보는 일도 없지 않으나 ‘-되다’와 대립하여 능동사와 피동사를 형성한다는

22) 최현배(1937)에서는 ‘하다’의 문법범주를 13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 ㄱ. 그 학생이 공부를 한다. (동사)
- ㄴ. 그 학생이 공부한다. (명사-동사 전성 접미사)
- ㄷ. 그 학생이 눈이 반짝반짝하다. (부사-동사 전성 접미사)
- ㄹ. 그 학생이 착하다.(어근 - 형용사 전성 접미사)
- ㅁ. 그 학생이 행복하다.(명사-형용사 전성 접미사)
- ㅂ. 그 학생이 얼굴이 둥글둥글하다.(부사-형용사 전성 접미사)
- ㅅ. 그 학생이 앉아야 한다.(당위 보조동사)
- ㅇ. 그 학생이 눕지 아니(못)하다.(부정 보조동사)
- ㅈ. 그 학생이 눕게 한다.(사동 보조동사)
- ㅊ. 그 학생이 아는 척을 한다.(가식 보조동사)
- ㅋ. 그 학생이 다칠 뻔하였다.(과거 보조동사)
- ㅌ. 그 학생이 가기는 한다.(시인적 대응 보조동사)
- ㅍ. 그 학생이 씹씹하기는 하다.(시인 보조 형용사)

점에서 접사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말했다. 그리고 형용사 접미사의 내용은 명사를 형용사로 된 예문 ‘가난하다’를 통해 ‘-하다’는 “상태성의 의미자질을 띤 명사를 형용사화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접사’류 ‘-하다’의 의미 해석은 다음과 같다.

- ㄱ.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접미사.
- ㄴ. (일부 명사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ㄷ. (의성·의태어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 ㄹ. (의성·의태어 이외의 일부 성상 부사 뒤에 붙어) 동사나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

위의 4개 의미 해석 중에는 ㄴ, ㄷ, ㄹ가 형용사를 만든 접미사로 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하다’를 형용사의 접미사로 처리한다. ‘-하다’는 논쟁이 많지만 조어력이 아주 뚜렷한 접미사이다. 이응백(1980:139)의 통계에 따라 ‘하다’를 접미사로 하는 어휘가 총31,771인데 그 중 어근이 한자어 27,105개(85.3%), 고유어 4,415개(13.9%), 외래어 252개(0.8%)이다. ‘-하다’로 파생하는 한자어 형용사 그 수가 적지 않은데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는 <표 3>에 표시대로 조사 어휘 중 약 79.26%에 해당하는 1341개가 조사되었다. 그 중 어근이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어 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첫째, [+ 부사] [+ 자립]: 당당(堂堂), 돌연(突然), 분명(分明), 아연(啞然), 진정(眞正), 응당(應當), 쟁쟁(錚錚), 부득이(不得已)²³⁾(이상 8개)

23) 돌연(突然), 분명(分明) 부사로 많이 사용하고 다른 것들은 거의 단독으로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사전에 수록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부사에 속하기로 정한다.

둘째, [+ 명사] [+ 자립] : 가혹(苛酷), 간고(艱苦), 간사(奸詐), 간악(奸惡), 간이(簡易), 강대(強大), 건강(健康), 걸출(傑出), 건조(乾燥)V, 결백(潔白), 겸손(謙遜), 겸허(謙虛), 경박(輕薄), 고독(孤獨), 경솔(輕率), 고귀(高貴), 고등(高等), 고명(高明), 고적(孤寂), 곤란(困難), 극단(極端), 공정(公正), 공평(公平), 과대(過大), 과격(過激), 과다(過多), 과민(過敏), 과밀(過密), 과욕(寡慾), 광대(廣大), 광폭(狂暴), 교활(狡猾), 균일(均一), 균등(均等), 근검(勤儉), 근면(勤勉), 급박(急迫), 긴박(緊迫), 긴급(緊急), 나약(懦弱), 난만(爛漫), 남루(襤褸), 냉담(冷淡), 냉정(冷靜), 다양(多樣), 단일(單一), 단순(單純), 대담(大膽), 대길(大吉), 대등(對等), 독특(獨特), 동등(同等), 만전(萬全), 만족(滿足)V, 명랑(明朗), 몽매(蒙昧), 무궁(無窮), 무능(無能), 무료(無聊), 무리(無理)V, 무용(無用), 무정(無情), 문란(紊亂), 미세(微細), 미소(微小), 민감(敏感), 박학(博學), 박약(薄弱), 방탕(放蕩), 부당(不當), 부귀(富貴), 부강(富強), 부실(不實), 부유(富裕), 부화(浮華), 분방(奔放), 불리(不利), 불손(不遜), 불법(不法), 불순(不純), 불쾌(不快), 불의(不義), 불편(不便), 사치(奢侈)V, 성숙(成熟)V²⁴, 성실(誠實), 소란(騷亂), 신중(愼重), 비열(卑劣), 비대(肥大), 비옥(肥沃), 비통(悲痛), 빈약(貧弱), 빈곤(貧困), 빈궁(貧窮), 상당(相當), 생동(生動)V, 선명(鮮明), 선량(善良), 성결(聖潔), 쇠약(衰弱), 수려(秀麗), 숙연(肅然), 순박(淳朴), 순결(純潔), 순백(純白), 순일(純一), 신산(辛酸), 신묘(神妙), 신성(神聖), 신속(迅速), 신중(愼重), 악독(惡毒), 안락(安樂), 안녕(安寧), 안전(安全), 안온(安穩), 안일(安逸), 애매(曖昧), 애통(哀痛)V, 양호(良好), 억울(抑鬱), 엄정(嚴正), 엄중(嚴重), 연로(年老), 연면(連綿), 열등(劣等), 영광(榮光), 영험(靈驗), 오만(傲慢), 우연(偶然), 위험(危險), 온건(穩健), 온유(溫柔), 완강(頑強), 왕성(旺

24) ‘성숙(成熟)하다’는 원래 동사이고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는 형용사로 수록되어 있으며 사용빈도가 ‘4’이다.

盛), 요염(妖艷), 우등(優等)V, 우매(愚昧), 우수(優秀), 우울(憂鬱), 우월(優越), 원활(圓滑), 위급(危急), 유력(有力), 유명(有名), 유리(有利), 유익(有益), 유일(唯一), 유용(有用), 유쾌(愉快), 유한(有限), 유효(有效), 은근(慇懃), 음란(淫亂), 인색(吝嗇), 잔혹(殘酷), 잔인(殘忍), 장엄(莊嚴), 저명(著名), 저속(低俗), 적요(寂寥), 정결(貞潔), 정밀(精密), 정밀(靜謐), 정확(正確), 정확(精確), 정직(正直), 조숙(早熟)V, 존귀(尊貴), 주요(主要), 중대(重大), 중요(重要), 질탕(跌宕), 착잡(錯雜), 참담(慘澹), 참혹(慘酷), 처절(淒切), 철저(徹底), 청결(清潔), 청렴(清廉), 청순(清純), 초조(焦躁), 총명(聰明), 추악(醜惡), 충족(充足)V, 취약(脆弱), 치졸(稚拙), 치열(熾烈), 친밀(親蜜), 친절(親切), 침착(沈着), 침통(沈痛), 태연(泰然), 태만(怠慢), 통쾌(痛快), 특수(特殊), 특이(特異), 특정(特定), 평등(平等), 평온(平穩), 풍요(豐饒), 피곤(疲困), 피로(疲勞), 필요(必要), 평정(平靜), 평안(平安), 평탄(平坦), 포만(飽滿), 풍성(豐盛), 피로(疲勞), 한가(閑暇), 허무(虛無), 혼란(混亂), 한산(閑散), 허망(虛妄), 허약(虛弱), 현란(絢爛), 현묘(玄妙), 호사(豪奢), 혼탁(混濁), 화급(火急), 화목(和睦), 활달(豁達), 활발(活潑), 황공(惶恐), 황망(慌忙), 황홀(恍惚), 흉악(凶惡), 흉포(凶暴), 희소(稀少), 돌출(突出)V, 동일(同一), 무상(無常), 무례(無禮), 번영(繁榮), 부족(不足), 불명(不明), 사악(邪惡), 소원(疏遠), 유명(幽冥), 저조(低調), 청정(淸淨)V, 현명(賢明), 화평(和平), 소홀(疏忽), 엄격(嚴格), 온난(溫暖), 유사(類似), 유수(有數), 잔학(殘虐), 충실(充實), 편리(便利), 건전(健全), 각별(各別), 단순(單純), 당연(當然), 무한(無限), 순수(純粹), 완전(完全), 우연(偶然), 일정(一定), 특별(特別), 교만(驕慢), 상당(相當), 가능(可能), 불가(不可), 전능(全能), 독(毒), 묘(妙), 부(富) (이상 271개)

셋째, [+ 형용사] [- 자립]: 각박(刻薄), 간결(簡潔), 간곡(懇曲), 간단(簡

單), 간략(簡略), 간절(懇切), 간편(簡便), 강경(強硬), 강렬(強烈), 강인(強
 靱), 거대(巨大), 건실(健實), 건강(健壯), 건전(健全), 격렬(激烈), 견실(堅
 實), 견고(堅固), 건강((堅強), 간특(姦慝), 강고(強固), 강경(強勁), 강직(剛
 直), 강성(強盛), 경건(勁健), 경미(輕微), 경쾌(輕快), 고고(孤高), 고단(孤
 單), 고매(高邁), 고상(高尚), 고아(高雅), 곤고(困苦), 과감(果敢), 과분(過
 分), 과중(過重), 관대(寬大), 관활(寬闊), 광막(廣漠), 광범(廣範), 괴벽(乖
 僻), 광활(廣闊), 교교(皎皎), 교묘(巧妙), 귀중(貴重), 근엄(謹嚴), 급급(汲
 汲), 기괴(怪奇), 기구(崎嶇), 기묘(奇妙), 기민(機敏), 기이(奇異), 기특(奇
 特), 긴요(緊要), 긴밀(緊密), 깎긴(喫緊), 난감(難堪), 낭랑(朗朗), 낭자(狼
 藉), 냉랭(冷冷), 냉혹(冷酷), 녹록(碌碌), 농밀(濃密), 농후(濃厚), 누추(陋
 醜), 늠름(凜凜), 늠연(凜然), 단정(端正), 단정(端整), 담담(淡淡), 도도(滔
 滔), 독실(篤實), 돈후(敦厚), 돌올(突兀), 등등(騰騰), 막대(莫大), 막막(漠
 漠), 막역(莫逆), 막연(漠然), 망망(茫茫), 망연(茫然), 맹랑(孟浪), 맹렬(猛
 烈), 면밀(綿密), 명석(明皙), 명쾌(明快), 몽롱(朦朧), 묘안(杳然), 무성(茂
 盛), 묵묵(默默), 미려(美麗), 미묘(微妙), 미묘(美妙), 미미(微微), 미약(微
 弱), 미천(微賤), 민첩(敏捷), 밀밀(密密), 박절(迫切), 방대(老大), 번다(繁
 多), 번화(繁華), 부요(富饒), 불민(不敏), 비겁(卑怯), 비루(鄙陋), 비범(非
 凡), 비장(悲壯), 비천(卑賤), 빈번(頻繁), 빈한(貧寒), 산만(散漫), 산란(散
 亂), 삼엄(森嚴), 삼상(颯爽), 상세(詳細), 상쾌(爽快), 생소(生疏), 석연(釋
 然), 성급(性急), 섬약(纖弱), 성대(盛大), 세미(細微), 세밀(細密), 세심(細
 心), 소박(素朴), 솔직(率直), 송연(悚然), 순후(淳厚), 순연(純然), 숭고(崇
 高), 신랄(辛辣), 신선(新鮮), 신속(神速), 심각(深刻), 심오(深奧), 심원(深
 遠), 심장(深長), 암담(暗澹), 애절(哀切), 양양(洋洋), 양양(揚揚), 엄밀(嚴
 密), 엄혹(嚴酷), 엄연(儼然), 역력(歷歷), 연약(軟弱), 열렬(熱烈), 영롱(玲
 瓏), 영리(伶俐), 영명(英明), 예리(銳利), 온당(穩當), 예민(銳敏), 온순(溫

順), 온화(溫和), 완만(緩慢), 완고(頑固), 왜소(矮小), 요긴(要緊), 요원(遙遠), 용감(勇敢), 완연(宛然), 용이(容易), 우미(優美), 우아(優雅), 웅대(雄大), 웅장(雄壯), 원대(遠大), 원만(圓滿), 위대(偉大), 위중(危重), 유구(悠久), 유약(幼弱), 유약(柔弱), 유순(柔順), 유연(柔軟), 유연(悠然), 유적(幽寂), 유장(悠長), 유유(悠悠), 유창(流暢), 유치(幼稚), 유화(柔和), 은은(殷殷), 은은(隱隱), 음습(陰濕), 음침(陰沈), 음탕(淫蕩), 음험(陰險), 음울(陰鬱), 의연(毅然), 자세(仔細), 작작(綽綽), 잔잔(潺潺), 장려(壯麗), 장렬(壯烈), 장중(莊重), 장황(張皇), 저렴(低廉), 저열(低劣), 적당(適當), 적연(寂然), 적적(寂寂), 전아(典雅), 절묘(絕妙), 절절(切切), 정교(精巧), 정연(井然), 정정(亭亭), 정중(鄭重), 정치(精緻), 조대(粗大), 조밀(稠密), 졸렬(拙劣), 준수(俊秀), 지당(至當), 진귀(珍貴), 진기(珍奇), 진솔(眞率), 진부(陳腐), 진지(眞摯), 질박(質朴), 집요(執拗), 징청(澄清), 찬연(燦然), 찬란(燦爛), 참신(斬新), 창백(蒼白), 창창(蒼蒼), 처연(淒然), 처참(淒慘), 첨예(尖銳), 청담(淸淡), 청량(淸亮), 청량(淸涼), 청신(淸新), 청아(淸雅), 청정(淸正), 청청(淸淸), 초연(超然), 초췌(憔悴), 출중(出衆), 충분(充分), 치밀(緻密), 침울(沈鬱), 침침(沈沈), 쾌활(快活), 타당(妥當), 탁월(卓越), 투철(透徹), 특출(特出), 편편(便便), 평범(平凡), 평평(平平), 평이(平易), 풍만(豐滿), 풍족(豐足), 허다(許多), 험난(險難), 험악(險惡), 험준(險峻), 현저(顯著), 협소(狹小), 협애(狹隘), 호방(豪放), 혼란(昏亂), 화려(華麗), 화순(和順), 화창(和暢), 황량(荒涼), 황무(荒蕪), 휘황(輝煌), 흥흥(洶洶), 흥연(欣然), 흔쾌(欣快), 희미(熹微), 희박(稀薄), 구구(區區), 장구(長久), 가련(可憐), 공고(鞏固), 당돌(唐突), 등한(等閒), 명백(明白), 명료(明瞭), 명확(明確), 모호(模糊), 무망(無望), 부유(富有), 비박(菲薄), 소심(小心), 엄숙(嚴肅), 장대(壯大), 절실(切實), 정당(正當), 청초(淸楚), 친근(親近), 풍부(豐富), 황당(荒唐), 희한(稀罕), 결연(決然), 분분(紛紛), 확실(確實), 망정(方

正), 소슬(蕭瑟), 적나라(赤裸裸), 강(強), 경(輕), 곤(困), 과(過), 궁(窮), 귀(貴), 급(急), 긴(緊), 냉(冷), 농(濃), 둔(鈍), 박(薄), 약(弱), 엄(嚴), 장(壯), 중(重), 천(賤), 추(醜), 친(親), 험(險), 후(厚) (이상 327개)

第一 계열의 3가지 유형을 보면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어인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은 자립성 있는 경우가 자립성 없는 경우보다 그 수가 적은 편이다. 이는 자립성 있는 경우는 한국에 유입될 당시부터 부사나 명사, 명사상당어구로 한국어에 들어왔고, 자립성이 없는 경우는 유입될 당시 ‘-하다’ 파생 형용사의 어근에서 출발하여 그 성질이나 상태성 의미를 추상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중 ‘고독(孤獨), 불안(不安), 불평(不平)’등이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 명사이고 긍정적인 의미를 지닌 정‘직(正直), 우수(優秀)’등도 있고 동시에 ‘우연(偶然), 필요(必要)’와 같은 부정과 긍정 중간에 속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어근 자립성의 유무가 사전에 따라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만 명사성인지 형용사성인지 그 경계가 분명하지 않다. 불분명한 어근들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소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다른 문장 요소와 결합하여 구 구성을 이룰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자립]으로 판정하였다. 사전의 검색 결과를 살펴 [+명사], [+부사]로 판정하였다. 이런 범주에 들지 않는 것은 모두 [+형용사]로 판정하였다.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예문을 참조하며 정리하겠다.

(4) ㄱ. 부사: ?당당(堂堂) 1위에 입상하다. / 그 사람이 돌연(突然) 나타난다. / 그 날 내가 본 사람은 분명(分明) 그녀였다.……

ㄴ. 명사: ?운명의 가혹(苛酷)²⁵⁾에서 불행을 생긴다. / 건강(健康)을

25)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명사로 사용하는 한자어 가혹(苛酷)의 사용 빈도는

지키다. / 건조(乾燥)가 된다.……

ㄷ. *각박(刻薄) 현실을 익이다.→현실이 각박(刻薄)하다. / *간결(簡潔)
을 보이다.→문장이 간결(簡潔)하다. / *간곡(懇曲)을 부탁하다.→
부탁이 간곡(懇曲)하다.……

(4ㄱ)와 (4ㄴ)는 ‘-하다’의 어근으로 쓰인 요소들이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4ㄱ)는 한자 어근이 부사어로 문장기능을 하여 직접 구을 만드는 경우이고 (4ㄴ)는 조사와 결합하여 구 구성을 이루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4ㄷ)는 자립성이 없어 조사와 결합하지 못하고 선행 어휘를 묘사하는 서술어로 된 현상을 보여 준다. 따라서 ‘각박(刻薄)’ 등이 [+ 형용사] [- 자립]로 판정하였다. 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 경우에도 더 많은 조사와 결합이 가능성 있고 상대적으로 더 제한적인 것도 있으나 그런 상황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조사와의 결합 여부만을 판별의 기준으로 삼았다.

앞서 설명했듯이 ‘V’기호를 후접(後接)시켜 놓은 것은 한국어에서 동사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의미한다. 즉 형용사가 되는 동시에 동사도 되는 품사를 겸유하는 것이다. ‘어근+하다’를 동사로 판정한 기준은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 명시된 품사 분류를 참고하였다.

아래 예문을 통해 ‘어근+하다’의 어근의 품사와 파생된 단어의 품사에 대해 살펴보았다.

(5) 명사

ㄱ. 바람이 많아 건조(乾燥)가 빨리 되다.

ㄴ. 할머니는 손자를 돌보는 것에서 만족(滿足)을 얻는다.

ㄷ. 여자들은 남편에게서 얻지 못한 충족(充足)을 일반적으로 자식의

‘10’이다.

출세에서 구하려 한다.

ㄹ. 그렇게 화를 내는 건 무리(無理)이다.

(6) 동사

ㄱ. 세탁물을 건조(乾燥)하다.

ㄴ. 나는 한국 음식에 만족(滿足)한다.

ㄷ. 국민 생활의 기본 수요를 충족(充足)한다.

ㄹ. 그는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해 요즘 너무 무리(無理)한다.

(7) 형용사

ㄱ. 피부가 건조(乾燥)하다.

ㄴ. 만족(滿足)한 얼굴.

ㄷ. 자금이 충족(充足)하다.

ㄹ. 그의 태도가 너무 무리(無理)하다.

(5)의 예문들은 한자어 ‘건조(乾燥)’, ‘만족(滿足)’, ‘충족(充足)’이 명사로 사용하는 문장이고 (6, 7)은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와 형용사로 쓰이는 문장이다. (5ㄱ)는 ‘말라서 습기 없는 상태’를 명사 ‘건조(乾燥)’로 명명하고 설명하고 있고 (5ㄴ) ‘만족(滿足)’은 주어 ‘할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일’을 통해 느낀 ‘만족감’을 기술하고 있다. (5ㄷ)의 ‘충족(充足)’은 ‘만족(滿足)’과 비슷한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5ㄹ)의 ‘무리(無理)’는 ‘화를 내’는 행위를 명명한다.

(6ㄱ, ㄷ)에서 수동자 ‘세탁물’, ‘수요’가 동사 ‘건조하다’와 ‘충족하다’에 수식받고 있다. (6ㄴ) ‘충족(充足)하다’는 주어 ‘나’의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7ㄱ, ㄷ)에서는 서술어로서 ‘피부’의 상태와 ‘자금’의 양을 기술하고 (7ㄴ)는 관형어로서 얼굴의 양상을 묘사한다. 위의 예문들은 한국어에서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문장이다. 따라서 이 3개 한자어는 명사는 물론이

고 동사와 형용사로도 아무 문제없이 파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 명사][+ 자립]에 귀속하고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는 기호 ‘V’를 붙였다. 이러한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형용사가 동사를 겸유하는 한자어 어근이 앞에 第一 계열에 제시한 것과 같으며 모두 11개가 조사되었다. 따라서 접미사 ‘-하다’는 형용사 접미사이지만 단독으로 사용할 때 동사로 사용하기 때문에 몇몇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동사를 이룬 경우도 있다.

(2) 第二 계열: -스럽, -롭다, -쩍다

[+ 명사] [+ 자립]

- ㄱ. -스럽다: 가증(可憎), 고민(苦悶), 고통(苦痛), 곤혹(困惑), 불만(不滿), 비참(悲慘), 야만(野蠻), 요행(僥倖), 외설(猥褻), 정성(精誠), 충성(忠誠), 수치(羞恥), 위엄(威嚴), 전통(傳統), 고집(固執), 과장(誇張), 실망(失望), 절망(絶望), 존경(尊敬), 공포(恐怖), 자연(自然), 횡포(橫暴), 잡(雜), 탐(貪), 흉(凶) (이상 25개)
- ㄴ. -롭다: 가소(可笑), 단조(單調), 여유(餘裕), 조화(調和), 화기(和氣), 정의(正義), 영화(榮華), 자애(慈愛)²⁶⁾ (이상 8개)

[+ 형용사] [+ 자립]

-쩍다: 겸연(慚然)

앞서 제시한 ‘-하다’의 분류 기준과 같이 第二 계열을 ‘[+ 명사] [+ 자립]’

26)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단조(單調)’가 명사로 사용하는 빈도는 ‘1’로 나오고 형용사로 사용할 때는 ‘단조(單調)하다’ 말고 ‘단조(單調)롭다’만 수록되기 때문에 일단 ‘-롭다’류 귀속하기로 정한다.

과 ‘[+ 형용사] [- 자립]’으로 나누었다. 第二 계열의 예들을 보면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어인 한국어 형용사는 접미사 ‘-스럽다’나 ‘-롭다’와 결합하며,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이 모두 자립성 있는 명사인 데 실물로 표시하지 못하는 추상적인 명사이다. 이렇듯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어인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 중에 ‘-스럽다’ 혹은 ‘-롭다’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은 ‘-하다’류 한자어 형용사와 같이 처음부터 주로 명사로 한국어에 들어와 지금까지 명사로 사용되고 있다.

아래 (8)는 앞서 제시한 第一 계열의 명사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제시된 ‘어근+스럽다’, ‘어근+롭다’의 예문을 살펴본 것이다.

(8) ㄱ. -스럽다: 가증(可憎)을 부리다.

고민(苦悶)을 해결하다.

고통(苦痛)을 참다.……

ㄴ. -롭다: 백수건달 주제에 사업을 벌이겠다고 떠들어 대는 것을 보니

가소(可笑)를 금할 수 없다.

시간적 여유(餘裕)를 갖다.

정의(正義)를 위하여 싸우자.……

ㄷ. *겸연(慊然)을 보다.

너를 보기가 겸연(慊然)스럽다.

(8ㄱ)와 (8ㄴ)는 어근으로 쓰인 요소들이 직접 구를 형성하는 경우를 보인 것이다. ‘-하다’의 분류 기준과 같이 ‘어근+스럽다’, ‘어근+롭다’의 어근이 구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 명사] [+ 자립]’로 분류하였다. (8ㄷ)는 ‘어근+스럽다’, ‘어근+롭다’의 어근이 자립성고 조사와 결합하지 못하는 경

우이다. 이때 어근은 선행 어휘를 묘사하는 서술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 어근] [+ 자립]’로 분류하였다. (8)의 예문과 같이 ‘-스럽다’, ‘-롭다’는 선행 요소인 명사와 결합하여 품사를 형용사로 전성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어근들의 음운적 측면에서 보면 ‘-롭다’가 ‘-스럽다’보다 결합하는 어근에 제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럽다’는 선행어 말음(末音)의 음운론적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롭다’는 선행어 말음이 모음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張英熙(1986:24)에 따르면 ‘-스럽다’는 “자음 특히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ㅈ, ㅊ, ㅋ, ㆁ’ 등과의 결합이 강하게 나타난다”²⁷⁾고 한다.

‘-롭다’의 단어 생산성은 ‘-스럽다’의 단어 생산성보다 많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 수록된 한자어 형용사 가운데 ‘-롭다’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50개로 조사되었다.

‘-스럽다’의 의미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심재기(1982:381)에서 구체적인 실물을 선행소로 할 때, “그 선행소의 특징적 속성에 매우 가깝게 접근했음을 나타내는 것을 중요한 의미기능으로 삼는다”라고 기술하였는데 본 연구의 연구 대상인 한자어 형용사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실물로 표시할 수 있는 어근이 나타나지 않았다.

‘-스럽다’의 생산성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면 민현식(1984:116)에서 사전을 통해 ‘-스럽다’와 ‘-롭다’가 결합하는 어휘를 조사하였는데 “‘-스럽다’와 결합하는 어휘는 260개, ‘-롭다’와만 결합하는 어휘는 34개”가 있다고 하였다. 김성규(1987:44)에서 ‘-스럽다’와 ‘-롭다’를 매우 생산적인 결합력을 가진 것이라고 하였고, 김창섭(1991:145-146)에서도 “‘-스럽다’와 ‘-롭다’를 현대국어에서 가장 생산적으로 형용사를 파생하는 접미사”라고 하면서 ‘-스럽다’가 ‘괴물스럽다, 보람스럽다, 쪽스럽다’등의 많은 임시어(臨時語)를 산출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27) 張英熙(1986:24)참조.

第二 계열에 나열했던 어기들을 살펴보면 ‘횡포(橫暴)’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한자어 형용사 ‘횡포스럽다’도 임시어인 것을 알 수 있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횡포스럽다’의 사용 빈도는 ‘1’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횡포스럽다’를 검색해보면 나타나지 않는다.

김정남(2005:45)에서도 Baayen & Lieber²⁸⁾의 이론에 의거하여 형용사를 살펴 보았는데 ‘-스럽다’는 “현대국어에서 생산성이 높은 접미사라는 기준의 논의들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결론을 냈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된 한자어 형용사 가운데 ‘-스럽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형용사가 206개가 있고, 이는 수록된 전체 한자어 형용사의 12%에 해당하였다.

‘-롭다’는 ‘-스럽다’와 의미적 측면에서 매우 유사한 특징을 지니기²⁹⁾ 때문에 이전부터 주목받아 왔다. 송철의(1992:209)에서도 “‘-롭-’과 ‘-스럽-’은 그 의미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둘의 파생어가 “별다른 의미 차이 없이 서로 교체되는 예들이 있다”고 말했다. ‘-롭다’는 어근과 결합하여 ‘그렇다, 그러하다’ 또는 ‘그럴 만하다’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된 경이(驚異), 권태(倦怠), 자유(自由), 평화(平和)등 4개의 어근은 ‘-스럽다’, ‘-롭다’와 모두 결합이 가능하다. 김창섭(1994:147-148)에서는 “‘-롭다’와 ‘-스럽다’에는 판단 주체의 존재가 전제되므로 ‘주관적 판단’이라는 의미가 암시된다”는 점을 들어 “‘-롭-’은 단순한 주관적 판단을 암시한다면, ‘-스럽-’은 더 적극적으로 ‘주체의 감각적 경험을 통한 주관적 판단’이라는 것을 함축한다”고 이 두 접미사의 의미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28) Baayen & Lieber(1991:802-809)에서는 생산성의 측정 방법을 지수화하는 과정에서 생산성이 높은 접사는 텍스트에서 한 번 출현하는 단발어로 나타나는 비율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김정남(2005:45) 재인용).

29) ‘스럽다, -롭다’의 의미론적 특성은 송철의(1977), 심재기(1982)를 통해 [+ 미흡성] 따위의 의미자질 논의가 있었음을 전술한 바 있다(민현식, 1984:110).

기능적으로 보면 ‘-스럽다’는 ‘바보스럽다’와 같이 사람을 의미하는 말에 붙어 그러한 성격에 근접하여 있다는 사실을 표시할 때도 쓰이나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함을 아쉬워하는 화자의 의도가 작용할 때도 쓰인다. ‘-롭다’는 명사뿐만 아니라 관형사 어근과 결합하고, 불규칙 어근 아래에도 쓰이는데, 명사어근의 경우는 대체로 ‘슬기’와 같이 추상성을 띤, 모음으로 끝나는 말과 결합된다(남기심·고영근(2002:204-205) 재인용).

‘-쩍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데가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쩍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형용사에는 ‘객(客)쩍다, 겸연(慊然)쩍다, 괴이(怪異)쩍다, 미심(未審)쩍다, 미안(未安)쩍다, 수상(殊常)쩍다’등 6개가 있다. ‘-쩍다’는 생산성이 낮은 접미사에 속한다. 그리고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이 6개 형용사의 사용 빈도는 각자 ‘2, 16, 4, 15, 1, 6’이고, ‘괴이(怪異)하다, 미안(未安)하다, 수상(殊常)하다’의 사용 빈도는 각자 ‘10, 353, 29’이고, ‘미안(未安)스럽다’의 사용 빈도는 ‘3’이다. 한·중 동형 한자어 형용사에서 ‘-쩍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형용사는 다른 접미사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형용사보다 빈도가 낮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쩍다’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스럽다’와 ‘-롭다’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第二 계열에 나열했던 어근은 의미적 측면에서 추상명사의 성격에 가깝다. ‘-스럽다’는 이런 추상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 무엇처럼 보인다, 보기에 그런 느낌이 있다’라는 의미를 더하고 형용사를 만든다. ‘-스럽다’가 매우 생산적이고 문학작품에서도 신조어로도 많이 등장한다. ‘-스럽다’는 구어보다 문어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다.

‘-스럽다’와 ‘-롭다’는 형용사의 전용 접미사로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의미적 측면에서 매우 비슷하지만 몇몇 단어를 통해 두 접미사 사이의 차이점을 알 수 있었다. ‘-스럽다’와 ‘-롭다’의 의미 차이를 예문을 통해 살

펴보았다.

(9) ㄱ. 어머니는 음식을 늘 정성(精誠)스럽게 준비한다.

ㄴ. 재판장은 존경(尊敬)스럽다.

ㄷ. 적보다 더 가증(可憎)스러운 배신자의 모습

ㄹ. 외향적인 동생에게 학교생활은 고통(苦痛)스럽다.

ㅁ. 너 같은 인간과 가족 되는 것은 수치(羞恥)스러운 일이다.

ㅂ. 불만(不滿)스러운 것이 있으면 말해 보세요.

(10) ㄱ. 자애(慈愛)로운 어머니가 자식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잘 해준다.

ㄴ. 정의(正義)로운 재판장이 국민에게 인기가 많다.

ㄷ. 오랜 연륜을 쌓은 테서 나오는 여유(餘裕)로운 모습

ㄹ. 매일 반복되는 일상생활이 정말 단조(單調)롭다.

ㅁ. 부부 사이가 조화(調和)로워야 온 가족이 행복하다.

ㅂ. 말도 안되는 소리를 그냥 듣고 있는 것도 가소(可笑)롭다.

(9)과 (10)의 ㄱ의 두 예문은 다 ‘어머니’, ‘ㄴ’은 ‘재판장’, ㄷ은 ‘모습’에 대한 묘사이고 ㄹ의 두 예문은 ‘생활’에 관련된 것, ㅁ은 ‘가족’에 관련된 것, ㅂ는 대명사‘것’을 기술한 것이다. 이 12개의 예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형용사는 모두 감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0)번의 6개 예문들은 (9)의 예문들보다 조금 더 ‘본질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10 ㄱ)은 ‘어머니’에 대한 묘사를 한 것인데 모든 사람에게 ‘어머니’는 ‘자식에게 무조건 잘 해주고 따뜻하게 대해 주’는 이미지이다. (10 ㄴ)의 ‘재판장’은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고 약자를 보호해주는 이미지이다. (10 ㄷ)의 ‘오랜 연륜을 쌓다’는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경험이 많아 일을 처리할 때 서투

르지 않고 여유 있게 잘하는 꼬리표를 붙이고 있다. (10ㄱ)에서 기술하는 대상 ‘일상생활’은 일반인에게 ‘변함이 없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공통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고 (10ㄴ)의 ‘부부사이 좋으면 가정이 행복하다’라는 일반적인 공식이고 (10ㄷ)에 ‘말도 되지 않다’는 말에 대해 보통 반대하거나 듣지 않다는 반응을 해야 하는데 ‘그냥 듣다’면 웃긴 일이 되어 ‘가소롭다’를 사용한다. 따라서 (10)번 ‘-롭다’로 이룬 문장에 나타낸 기술 대상이 모든 사람에게 공식적인 이미지나 판단하는 기준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9)의 예문은 (10)보다 화자의 감정적인 특징이 약간 강하게 보인다. (9ㄱ)은 화자 입장에서 어머니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다고 인정하지만 다른 사람 특히 ‘고수관계’가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도 가능하다. (9ㄴ)은 (10ㄴ)과 같이 ‘재판장’에 대한 기술인데 (10ㄴ)의 ‘국민에게 인기가 많다’는 조건에 비해 (9ㄴ)은 더 개인적인 감정으로 느낀다. 왜냐면 ‘재판장’에 대한 ‘존경(尊敬)심’이 ‘재판장’의 사회지위 때문에 생긴 것으로 판단도 되기 때문이다. (9ㄷ)에 ‘적’과 ‘배신자’ 다 미움을 받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적보다 더...’라는 말을 통해 이 문장이 화자의 개인적인 감정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9ㄱ)의 ‘학교생활’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 ‘외향적인 동생’은 후자에 속하기 때문에 ‘고통’을 느낄 수 있지만 이 문장은 화자의 입장에서 학교생활이 풍부하지 않아 외향적인 동생과 맞지 않아서 ‘고통스럽다’는 추측을 내리고 동생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문장에 보이지 않는다. (9ㄴ)은 화자 입장에서는 ‘너’라는 가족이 잘 못하는 것을 있게 보인다. 이 잘 못함을 화자는 ‘수치’를 느끼지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는 경우도 가능하다. (9ㄷ)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화자만의 개인적인 느낌이 뚜렷하게 보인다.

따라서 위의 예문들은 (9)은 주관적인 인식이 더 강하고 (10)는 객관적인 인식이 약간 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접미사 ‘-롭다’와 ‘-스럽다’로 이룬 형용사가 다 감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롭다’는 덜 감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롭다’로 이룬 한자어 형용사가 객관적인 본질이 있고 ‘-스럽다’로 이룬 한자어 형용사는 ‘-롭다’보다 주관적인 감정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물론 언중들의 직관은 양자를 구별 없이 동의어 차원에서 쓰는 것도 발견할 수 있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된 경이(驚異), 권태(倦怠), 자유(自由), 평화(平和)³⁰⁾가 ‘-스럽다’ 및 ‘-롭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한자어 형용사의 사용빈도는 각자 ‘2대 16’, ‘2대 11’, ‘20대 371’, ‘3대 80’이고 ‘-롭다’로 이룬 형용사의 사용빈도가 높을 것을 보여준다. 이런 ‘X스럽다’와 ‘X롭다’ 사이에 감각적 가치와 본질적 가치의 차이는 다음 예처럼 같은 어기로부터의 파생 형용사가 있을 때도 상대적으로 느껴진다.

(11) ㄱ. 다리의 깁스를 푸니 이젠 다리가 자유(自由)스럽게 움직인다.

ㄴ. 다리의 깁스를 푸니 이젠 다리가 자유(自由)롭게 움직인다.

(12) ㄱ. 돈을 들어 꾸미니 집이 호화(豪華)로워졌다.

ㄴ. 돈을 들어 꾸미니 집이 호화(豪華)스러워졌다.

(13) ㄱ. 호화(豪華)로운 궁전

ㄴ. 호화(豪華)스러운 궁전

(11)에서 두 문장은 ‘다리의 깁스를 풀다’라는 같은 조건에서 ‘움직이다’

30) 이 네 어근으로 이룬 한자어 형용사는 다 ‘X+접미사多’인데 양이 적어 또한 예서는 ‘경이(驚異)스럽다’와 ‘권태(倦怠)스럽다’가 사전에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따로 분석하지 않고 여기서 설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평화(平和)스럽다’가 ‘평화(平和)롭다’와 의미적으로 구분 없는 만큼 가까워서 ‘-스럽다’와 ‘-롭다’의 유사함을 다시 입증했다.

라는 일치한 결과를 얻었다. 그 중 (11ㄱ)은 화자가 감정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고 (11ㄴ)은 객관적인 조건에서 판단하는 근거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또한 (12)과 (13)의 네 개의 문장 모두 한자어 어근 ‘호화(豪華)’가 만든 형용사의 구문인데 (12ㄱ)과 (12ㄴ), (13ㄱ)과 (13ㄴ)을 비교하면 (11)의 경우와 같이 차이점이 뚜렷하지 않다. 그러나 묘사하는 ‘궁전’과 ‘집’ 두 대상이 수식어를 택하면 ‘호화(豪華)스럽다’가 ‘집’에, ‘호화(豪華)롭다’는 ‘궁전’을 취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돈을 들여 ‘집’을 잘 꾸며도 ‘궁전’과는 수준이 다르다. 다른 말로 하면 ‘호화(豪華)롭다’가 객관적인 본질이 뚜렷한 ‘궁전’을 선택한 이유는 ‘한자어 어근 + -롭다’가 판단의 기준을 자신의 주관적 견해에 근거를 둔 경우이고 ‘한자어 어근 + -스럽다’는 이에 비해 판단의 근거를 사물의 관점에 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第二 계열에서 ‘-스럽다’ 및 ‘-롭다’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 중 ‘가증(可憎), 고민(苦悶), 곤혹(困惑), 불만(不滿), 비참(悲慘), 실망(失望), 절망(絶望), 불안(不安)’ 8개는 각 사전에서 설명하고 있는 의미 해석에 의거하면 모두 심리활동을 묘사하는 명사이다. 이 8개 명사가 ‘-스럽다’ 및 ‘-롭다’와 결합하여 구성된 형용사는 아래 <표 4>의 내용과 같이 정리한다.

<표 4>와 본 바와 같이 ‘가증(可憎)’ 등의 8개 명사는 ‘-롭다’와 결합할 수 없다. 이는 ‘-롭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형용사가 ‘본질적’ 특징을 가지기 때문이다. ‘가증(可憎)’과 같은 심리적인 어휘는 당사자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 그리고 ‘가증(可憎)’과 같은 심리적인 어휘는 각자 자신의 느낌으로 사용하는 어휘라서 모든 사람들의 주관적인 감정으로 통일할 수 없다. 즉 ‘가증(可憎)’과 같은 심리적인 어휘는 심리의 상태를 판정하는 표준 기준을 일관적으로 나타낼 수 없다. 심리적인 어휘들의 의미에는 ‘본질’이라는 것이 없어 ‘-롭다’와 결합할 수 없다.

<표 4> 심리 명사와 ‘-스럽다’, ‘-롭다’와 결합 상황

가증(可憎)스럽다,	*가증(可憎)롭다,
고민(苦悶)스럽다,	*고민(苦悶)롭다,
곤혹(困惑)스럽다,	*곤혹(困惑)롭다,
불만(不滿)스럽다,	*불만(不滿)롭다,
비참(悲慘)스럽다,	*비참(悲慘)롭다,
실망(失望)스럽다,	*실망(失望)롭다,
절망(絶望)스럽다,	*절망(絶望)롭다,
불안(不安)스럽다,	*불안(不安)롭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롭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형용사는 ‘무엇이 …롭다’라고 판단하는 주체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지 않는다. 또한 그 판단이 반드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암시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롭다’는 사물의 본질적인 면에서 ‘-스럽다’보다 상대적으로 객관적인데 비해 ‘-스럽다’와 결합하는 형용사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스럽다’로 판단하는 주체의 존재가 강하게 암시되고 그 판단이 주체적 판단이라고 암시되는 듯하다³¹⁾. 그러나 ‘-스럽다’와 ‘-롭다’를 대비해보면 차이를 발견할 수 있기는 하지만, 많은 문맥에서 두 접미사는 거의 같은 의미로 쓰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31) 김창섭(1984:151-152)에서는 ‘-스럽-’과 ‘-답-’, ‘-롭-’의 의미적인 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1) ‘-답-’, ‘-롭-’의 경우에는 ‘무엇이 X답다/롭다’라고 판단하는 주체의 존재가 반드시 전제되는 것도 아니고 따라서 그 판단이 반드시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암시되지도 않는 데 비해, ‘-스럽-’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무엇이 X스럽다’고 판단하는 주체가 강하게 암시되고 그 판단이 주관적 판단이라고 암시되는 듯하다.
- 2) ‘X스럽다’는 보다 감각적인 면에서의 평가라면 ‘X답다/롭다’는 보다 본질적인 면에서의 평가인 듯하다.

第二 계열에 보았듯이 ‘-스럽다’와 ‘-롭다’의 선접(先接) 어근은 긍정적·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한자어 형용사에서 ‘-스럽다’의 선접 어근이 주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는 반면에 ‘-롭다’는 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근과 결합한다. ‘-롭다’와 긍정적 어근이 결합하는 비율을 매우 높은 것을 고려할 때, ‘-롭다’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第三 계열: 되다, 없다, 같다, 지다, 떠다, 다르다, 푸르다, 맞다³²⁾, 찰다

[+ 명사] [+ 자립]

- ㄱ. 되다: 균형(均衡)³³⁾, 세련(洗練), 외람(猥濫), 진실(眞實)^v, 속(俗), 삿(邪)
- ㄴ. 없다: 영락(零落), 손색(遜色), 정신(精神)
- ㄷ. 같다: 악착(齷齪)
- ㄹ. 지다: 습(濕)
- ㅁ. 떠다: 열(熱)
- ㅂ. 다르다: 색(色)

[+ 형용사] [- 자립]

32)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 수록된 ‘되다’와 같이 단독적으로 문장의 성분을 될 수 있는 한자어 형용사 접미사는 품사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동사: 되다, 차아, 지다, 나다, 막히다, 마르다, 떠다

형용사: 바르다, 없다, 있다, 같다, 다르다, 푸르다, 겹다, 많다, 좋다, 넓다

이 17개 접미사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만든 한자 어기들은 중국어에서 형용사로 사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는 중국어에서 형용사로 사용할 수 있는 어기 위주로 분석하였다. 그리고 악착(齷齪)과 처량(淒涼)은 ‘-스럽다’와 결합할 수 있지만 ‘같다’와 ‘맞다’의 자립성이 있는 것이어서 임시로 第3 계열로 분석하였다.

33) ‘균형되다’ 사전에 수록되지 않았지만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는 사용 빈도가 ‘7’로 수록되어 있다.

- ㄱ. 푸르다: 연(軟)
- ㄴ. 맞다: 처량(淒涼)
- ㄷ. 찰다: 우연(偶然)

第3 계열에서는 ‘되다’, ‘없다’와 결합할 수 있는 한자어 어근이 다른 접미사보다 약간 많은 편이다. 하지만 第3 계열에 ‘되다’, ‘없다’와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의 양이 너무 적어 각 접미사의 특징만 간단하게 살펴보겠다. 따라서 각 접미사의 의미적인 내용만 설명하고 접미사 사이에 차이점을 비교하지 않겠다. 또한 각 접미사로 이론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가 많이 많지 않아서 중국에서 형용사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추가했다.

第3 계열의 ‘연(軟), 겸연(慚然), 처량(淒涼)’을 제외하면 다른 어근 들은 다 자립성이 있는 것이다. ‘되다’, ‘없다’ 등은 본 연구에 ‘접미사’로 정하였지만 각각이 자립성이 있는 것이다. ‘없다’는 상황에 따라 동사나 형용사로 사용되지만 ‘되다’는 동사 전용되어³⁴⁾ 동사 전용 것이다. 그러나 형용사를 이루는 사실에 의거하면 ‘없다’와 ‘되다’는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되다’는 본래 의미상으로도 동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활용형에서도 동사의 전형적인 활용형을 보이며 몇몇 어근들과 결합하여 새로운 품사인 형용사가 되기로 한다.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에서는 ‘되다’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14) ㄱ. 조카는 커서 의사가 되고 싶다.
 ㄴ. 초등학교 친구가 시장되다.

34) 국립국어원 사전에서는 동사 ‘되다’ 이고 형용사 ‘되다’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되다’는 사전의 ‘되다’와 같은 것이다.

ㄷ. 날씨가 더워서 얼음은 빨리 물로 되다.

ㄹ. 우리 조카는 네 살이 되었다.

ㅁ. 한 10미터 되는 나무들만 베어라

위의 세 문장에서는 ‘되다’가 모두 동사로 사용하고 있다. (14ㄱ,ㄴ)에서 ‘되다’는 ‘가지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 (14ㄱ)은 ‘새로운 신분’, (14ㄴ)은 ‘새로운 지위’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14ㄷ)은 ‘다른 것으로 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14ㄹ)은 ‘어떤 시기에 이르다’, (14ㅁ)은 ‘어떤 상태에 이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되다’는 한자어 명사 뒤에 붙어 형용사로 형성한다. 한자어 형용사를 만들고 구분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5) ㄱ. 신입사원의 말하는 태도가 세련(洗練)되다

ㄴ. 이 여학생은 옷차림이 세련(洗練)되다.

ㄷ. 그 사람은 말씨가 무식하고 속(俗)되다.

ㄹ. 외람(猥濫)된 질문이지만, 결혼했습니까?

위의 예문 ㄱ과 ㄴ은 ‘세련(洗練)되다’로 이룬 문장이고 ㄷ은 ‘속(俗)되다’, ㄹ은 ‘외람(猥濫)되다’로 만든 문장이다. ㄱ에서는 ‘서투르거나 어색하지 않고 능숙하다’, ㄴ에서는 ‘모습이 말쑥하고 품위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ㄷ에서는 ‘고상하지 못하고 천하다’, ㄹ에서는 ‘하는 짓이 분수에 지나치다’라는 뜻이다. ‘되다’가 ‘세련(洗練)되다’, 속(俗)되다’, ‘외람(猥濫)되다’ 이 세 단어에서는 ‘이르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즉 어근이 가진 상태에 ‘이르다’는 의미로 사용한다. ‘되다’는 동사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한자어 어근과 결합하여 형용사를 이룬 후에는 ‘이르다’는 과정보다

동작 완성 이후의 결과를 더 많이 강조해 어근 뒤에 붙어 그 어근의 뜻을 표현한 상태를 가지거나, 그런 상태로 변하거나 혹은 그런 상태에 이른다. 동작을 통해 앞의 어근 의미만큼 효과를 달성한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된 ‘-되다’ 파생 한자어 형용사는 ‘균형(均衡)되다, 망령(亡靈)되다, 복(福)되다, 샷(邪)되다, 외람(猥濫)되다, 욕(辱)되다, 진실(眞實)되다, 편협(偏狹)되다, 허황(虛荒)되다’ 9개뿐이다.

‘없다’는 상태성을 지니는 한자 어근과 결합하여 그 상태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된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없다’의 선접 어근들은 자립성이 있고, 홀로 명사로 쓸 수 있다. 더욱이 사전에서는 ‘없다’를 직접 자립성이 있는 형용사와 동사로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없다’와 결합하는 한자어 형용사는 ‘한자어+고유어’ 혹은 ‘한국어 명사 + 한국어 형용사’로 만든 복합구조 어휘이다. 예를 들어 ‘맥(脈), 두서(頭緒), 문제(問題), 변(變)함, 분별(分別), 소용(所用), 염치(廉恥), 사정(事情), 유례(類例), 정신(精神), 형편(形便), 관계(關係), 상관(相關)’과 같은 어근들이 ‘없다’와 결합하면 형용사가 되며, 격조사와 결합하여 구로도 사용이 된다. 형용사와 구로 표시한 예들은 아래와 같다.

‘없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한자어 형용사는 ‘한자어+고유어’ 혹은 ‘한국어 명사 + 한국어 형용사’로 만든 복합구조 어휘이다. 예를 들어 ‘맥(脈), 두서(頭緒), 문제(問題), 변(變)함, 분별(分別), 소용(所用), 염치(廉恥), 사정(事情), 유례(類例), 정신(精神), 형편(形便), 관계(關係), 상관(相關)’과 같은 어근들이 ‘없다’와 결합하면 형용사가 되기도 하고 구로도 사용된다. ‘-되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형용사와 구로도 사용되는 경우를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ㄱ. **형용사**: 맥없다, 두서없다, 문제없다, 분별없다, 소용없다, 염치없다,

사정없다, 유례없다, 정신없다, 형편없다, 분별없다,……

ㄴ. 구: 맥이 없다. 두서가 없다. 문제가 없다. 분별이 없다. 소용이 없다.
염치가 없다. 사정이 없다. 유례가 없다. 정신이 없다. 형편이 없다.……

위의 ㄱ, ㄴ 예문들은 서로 의미가 같지만 격조사 ‘이/가’의 유무에 따라 형용사와 구로 구분된다. 또한 ‘영락(零落)’과 같이 자립성이 있는 명사이지만 ‘*영락이 없다’라는 말을 쓰지 못한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은 언어의 발전 변천에 따라 구가 어휘화³⁵⁾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수(數)없다, 실(實)없다, 지각(知覺)없다, 한(限)없다’ 등 모두 이러한 구의 어휘화 현상이다.

‘같다’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여기와 ‘서로 다르지 않고’, 혹은 어근의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로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생산성은 낮고 화자의 어근에 대한 느낌이나 평가는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를 모두 표현할 수 있다.

한자어와 결합하는 형용사에는 ‘철석(鐵石)같다, 철통(鐵桶)같다, 추상(秋霜)같다, 악착(齜齮)같다’ 등 순수 한자어 형용사와 ‘금(金)쪽같다, 바둑판(-

35) 어휘화에 대한 개념은 학계에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김성규(1987:17)에서는 어휘화란 단어 형성과 관련된 문제로 한 단어를 분석하여 그 형태소들을 다시 결합시킬 때 그 단어의 음운론적, 형태론적, 의미론적 특성을 규칙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成煥甲·金相潤(2004:5)에서는 語彙化는 공시적인 어휘 형성 규칙으로 설명하기 불가능한 單語를 대상으로 한다. 즉, 語源的·分析的인 관점에 의한 형태소 연구의 단점을 극복하고, 共時的·綜合的인 관점에 의한 형태소 결합의 과정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이 두 과정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語彙化란 공시적인 어휘 형성 규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는 단어의 음운, 형태, 의미론적 불규칙 정보를 세분화하여 어휘 형성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개념인 것이다. 사전에서는 “둘 이상의 단어가 결합하여 하나의 어휘처럼 되는 일 ‘장을 보다’, ‘눈을 팔다’, ‘가물에 콩 나듯’ 따위이다”라고 정했다..

板)같다, 귀신(鬼神)같다, 성화(星火)같다, 주옥(珠玉)같다’ 등 혼용 한자어 형용사 등이 있다.

‘지다’는 명사 뒤에 붙어 ‘그런 성질이 있음’ 또는 ‘그런 모양임’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주로 외형을 묘사할 때 쓰인다. 성질을 나타낼 때는 어근의 성질이 강함을 나타내고 모양을 나타낼 때는 구체적인 모양을 나타낸다. 결합하는 한자어 형용사는 ‘절벽(絶壁)지다, 후미(後尾)지다, 쌍(雙)꺼풀지다, 습(濕)지다’ 4개가 있다.

‘띠다’는 ‘되다’와 같이 본래 의미상으로도 동사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몇몇 명사들과 결합하여 ‘그런 성질이나 상태를 품다’의 뜻을 더하여 새로운 품사인 형용사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띠다’와 결합하는 한자어 형용사로 ‘열(熱)띠다’ 하나만 조사되었다.

‘다르다’는 명사나 어근 뒤에 붙어 어근과 ‘같지 아니함’ 또는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주로 모양을 묘사하거나 성질을 판정할 때 많이 쓰인다. 『현대 국어 사용빈도 조사2』에 수록된 한자어 형용사는 ‘색(色)다르다, 별(別)다르다’ 2개뿐이다.

‘푸르다’는 ‘밝고 선명함’을 더하고 주로 외형을 묘사하는 어근 뒤에 붙어 사용한다. 한자 ‘軟’뒤에 부가되어 원래의 색깔이 ‘약해지고 가벼워지다’는 의미를 갖추게 된다.

‘-맞다’는 ‘그것을 지니고 있음’의 뜻을 더하고 형용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어근에 대해서 설명하는 기능이 있다. 예로는 ‘극성(極盛)맞다’가 있다.

‘참다’는 ‘참이다’와 같이 쓴다. ‘-치 아니하다’의 준말로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보조동사인 데 한자어나 고유어 뒤에 붙어 형용사를 만든다. 사전에서는 ‘가당(可當), 괴이(怪異)’와 결합하여 이루어진 형용사가 조사되었다.

이상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자립성이 있는 한자어 형용사의 접미사들이다. 조어력에서 보면 ‘-하다’ 등 접미사 보다 많이 낮고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자립성 있는 접미사들은 ‘-하다’, ‘-스럽다’, ‘-롭다’ 등 순수한 접미사보다 의미가 뚜렷해서 단어 전체의 의미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특히 한자 어근이 자립성이 있을 때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한자 어근’ + ‘[+ 자립] 접미사’로 구성된 형용사의 의미는 ‘어근의 뜻’에 ‘접미사의 뜻’을 더한다. ‘한자 어근’ + ‘[- 자립] 접미사’로 파생하는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는 보통 어근의 의미를 파악하면 전체 단어의 뜻을 추측할 수 있는 반면에 접미사가 [+ 자립]이라면 어근의 뜻뿐만 아니라 접미사의 뜻이 더해져야 전체 단어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3.3 한자어 어근과 접미사 파생 2

같은 한자어 어근이 두 개 혹은 두 개 이상의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가 있다. [- 자립] 접미사 사이에 서로 교체하는 현상이 흔히 보이고 [- 자립] 접미사와 [+ 자립] 접미사가 서로 교체하는 경우도 있다. [- 자립] 접미사와 [+자립] 접미사 교체하는 경우가 이 연구에서는 ‘-하다’와 ‘-되다’, ‘-하다’와 ‘-맞다’, ‘-스럽다’와 ‘-같다’ 등이 있는데 <표 2>에 제시하는 대로 [+ 자립] 접미사가 생산량이 낮아 교체되는 두 접미사를 비교할 필요가 없다. 생산량이 높은 접미사는 ‘-하다’와 ‘-스럽다’, ‘-하다’와 ‘-롭다’, ‘-스럽다’와 ‘-롭다’ 3가지가 교체 가능하다.

그중 ‘-스럽다’와 ‘-롭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第二 계열에서 이미 설명하였고 여기서는 ‘-하다’와 ‘-스럽다’ 그리고 ‘-하다’와 ‘-롭다’ 두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하다/-스럽다:

[+ 명사] [+ 자립]

가증(可憎) 생경(生硬), 비참(悲慘)³⁶, 요행(僥倖), 위엄(威嚴), 자연(自然),
구차(苟且), 불미(不美), 혼돈(混沌)³⁷,

[-명사] [-자립]

간사(奸邪), 복잡(複雜), 생경(生硬), 신기(神奇), 심상(尋常)

‘-하다’는 ‘어근의 속성을 하거나 어근의 속성이 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며, ‘-스럽다’는 어근의 ‘어근의 속성이 있다’는 것보다 ‘어근의 속성과 비슷하다, 어근의 속성에 접근하다’는 특징적인 의미가 더 강하다. 예문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6) ㄱ. 과속은 매우 위험(危險)하다.

ㄴ. 고층 빌딩에 매달려 유리를 닦는 일은 매우 위험(危險)스럽다.

(16ㄱ)와 (16ㄴ)는 내용적으로 보면 모두 ‘위험성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16ㄴ)의 ‘고층 빌딩에 매달려 유리를 닦는 일’은 안정 설치를 해놓은 안정성에 대한 보장이 있어 사람들에게 (16ㄱ)의 ‘과속’보다 ‘안정적이고 덜 위험하다’는 느낌을 준다. (16ㄱ)와 (16ㄴ)의 두 형용사를 서로 바꿔 다시 문장을 살펴보았다.

36) ‘비참(悲慘)스럽다’는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되어 있고, 사용 빈도가 ‘1’로 나타났다.

37) ‘混沌스럽다’는 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서 사용 빈도가 ‘3’으로 나타났다.

(17) ㄱ. *과속은 매우 위험(危險)스럽다.

ㄴ. 고층 빌딩에 매달려 유리를 닦는 일은 매우 위험(危險)하다.

위 (17ㄴ)에서는 ‘고층 빌딩에 매달려 유리를 닦는 일’은 일반 사람에게 ‘떨어지면 다치거나 심지어 죽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용사 ‘위험(危險)하다’가 아무 문제없이 문장의 내용과 잘 어울리지만 ‘과속’은 법에서 정하는 것과 같이 금지하는 만큼 위험성이 있다. ‘위험스럽다’가 ‘위험’ 있는 것 아니고 위험과 근접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속’에 대한 판단이 바르지 않다. 따라서 (17ㄱ)의 ‘위험하다’는 ‘위험스럽다’를 택할 수 없게 되어 비문이 된다.

이와 같은 것은 ‘多情한 연인’, ‘多情스러운 친구’도 마찬가지이다. ‘다정(多情)’은 ‘위험’과 같이 사람마다 판정하는 기준에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친구’에 비해 ‘연인’ 사이에 ‘다정’의 정도가 더 강하며 ‘정이 많다’, ‘정분이 두텁다’는 면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다’ 보다 ‘-스럽다’가 ‘어근의 속성’이 약하고 즉 ‘-스럽다’ 자체가 ‘어근의 속성’에 ‘접근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즉, 접미사의 의미 측면에서 보면 ‘-하다’는 ‘어근이 있는 성질이나 상태가 있다’라는 의미이며, ‘-스럽다’는 ‘어근이 있는 성질이나 상태’ 되지 못하고 ‘그러한 성질이나 상태와 비슷함’이라는 의미가 있다. 『조사2』에 제공했던 ‘-하다’, ‘-스럽다’ 결합 파생하는 한자어 형용사의 사용 빈도 즉 ‘-스럽다’와 결합할 때 ‘접근성’ 의미가 드러나는 어근들이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한자어 형용사의 사용 빈도1

접미사	[+ 자립] 어기							
	다 정	불 량	불 안	불 행	소 란	순 진	용 맹	위 험
	多情	不良	不安	不幸	騷亂	純眞	勇猛	危險
-하다	64	11	286	171	8	50	6	173
-스럽다	6	2	6	2	1	1	2	11

인 자	저 급	적 막	천 박	천 진	투 명	행 복	만 족	불 행	무 심
仁慈	低級	寂寞	淺薄	天真	透明	幸福	滿足	不幸	無心
14	13	19	23	13	145	320	132	171	41
1	1	2	3	5	2	1	31	1	1

		[- 자립] 어기					
불 편	이 상	간 사	복 잡	생 경	신 기	심 상	
不便	異常	奸邪	複雜	生硬	神奇	尋常	
209	607	2	399	8	80	41	
6	17	1	1	1	1	1	

<표 5>에 제시한 용례는 같은 어근을 ‘X’로 표시하면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만든 형용사 ‘X하다’의 사용빈도가 ‘X스럽다’보다 높은 것을 보여 준다. 이것은 접미사와 결합할 때 제한 없는 어근이 의미가 흐려져 접미사의 의미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심재기(1982)에서는 ‘이혼한 부부가 다정하게/스럽게 이야기 한다.’와 ‘그들은 행복하다/스럽다’ 중 ‘다정하지도 않은데 다정한 체하거나, 행복하지도 않은데 행복한 체하는 가식적인 행위의 경우가 내포된다.’³⁸⁾ 즉 ‘X하다’보다 ‘X스럽다’는 충족하지 못하는 ‘접근성’이 있다. <표 3>에 나열한 어근과 같이 이러한 ‘접근성’을 가지고 있는 한자어 형용사들이 하나같이 사용빈도가 낮은 것도 ‘접근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같은 어근 ‘X’로 이룬 한자어 형

38) 민현식(1984:112)재인용.

용사가 ‘X하다’의 사용빈도가 ‘-스럽다’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되어 사용빈도에서 ‘X스럽다’ > ‘X하다’의 경우를 정리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 6>한자어 형용사의 사용 빈도2

접미사	[+ 자립] 어 기								
	고급	구차	不美	奢侈	天然	태평	혼란	비밀	혼돈
-하다	2	7	2	2	1	5	3	3	2
-스럽다	21	23	9	19	5	7	36	10	3

<표 6>에 같은 어근 ‘X’가 ‘-하다’, ‘-스럽다’에 의해 파생되어 형용사가 ‘X스럽다’의 사용빈도가 높은 것은 ‘-스럽다’가 ‘접근성’의 의미를 드러내지 않으며 선접 어근의 의미에 나타난 성질이나 상태를 최대한 정도로 갖추어 ‘-하다’와 비슷한 기능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민현식(1984:114)에서 지적되었던 것처럼, 다른 접사에 의한 파생어가 나타나지 않고 ‘-스럽다’와 결합하여 한자어 형용사를 파생할 때에도 ‘-스럽다’에서 ‘접근성’의 의미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³⁹⁾. 이러한 경우에 접미사 ‘-스럽다’는 ‘-하다’와 같이 ‘어근이 지시하는 성질이나 상태가 있다’라는 의미를 더하여 ‘X스럽다’라는 한자어 형용사를 형성한다. 그에 반하여 <표 6>에 ‘X스럽다’의 사용빈도가 낮은 것은 ‘-스럽다’의 고유적인 의미, 즉 접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하다 / -롭다:

39) 앞의 논문과 같다.

앞에서 이미 분석했듯이 ‘-스럽다’, ‘-롭다’ 두 접미사가 의미 측면에 많은 비슷한 점이 있는 반면에 감정과 본질적 차이점도 있다. 심재기(1982) 등에서는 ‘-하다’보다 ‘-스럽다’가 ‘미흡성’을 가지고 있다는 특징을 이미 밝혔고 본 연구에서도 ‘미흡성’을 ‘접근성’으로 정하고 다시 증명했다. 그리고 주관과 객관 측면에서 구분하면 ‘-스럽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강하게 느끼고 ‘-하다’는 ‘-스럽다’보다 객관적이다. 따라서 ‘-하다’와 ‘-롭다’는 모두 객관적인 본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추측할 수 있다. 실제로 두 접미사의 관계가 어떤지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되어 접미사 ‘-하다’와 ‘-롭다’로 구성된 한자어 형용사 중 어근이 같은 것은 ‘공허(空虛), 나태(懶怠), 신기(新奇), 신이(神異), 위태(危殆)’뿐이다. 그 중 ‘공허(空虛)롭다, 나태(懶怠)롭다, 신이(神異)롭다’는 각 사전에 수록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는 어근 ‘신기(新奇), 위태(危殆)’로 이룬 형용사의 구문을 나열하고 분석한다.

(18) ㄱ. 병이 위독하여 목숨이 위태(危殆)하다.

ㄴ. 병이 위독하여 목숨이 위태(危殆)롭다.

(19) ㄱ. 응급 환자의 상태가 위태(危殆)하다.

ㄴ. 응급 환자의 상태가 위태(危殆)롭다.

(20) ㄱ. 당장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危殆)하게 된다.

ㄴ. 당장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나라의 존립이 위태(危殆)롭게 된다.

위의 6개 예문들은 어근 ‘위태(危殆)’로 구성된 형용사를 사용하여 만든 문장이다. 묘사하는 대상들이 ‘병이 위독하다’, ‘응급 환자’, ‘당장’라는 한제

용어에 따라 ‘위험성이 크다’는 뜻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위태(危殆)롭다’는 감정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묘사하는 대상과 거스른 만큼 강하지 않고 ‘위태(危殆)하다’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만약에 ‘-롭다’를 ‘-스럽다’로 대신 사용하면 ‘*위태(危殆)스럽다’가 감정적인 의미가 강해 문장 앞의 피수식어와 완전히 거역하게 된다. 따라서 ‘위태(危殆)하다’와 ‘위태(危殆)롭다’는 객관적인 특징을 강하고 본질성을 갖춘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신기(新奇)’의 상황은 다음과 같다.

- (21) ㄱ. 아이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신기(新奇)하다.
 ㄴ. 아이의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신기(新奇)롭다.
 (22) ㄱ. 서울에 처음 올라온 그는 모든 것이 신기(新奇)하다.
 ㄴ. 서울에 처음 올라온 그는 모든 것이 신기(新奇)롭다.
 (23) ㄱ. 이 로봇도 결국은 하나의 기계일 뿐이고 그렇게 신기(新奇)한 것이 아니다.
 ㄴ. 이 로봇도 결국은 하나의 기계일 뿐이고 그렇게 신기(新奇)로운 것이 아니다.

(21-23)의 6개 예문은 한자어 형용사 ‘신기(新奇)하다’와 ‘신기(新奇)롭다’로 만든 문장이다. 앞의 ‘위태(危殆)’와 같이 ‘신기(新奇)’로 이루어진 두 개의 형용사는 약간의 감정적인 차이를 제외하면 의미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설 접미사 ‘-스럽다’로 대신 사용하면 ‘*신기(新奇)스럽다’라는 형용사가 되어 주관적인 감정을 강하게 보인다. 따라서 (21)는 우선 주체 ‘아이’의 나이가 얼마인지 불분명한 상태이기에 이 ‘아이’가 ‘*신기(新奇)스럽다’라는 감정의 여부에 의심이 생긴다. 그리고 화자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주

체 ‘아이’의 감정을 알 수 없다. (22)도 마찬가지로 주체 ‘그’의 심리적인 활동을 경험할 수 없다. 동시에 ‘서울에 처음 올라온’ 이 전제에 따라 ‘신기함’을 느낀 건 사리에 맞고 본질적인 것이어서 ‘-스럽다’와 서로 공기하지 못한다. (23)도 ‘로봇’의 성질에 대한 판단이라서 ‘-스럽다’와 공기하지 못한다.

(24) ㄱ. 신비(神秘)한 우주세계

ㄴ. 신비(神秘)로운 우주세계

ㄷ. 신비(神秘)스러운 우주세계

(25) ㄱ. 신비(神秘)한 이야기

ㄴ. 신비(神秘)로운 이야기

ㄷ. 신비(神秘)스러운 이야기

(24)의 예문 중 묘사하는 대상이 ‘우주세계’로 이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지 않기에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신비’한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주세계’가 ‘신비’라는 본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24ㄱ)은 바로 이 특징을 대해 기술하는 것이고 (24ㄴ)에서도 화자의 감정을 더하여 이 본질성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그에 반하여 (24ㄷ)은 ‘우주세계’ 자체가 갖추던 본질적인 특정보다 화자가 개인적인 감정이 더 정확하다. 특히 (25)의 묘사 대상 ‘이야기’에서 이러한 어감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다. ‘이야기’는 세상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인간 행위의 한 가지인 아주 평범한 것이다. 물론 ‘이야기’의 내용을 볼 때 ‘신비감’을 느낄 수도 있지만 ‘이야기’ 자체가 ‘우주세계’만큼 ‘신비’와 같은 본질성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따라서 (25ㄱ, ㄴ)은 ‘이야기’의 내용을 보고 ‘신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지만 (25ㄷ)은 심재기(1982)에서 주적했던 ‘가식

적 행위'와 같이 '이야기'의 내용이 '신비' 여부에 상관없이 화자의 주관적인 감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접미사 '-하다', '-스럽다', '-롭다' 이 세가지 접미사 사이에서 주관적인 감정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접미사는 '-스럽다'이고, 그 다음으로 '-롭다', 가장 적은 것이 '-하다'이다. 그에 반하여 객관적인 본질 조건에서 보면 '-하다'는 제일 강하고 '-스럽다'는 가장 약하고 '-롭다'는 중간 정도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자립] 및 [+ 자립] 사이에 교체되는 어휘는 양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석하지 않고 표로 정리하여 조어력 측면에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 되어 어근 'X'가 제한 없이 여러 개의 접미사와 결합하는 상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7>한자어 형용사 빈도3

어기		+ 자립					- 자립		
		극성	신비	호화	악착	편협	위태	우연	처량
접미사		極盛	神秘	豪華	齷齪	偏狹	危殆	偶然	淒涼
- 자립	-하다	2	50	1		14	5	40	16
	-스럽다	3	24	9	2				
	-로다		36	12			46		
+ 자립	맞다	1							
	같다				2				
	되다					2			
	참다							4	1

<표 7>을 보면 한 어근이 [+ 자립] 접미사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한자어

형용사는 [- 자립] 접미사 ‘-하다’, ‘-스럽다’, ‘-롭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한자어 형용사보다 사용 빈도가 보편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 자립] 접미사의 조어력도 높지 않다. <표 7>에 제시했던 8개의 어근에서 7개가 ‘-하다’와 결합할 수 있고 ‘-스럽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이룰 수 있는 어근이 4개가 있고, ‘-롭다’와 결합 가능한 것은 3개가 있다. 그리고 [+ 자립] 접미사로 구성된 형용사는 각자 하나씩 있다. ‘처량(淒涼)찮다’라는 단어 사전에 없다. 즉 [+ 자립] 접미사는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 된 한자어 형용사에 조어력이 없는 것이다. ‘-하다’, ‘-스럽다’, ‘-롭다’의 어휘 생산량을 살펴보면 ‘-하다’ > ‘-스럽다’ > ‘-롭다’ 순이다.

지금까지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 된 한자어 형용사의 접미사를 분석하였다. 이상의 분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한자어 형용사는 어근과 접미사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어근과 접미사는 문장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 자립]과 [- 자립]으로 구분된다. 자립성이 있는 접미사는 조어력이 낮은 편이다. 자립성이 없는 접미사 중 ‘-하다’의 조어력은 다른 접미사보다 현저하게 높고 ‘-스럽다’, ‘-롭다’ 순으로 조어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자립]의 접미사는 조어력이 없는 편이다.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되어 있지만 국립국어원의 표준대사전에서 찾지 못하는 임시어들은 거의 ‘-스럽다’, ‘-롭다’와 결합하여 파생하는 한자어 형용사뿐이다. [+ 자립]의 어근들은 접미사와 결합할 때 [- 자립]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다. 그리고 ‘-하다’를 형용사의 접미사로 보았지만 [+ 자립]의 ‘되다’와 같이 원래 동사성이 있기 때문에 결합하는 몇몇 형용사를 동사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앞서 말한 ‘만족(滿足)하다’ 및 ‘세련(洗練)되다’ 등이 있다.

둘째, 접미사의 의미적 측면에서 보면 ‘-하다’는 ‘어근이 있는 성질이나

상태가 있다'라는 의미이며, '-스럽다'와 '-롭다'는 '어근이 있는 성질이나 상태'가 되지 못하고 '그런 성질이나 상태와 비슷함'이라는 접근성이 있다. '-하다'는 상대적인 객관성이 있는 반면에 '-스럽다'와 '-롭다'는 주관적인 의식이 강하다. '-롭다'는 '-스럽다'보다 본질적인 의미가 약간 강하다. 3개 접미사의 관계는 객관적인 본질성에 보면 '-하다' > '-롭다' ≥ '-스럽다'로 표시할 수 있고 주관적인 감정에 보면 완전히 반대이다. 그러나 어근이 일치할 때는 절대 부분의 언중에게 '평화(平和)스럽다'와 '평화(平和)롭다'처럼 구분 없이 사용한다. 그리고 어근이 '-스럽다'로만 결합할 때는 '-스럽다'의 접근성이 흐려져서 '-하다'와 같은 의미로 사용한다. '-쩍다'는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데가 있음'라는 의미를 더하여 형용사를 이룬다.

셋째, [+ 자립] 접미사의 경우는 의미 측면에서 독립적으로 사용할 때와 거의 같고 변하는 것은 기능뿐이다. '-되다', '-없다'는 '그런 것으로 변함', '그런 것이 없음'라는 의미를 더하여 형용사가 된다. '-같다'는 '서로 다르지 않거나 부류에 속한다'는 뜻을 나타내며 '-지다'는 '그런 성질/모양이 있음'을, '-떠다'는 '그런 성질이나 상태를 품다'를, '-다르다'는 있는 대로 '같지 아니함' 또는 '보통의 것보다 두드러진 데가 있음'이라는 의미이다. '-푸르다', '-맛다'는 '밝고 선명함', '그것을 지니고 있음'라는 의미이고, '-참다'는 '참이다'와 같이 쓰인다. [+ 자립] 접미사는 '-없다', '-되다'를 제외하면 다른 것은 생산성이 거의 없다. 그러나 [+ 자립]접미사의 어근도 일반적으로 [+ 자립]이다. 특히 '-없다'로 구성한 한자어 형용사는 띄어쓰기도 한다.

넷째,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의 제한에 따라 선접 어근을 선택할 때는 각종 접미사도 제한을 받는다. 선접 한자어 어근은 실체성(substantial) 명사인 경우는 조사되지 않았고 보편적으로는 추상성(abstractness) 명사를 선택하였다. '-하다'의 어근 주로 부사 혹은 명사 및 자립성 없는 형용사어근이다. '-스럽다'혹은 '-롭다'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은 명사 밖에 없다. 그

리고 ‘-롭다’는 주로 긍정적인 어근과 결합하고 ‘-하다’, ‘-스럽다’는 긍정적인 어근과 부정적인 어근이 결합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스럽다’는 선행어 末音의 음운론적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롭다’는 선행어 末音이 모음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음을 알았다.



IV. 한·중 한자 형용사 어근의 특징과 유형

앞에서 第一, 第二, 第三 계열의 한자어 형용사의 형태적인 특징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어휘 파생에서 선행 어근과 접미사와의 선택에 제한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지 ‘한자어 어근+접미사多’의 현상은 각종 접미사의 특징을 통해 파악하지 못했으나, 한자어 어근과 어떤 접미사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같은 第二, 第三 계열의 어근이지만 ‘비참(悲慘)+하다’는 형용사가 되고 ‘조화(調和)+하다’는 동사가 되고, ‘요행(僥倖)+하다’는 형용사와 동사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일부의 한자어 어근 하나가 몇 개의 접미사와 결합할 수 있으며 어떤 한자어 어근은 한 가지의 접미사와만 결합하는 현상은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습득하기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이 장은 그 이유를 한자어 어근과 접미사의 결합 유형을 한국어에서 의미 측면과 중국어에서 품사 종류 측면에 살펴보기로 한다.

4.1 한자어 형용사 어근의 분류

형용사는 중국어에서도 한국어와 같이 크게 주어의 심리적이고 내적인 경험을 서술하는 주관형용사와 주어의 상태와 속성을 서술하는 객관형용사 두 가지로 나뉜다. 그러나 주관형용사가 객관형용사로 쓰이고 객관형용사가 주관형용사로 쓰이는 것은 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주관적 측면과 객관적 측면을 구분하지 못하는 애매한 경우가 있다⁴⁰⁾. 형용사는 개념

에 따라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나는 품사’이다. 그러나 그 ‘성질이나 상태’가 일반적으로 정적인 것으로 사람들은 이해해왔지만 과학적인 안목으로 보면 특히 지구가 끝이 없이 계속 자전(自轉)과 공전(公轉)하고 있는 것을 보면 지구에서 모든 것도 다 공간을 이동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이 세상에 정적인 것은 없고 다만 인간은 ‘정지’ 상태로 인식하는 것 뿐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지된 상태처럼 보이는 형용사도 변화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작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다.

이용주(1974:130-145)에서는 형용사의 ‘의미체계 형성 상의 기능’을 ‘정적인 성질·상태’, ‘운동의 성질’, ‘감각’, ‘관계’, ‘화자의 주관’, ‘결여 개념’으로 나누고 한자어 이 5가지 범위에 차지는 상황을 살펴봤다. 필자는 유현경(1998)의 형용사 분류를 참고하여 이 5가지 범위를 ‘동작성’, ‘심리성’, ‘성상성’⁴⁰⁾으로 정리하고 중국어 형용사와 동형인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들에서 ‘-하다’, ‘-스럽다’, ‘-롭다’의 어근을 이 3가지 기준에 따라 정리하고자 한다.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의미적 및 중국어 품사 종류 두 가지 각도

40) 유현경(1998:38-39)

41) 유현경(1998:55)에서는 형용사에 대한 분류가 다음과 같다.

- ㄱ. 일반형용사: 주관형용사- 심리형용사, 감각 형용사, 판단형용사
 객관형용사- 성상형용사, 장소교차형용사, 대칭형용사, 기준형용사, 소유형용사, 소재형용사, 가능형용사, 대응형용사, 태도형용사
- ㄴ. 보문형용사, 불구형용사

그중 ‘성상형용사’는 이용주(1974:130-145)에서 ‘정적인 성질·상태’와 범위가 같아서 여기서는 ‘성상성’을 택한다. 그리고 ‘운동의 성질’은 동작과 관련하기 때문에 ‘동작성’으로 정하고 3장에 第一계열에 ‘V’ 같은 표시가 있는 것, 부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모두 ‘동작성’에 귀속한다. ‘감각’에 나타난 용례에 따라 ‘냉냉(冷冷)’ 등은 ‘성상성’을 정하고 ‘소란(騷亂)’은 ‘동작성’으로 정한다. ‘관계’에서 ‘대인관계’의 ‘친절(親切)’은 동작과 관련되는 ‘대도, 행위’이고, ‘정도나 분량이나’관련되는 ‘공평(公平)’은 동작 ‘고르다’라는 뜻이 있고, ‘우수(優秀)’ 등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 하는 판단이기 때문에 다 ‘동작성’으로 정한다. ‘결여 개념’에 ‘선량(善良)’와 같은 경우도 ‘우수(優秀)’와 같은 이유로 ‘동작성’에 귀속한다. ‘화자의 주관’은 심리와 직접 관련하기 때문에 ‘심리성’으로 정한다.

에서 살펴보겠다.

<표 8> 한자어 형용사 어근의 분류

접미사	의미특징	비율	어근 용례
-하다	동작성	52.12%	당당(堂堂), 돌연(突然) 등
	성상성	44.67%	고단(孤單), 우연(偶然) 등
	심리성	3.21%	고독(孤獨), 허무(虛無) 등
-스럽다	동작성	39.29%	요행(僥倖), 충성(忠誠) 등
	성상성	32.14%	야만(野蠻), 자연(自然) 등
	심리성	28.57%	고민(苦悶), 곤혹(困惑) 등
-롭다	동작성	25%	조화(調和), 자애(慈愛) 등
	성상성	75%	가소(可笑), 여유(餘裕) 등
	심리성	0%	

<표 8>을 보면 ‘-하다’류 어근은 형용사를 이룬 동시에 동사를 만들 수도 있다. 어근들은 의미적으로 보면 ‘동작성, 경험성, 성상성’ 3가지가 있는 반면에 ‘-스럽다’는 ‘과장(誇張), 야만(野蠻), 정성(精誠), 고집(固執), 존경(尊敬), 자연(自然)’가 동작성이 있기 있지만 ‘스럽다’와 결합한 다음에 ‘X스럽다’의 의미기능에 영향에 따라 상태성으로 변한다. 그리고 ‘-스럽다’의 형용사에는 ‘경험성’이 있는 경우가 전체 13개 ‘스럽다’만 결합할 수 있는 단어의 54%로 차지하고 있다. ‘-롭다’만으로 결합하여 구성한 한자어 형용사 중 동작성과 경험성이 있는 것은 없고 성상성이 있는 것만 나타낸다.

(1) -하다

ㄱ. [+동작성]: 당당(堂堂), 돌연(突然), 분명(分明), 아연(啞然), 진정(眞正), 응당(應當), 쟁쟁(錚錚), 부득이(不得已), 가혹(苛酷), 건조(乾燥), 겸손(謙遜), 불편(不便), 성숙(成熟), 성실(誠實), 소란(騷亂), 신중(愼重), 안전(安全), 오만(傲慢), 위험(危險), 친절(親切), 편리(便利), 피로(疲勞), 피곤(疲困), 각별

(各別), 결백(潔白), 간고(艱苦), 간사(奸詐), 간악(奸惡), 간이(簡易), 걸출(傑出), 경솔(輕率), 고등(高等), 고명(高明), 공평(公平), 과대(過大), 과격(過激), 과다(過多), 과민(過敏), 과밀(過密), 과욕(寡慾), 광폭(狂暴), 교활(狡獪), 균일(均一), 근검(勤儉), 근면(勤勉), 급박(急迫), 긴박(緊迫), 긴급(緊急), 나약(懦弱), 냉담(冷淡), 냉정(冷靜), 단순(單純), 대담(大膽), 대길(大吉), 독특(獨特), 무능(無能), 무용(無用), 무정(無情), 몽매(蒙昧), 명랑(明朗), 무궁(無窮), 민감(敏感), 박학(博學), 미세(微細), 박약(薄弱), 방탕(放蕩), 부당(不當), 부실(不實), 분방(奔放), 불리(不利), 불손(不遜), 불법(不法), 불의(不義), 비열(卑劣), 불순(不純), 생동(生動), 사치(奢侈), 선량(善良), 성결(聖潔), 신성(神聖), 순박(淳朴), 순결(純潔), 악독(惡毒), 신속(迅速), 신중(慎重), 신묘(神妙), 애통(哀痛), 열등(劣等), 영험(靈驗), 온건(穩健), 온유(溫柔), 완강(頑強), 왕성(旺盛), 우등(優等), 우매(愚昧), 우수(優秀), 우월(優越), 원활(圓滑), 유명(有名), 저명(著名), 유리(有利), 유익(有益), 유용(有用), 유효(有效), 은근(慇懃), 음란(淫亂), 인색(吝嗇), 잔혹(殘酷), 잔인(殘忍), 정결(貞潔), 정직(正直), 질탕(跌宕), 착잡(錯雜), 철저(徹底), 청렴(清廉), 청순(淸純), 초조(焦躁), 총명(聰明), 충족(充足), 추악(醜惡), 친밀(親密), 침착(沈着), 치졸(稚拙), 태연(泰然), 태만(怠慢), 치열(熾烈), 특수(特殊), 특이(特異), 특정(特定), 피로(疲勞), 허망(虛妄), 화급(火急), 화목(和睦), 활달(豁達), 조숙(早熟), 활발(活潑), 황공(惶恐), 황망(慌忙), 흉악(凶惡), 사악(邪惡), 흉포(凶暴), 극단(極端), 무상(無常), 저조(低調), 청정(淸淨), 현명(賢明), 겸허(謙虛), 경박(輕薄), 돌출(突出), 무례(無禮), 번영(繁榮), 소원(疏遠), 소홀(疏忽), 엄격(嚴格), 유수(有數), 잔학(殘虐), 진정(鎮靜), 특별(特別), 교만(驕慢), 상당(相當), 가능(可能), 불가(不可), 전능(全能), 각박(刻薄), 강렬(強烈), 간특(姦慝), 간곡(懇曲), 간략(簡略), 간절(懇切), 강경(強硬), 강인(強韌), 격렬(激烈), 견실(堅實), 강직(剛

直), 경쾌(輕快), 고고(孤高), 과중(過重), 관대(寬大), 관활(寬闊), 괴벽(乖僻), 급급(汲汲), 기특(奇特), 기민(機敏), 낭랑(朗朗), 녹록(碌碌), 늠름(凜凜), 단정(端正), 단정(端整), 도도(滔滔), 독실(篤實), 돈후(敦厚), 돌올(突兀), 등등(騰騰), 막역(莫逆), 명쾌(明快), 맹렬(猛烈), 면밀(綿密), 명석(明皙), 민첩(敏捷), 절박(切迫), 비겁(卑怯), 비루(鄙陋), 빈번(頻繁), 산만(散漫), 산란(散亂), 상쾌(爽快), 생소(生疏), 성급(性急), 세심(細心), 소박(素朴), 솔직(率直), 숭고(崇高), 신랄(辛辣), 신속(神速), 양양(揚揚), 열렬(熱烈), 영리(伶俐), 영명(英明), 예리(銳利), 예민(銳敏), 온순(溫順), 완만(緩慢), 완고(頑固), 용감(勇敢), 원만(圓滿), 유순(柔順), 유유(悠悠), 유치(幼稚), 음탕(淫蕩), 음험(陰險), 절절(切切), 정중(鄭重), 준수(俊秀), 진솔(眞率), 질박(質朴), 집요(執拗), 진부(陳腐), 진지(眞摯), 쾌활(快活), 평이(平易), 탁월(卓越), 특출(特出), 출중(出衆), 장렬(壯烈), 결연(決然), 분분(紛紛), 소심(小心), 친근(親近), 방정(方正), 의연(毅然), 자세(仔細), 유력(有力), 저속(低俗), 용이(容易), 고상(高尚), 고아(高雅), 건강(堅強), 강고(強固), 과감(果敢), 과분(過分), 냉혹(冷酷), 낭자(狼藉), 늠연(凜然), 위대(偉大), 무성(茂盛), 묵묵(默默), 상세(詳細), 석연(釋然), 유장(悠長), 음침(陰沈), 잔잔(潺潺), 장황(張皇), 정교(精巧), 졸렬(拙劣), 초연(超然), 호방(豪放), 화순(和順), 화창(和暢), 혼연(欣然), 흔쾌(欣快), 당돌(唐突), 맹랑(孟浪), 비장(悲壯), 교묘(巧妙), 비범(非凡), 유화(柔和), 공정(公正), 우아(優雅), 유연(悠然), 엄혹(嚴酷), 평등(平等), 문란(紊亂), 포만(飽滿), 독(毒), 묘(妙), 강(強), 경(輕), 곤(困), 과(過), 급(急), 둔(鈍), 박(薄), 약(弱), 엄(嚴), 장(壯), 천(賤), 추(醜), 친(親)

ㄴ. [+성상성]: 고단(孤單), 우연(偶然), 순수(純粹), 건강(健康), 청결(清潔), 충실(充實), 평온(平穩), 필요(必要), 한가(閑暇), 풍요(豐饒), 혼란(混

亂), 가관(可觀), 고귀(高貴), 광대(廣大), 균등(均等), 난만(爛漫), 남루(襤
 褸), 냉랭(冷冷), 온화(溫和), 다양(多樣), 단일(單一), 대등(對等), 동등(同
 等), 만전(萬全), 미소(微小), 부귀(富貴), 부강(富強), 부유(富裕), 부화(浮
 華), 비대(肥大), 비옥(肥沃), 빈약(貧弱), 빈곤(貧困), 빈궁(貧窮), 쇠약(衰
 弱), 숙연(肅然), 수려(秀麗), 순백(純白), 순일(純一), 신산(辛酸), 안락(安
 樂), 안온(安穩), 애매(曖昧), 안일(安逸), 양호(良好), 엄정(嚴正), 엄중(嚴
 重), 연로(年老), 연면(連綿), 온난(溫暖), 타당(妥當), 정연(井然), 담담(淡
 淡), 요염(妖艷), 위급(危急), 유일(唯一), 유한(有限), 장엄(莊嚴), 적요(寂
 寥), 정밀(精密), 정밀(靜謐), 정확(正確), 정확(精確), 존귀(尊貴), 주요(主
 要), 중대(重大), 중요(重要), 참담(慘澹), 참혹(慘酷), 취약(脆弱), 평정(平
 靜), 평안(平安), 풍성(豐盛), 평탄(平坦), 한산(閑散), 허약(虛弱), 현란(絢
 爛), 현묘(玄妙), 호사(豪奢), 혼탁(混濁), 황홀(恍惚), 희소(稀少), 곤란(困
 難), 화평(和平), 동일(同一), 부족(不足), 불명(不明), 유사(類似), 건전(健
 全), 당연(當然), 무한(無限), 완전(完全), 일정(一定), 간결(簡潔), 간단(簡
 單), 거대(巨大), 건장(健壯), 간편(簡便), 건실(健實), 견고(堅固), 강성(強
 盛), 경건(勁健), 경미(輕微), 고매(高邁), 곤고(困苦), 광막(廣漠), 광활(廣
 闊), 교교(皎皎), 근엄(謹嚴), 광범(廣範), 귀중(貴重), 기괴(怪奇), 기구(崎
 嶇), 기묘(奇妙), 기이(奇異), 긴요(緊要), 긴밀(緊密), 깎긴(喫緊), 농밀(濃
 密), 농후(濃厚), 누추(陋醜), 막대(莫大), 막막(漠漠), 막연(漠然), 망망(茫
 茫), 몽롱(朦朧), 미묘(美妙), 망연(茫然), 묘연(杳然), 미려(美麗), 미묘(微
 妙), 미미(微微), 미약(微弱), 미천(微賤), 밀밀(密密), 방대(龐大), 번다(繁
 多), 번화(繁華), 부요(富饒), 부유(富有), 비천(卑賤), 빈한(貧寒), 삼엄(森
 嚴), 삼상(颯爽), 섬약(纖弱), 성대(盛大), 세미(細微), 세밀(細密), 순후(淳
 厚), 순연(純然), 신선(新鮮), 심각(深刻), 심오(深奧), 심원(深遠), 심장(深
 長), 안녕(安寧), 암담(暗澹), 양양(洋洋), 엄밀(嚴密), 엄연(儼然), 역력(歷

歷), 연약(軟弱), 영롱(玲瓏), 온당(穩當), 왜소(矮小), 요긴(要緊), 요원(遙遠), 완연(宛然), 우미(優美), 웅대(雄大), 웅장(雄壯), 원대(遠大), 위중(危重), 유구(悠久), 유약(幼弱), 유연(柔軟), 평범(平凡), 유적(幽寂), 은은(殷殷), 은은(隱隱), 저열(低劣), 음습(陰濕), 작작(綽綽), 장려(壯麗), 장중(莊重), 저렴(低廉), 적당(適當), 적연(寂然), 적적(寂寂), 전아(典雅), 절묘(絕妙), 정정(亭亭), 정치(精緻), 조대(粗大) 조밀(稠密), 지당(至當), 진귀(珍貴), 진기(珍奇), 참연(燦然), 찬란(燦爛), 참신(斬新), 창창(蒼蒼), 처연(淒然), 첨예(尖銳), 청담(淸淡), 청량(淸亮), 청량(淸涼), 청신(淸新), 청아(淸雅), 청정(淸正), 청청(靑靑), 초췌(憔悴), 충분(充分), 치밀(緻密), 침침(沈沈), 투철(透徹), 편편(便便), 평평(平平), 풍만(豐滿), 풍족(豐足), 험난(險難), 협애(狹隘), 험악(險惡), 험준(險峻), 현저(顯著), 협소(狹小), 혼란(昏亂), 화려(華麗), 황량(荒涼), 황무(荒蕪), 휘황(輝煌), 흥흥(洶洶), 희미(熹微), 희박(稀薄), 구구(區區), 장구(長久), 가련(可憐), 공고(鞏固), 명백(明白), 등한(等閒), 명료(明瞭), 명확(明確), 모호(模糊), 무망(無望), 부유(富有), 비박(菲薄), 엄숙(嚴肅), 장대(壯大), 절실(切實), 정당(正當), 청초(淸楚), 풍부(豐富), 황당(荒唐), 희한(稀罕), 확실(確實), 부(富) 궁(窮), 귀(貴), 긴(緊), 냉(冷), 농(濃), 중(重), 험(險), 후(厚)

ㄷ. [+심리성]: 고독(孤獨), 허무(虛無), 고적(孤寂), 무료(無聊), 불쾌(不快), 비참(悲慘), 비통(悲痛), 억울(抑鬱), 유쾌(愉快) 침통(沈痛), 통쾌(痛快), 처절(淒切), 송연(悚然), 난감(難堪), 처참(淒慘), 초조(焦躁), 음울(陰鬱), 소슬(蕭瑟), 침울(沈鬱)

(2) -스럽다

ㄱ. [+동작성]: 요행(僥倖), 충성(忠誠), 고집(固執), 과장(誇張), 낭패(狼狽),

충족(充足)⁴²⁾, 사치(奢侈), 소란(騷亂), 혼란(混亂), 횡포(橫暴), 구차(苟且)

ㄴ. [+성상성]: 야만(野蠻), 자연(自然), 정성(精誠), 고급(高級), 불미(不美),
천연(天然), 태평(太平), 비밀(秘密), 혼돈(混沌)

ㄷ. [+심리성]: 고민(苦悶), 곤혹(困惑), 수치(羞恥), 실망(失望), 절망(絶望),
공포(恐怖), 존경(尊敬), 비참(悲慘)

(3) -롭다:

ㄱ. [+동작성]: 조화(調和), 자애(慈愛), 경이(驚異)

ㄴ. [+상태성]: 가소(可笑), 여유(餘裕), 화기(和氣), 정의(正義), 권태(倦怠),
영화(榮華), 자유(自由), 평화(平和), 단조(單調)

앞의 내용 중 어근 밑줄을 긋는 것은 접미사 ‘-하다’와 결합 가능한 뜻이고 기울임으로 쓰는 것은 접미사 ‘-스럽다’와 결합 가능한 뜻이다. 위의 내용을 보면 접미사 ‘-하다’, ‘-스럽다’, ‘-롭다’에서는 ‘-하다’가 동작성이 있는 어근과 결합하는 빈도는 52.12%이고 성상성 특징을 가지고 있는 어근은 44.67%이고 심리성이 있는 것은 3.21%로 차지하고 있다. ‘-스럽다’류가 동작성이 있는 어근은 39.29%, 성상성 있는 어근은 32.14%, 심리성이 있는 어근은 28.57%로 차지하고 있다. ‘-하다’와 교체한 현상을 빼면 심리적인 어근은 46.67%로 올라간다. 접미사 ‘-롭다’는 심리적인 어근이 없는 이유는 3장에 논의 했던 ‘-롭다’가 심리적인 자질성을 있기 때문에 초래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리하면 접미사 ‘-하다’로 구성된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이 ‘동작성’이 제일 많고, ‘-스럽다’는 자신의 감정적인 특징의 영향에 따라 심리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어근과 많이 결합하고, ‘-롭다’는 ‘상태성’이 강

42) 밑줄 있는 것은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뜻이다.

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론을 증명하기 위해 아래부터 한자어 형용사의 구문 상황을 살펴보자.

(26) 오만(傲慢)

- ㄱ. 애가 집안 좋아서 그런지 언행이 지나칠 정도로 오만(傲慢)하다.
- ㄴ. 이 벼락부자는 오만(傲慢)하고 늘 남을 무시한다.
- ㄷ. 다들 그의 오만(傲慢)함을 못 봐주겠다고 한다.
- ㄹ. 이 연예인의 행동은 오만(傲慢)하기 짝이 없다.
- ㅁ. 이 남자는 노크도 하지 않고 오만(傲慢)하게 들어왔다.
- ㅂ. 오만(傲慢)하게 굴다.

위의 예문들은 다 ‘오만(傲慢)하다’로 만든 문장인데 (26ㄱ, ㅂ)에서 부사어 동작 ‘들어오다’와 ‘굴다’를 묘사하는 것이다. (26ㄴ, ㄷ)에서는 형용사로 ‘언행’과 ‘벼락부자’를 기술하고 (26ㄷ, ㄹ)에서는 명사로 주어 ‘그’의 성격을 묘사하고 있다. 예문 중의 주어들이 ‘언행’과 ‘행동’이라는 말이 의미 해석에도 나타나고 앞서 말했듯이 모두 동작성이 있고 다른 ‘벼락부자’, ‘연예인’과 ‘남자’는 ‘명사’이지만 예문의 내용을 보면 모두 언행과 성품을 대한 기술이다. ‘성품’도 말이나 행위 혹은 일상생활의 표현을 정리하여 내린 판단이기에 동작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예문 중 ‘오만(傲慢)하다’는 형태 변화와 상관없이 모두 동사성이 있는 것이다.

(27) 기특(奇特)

- ㄴ. 효성이 기특(奇特)하다.
- ㄷ. 어린아이지만 하는 짓이 기특(奇特)하다.
- ㄹ. 어려운 가정에서도 공부를 잘한다니 참으로 기특(奇特)하구나.

- ㄱ. 중학생이 이런 작품을 써내다니 정말 기특(奇特)한 일이다.
- ㄴ. 아이들은 기특(奇特)하게도 집 청소를 말끔하게 해 놓았다.
- ㄷ. 하늘이 그녀의 효심을 기특(奇特)히 여기어 이를 도왔다

위의 예문 중 (27ㄴ, ㄷ)은 부사어 ‘기특(奇特)하게’와 ‘기특(奇特)히’이고 동사 ‘해 놓다’와 ‘여기다’를 수식하고 동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27ㄴ, ㄷ)에서 ‘하는 짓’은 동사성이 있고 ‘효성’이라는 것도 언행을 통해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사성이 있다고 정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부’와 ‘작품을 써내다’도 모두 행위이다. 즉 한자어 형용사 ‘기특(奇特)하다’는 동사성이 있는 단어이다.

(28) 공평(公平)

- ㄱ. 공평(公平)한 분배
- ㄴ. 일을 처리함이 공평(公平)하다.
- ㄷ. 어머니가 음식을 공평(公平)하게 나누다
- ㄹ. 종업원들을 공평(公平)하게 대해야 한다.
- ㄴ. 저의 죄는 지당히 벌을 받시오. 그러나 벌을 주시되 공평(公平)히 주십시오.
- ㄷ. 땅은 외삼촌이 돌아가시면 아이들에게 공평(公平)하게 분배 되도록 되어 있어.

위의 예문들은 많이 사용하는 예문들이다. 그 중 ‘공평(公平)하다’는 (28ㄱ)에서 관형사, (28ㄴ)에서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고 각자 ‘분배’와 ‘일을 처리’를 설명하는데 ‘분배’와 ‘일을 처리’ 모두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두 문장에서 ‘공평(公平)하다’는 동사성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

다는 판단을 내린다. 다른 4개 예문에서는 ‘공평(公平)하다’가 모두 부사어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어 동작성의 내용을 수식한다. 그래서 한자어 ‘공평(公平)’과 ‘-하다’ 이룬 형용사가 동사성이 있는 것으로 귀속한다.

(29) 과감(果敢)

- ㄱ. 과감(果敢)한 결단
- ㄴ. 개혁은 과감(果敢)해야 한다.
- ㄷ. 공장장은 과감(果敢)하고 세심한 사람이다.
- ㄹ. 회사의 책임자가 과감(果敢)하게 새로운 인물을 기용하다.
- ㅁ. 이 사업자는 판단이 빨랐고 한번 결심을 하면 과감(果敢)하게 밀고 가는 성격이었다.

‘과감(果敢)하다’라는 단어가 각 사전에서는 거의 다 ‘과단성이 있고 용감하다’라고 해석하고 있다. ‘용감하다’는 사람이 하는 행위에 대한 판정이고 그만 있는 사람에게 ‘용감하다’라는 말을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과감(果敢)하다’도 동사성이 있게 되었다. 그리고 위의 예문에서의 ‘결단’, ‘개혁’은 모두 행위적인 내용을 표현하는 어휘이다. (29ㄷ)에의 ‘공장장’은 명사이지만 문자의 내용은 사람의 처사방식과 태도 등 행위적인 표현에 말한 것이기 때문에 동사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 두 예문도 마찬가지로 신인의 ‘기용’과 ‘밀다’는 모두 동사성이 있는 것이다.

(30) 소홀(疏忽)

- ㄱ. 그의 말을 소홀(疏忽)하게 넘기다.
- ㄴ. 맡은 일에 소홀(疏忽)하면 안 된다.
- ㄷ. 손님에게 소홀(疏忽)하게 대접하다.

- ㄹ. 안전 문제는 조금이라도 소홀(疏忽)함이 있으면 안 된다.
- ㅁ. 어머니는 아이에게 너무 소홀(疏忽)했던 내 자신을 자책했다.
- ㅂ. ?나는 잠시 소홀(疏忽)해서 선생님의 전화번호 묻는 걸 잊어버렸다.

‘소홀(疏忽)하다’의 의미에는 ‘데면데면하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소홀(疏忽)하다’가 동사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시에 사전에서 검색해 보면 ‘소홀(疏忽)하다’가 주로 부사어 ‘소홀(疏忽)하게’ 식으로 문장을 만든다. 위의 예문들에서는 형용사 ‘소홀하다’, 명사 ‘소홀함’ 및 현재 과거 두 가지 시제로, 가설의 형태 ‘소홀하면’, 이유를 설명할 때 ‘소홀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내지만 각 문장의 내용을 보면 ‘말’, ‘일’, ‘대접’, ‘안전’은 다 동작과 직접 관련된 어휘이다. 또한 (30ㄱ, ㄴ)에서는 글자에 사용하지 않지만 내용적으로는 ‘아이에게’하는 행위이고 ‘전화번호 묻지’ 못하는 행위이다. 즉 ‘소홀(疏忽)하다’도 동사성이 있는 편이다.

(31) 유쾌(愉快)

- ㄱ. 새로 온 학생은 언제나 기분이 유쾌(愉快)해 보인다.
- ㄴ. 그 여자 대학생의 웃음이 참 유쾌(愉快)하고 명랑하다.
- ㄷ. 작년 중국 여행했을 때 유쾌(愉快)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다.
- ㄹ. 유쾌(愉快)하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 ㅁ. 교수님이 웃으시면서 유쾌(愉快)히 대답하셨다.

한자어 ‘유쾌(愉快)’는 ‘즐겁다’라는 뜻을 품고 심리적인 내용을 묘사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경험성’이 있다는 것으로 귀속한다. (31ㄱ)은 화자가 ‘새로 온 학생’의 행위이나 모습을 통해 느낀 것이고 예문 (31ㄴ)도 마찬가지로

지로 화자가 ‘여자 대학생’의 ‘웃음’에 ‘유쾌’하다와 ‘명량’하다는 느낌을 받은 것이기에 다른 사람이 대신 할 수 없는 것이다. (31ㄷ)은 관형어로 사용하고 있지만 화자 자신의 심리적인 활동으로 볼 수 있고 (31ㄹ, ㅁ)은 부사어로 사용하고 있기에 동사적인 내용을 수식하는 것은 당연하다. (31ㄹ)은 ‘공부’하는 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고 (31ㅁ)은 ‘교수님’의 모습과 목소리를 듣고 느낀 것이다. 정리하면 한자어 형용사 ‘유쾌(愉快)하다’는 경험성이 있는 어휘로 정한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지만 ‘유쾌(愉快)스럽다’라는 어휘도 있다.

(32) 고민(苦悶)

- ㄱ. 요새 고민(苦悶)이 많다.
- ㄴ. 사장이 회사의 진로를 두고 고민(苦悶)하다.
- ㄷ.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가 고민(苦悶)스럽다.
- ㄹ. 일이 어떻게 처리하면 잘 될는지 진짜 고민(苦悶)스러운 것이다.
- ㅁ. 일이 너무나 많아 뭘 하는지 몰라 그는 고민(苦悶)스럽게 계속 머리를 긁다.

(32ㄱ)에서 한자어 명사 ‘고민(苦悶)’은 ‘마음속으로 괴로워하고 애를 태움.’라는 뜻으로 심리적인 어휘로 정할 수가 있다. 접미사 ‘-하다’를 붙인 후 심리 활동의 내용을 표현하는 동사로 된다. 즉 예문 (32ㄴ)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남은 3개의 예문은 다 ‘-스럽다’와 결합하여 이룬 형용사 및 형용사의 화용 형태 관형어, 부사어이다. (32ㄷ)에서는 고민하는 내용이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이고 (32ㄹ)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일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고민한다. 이 두 문장에서는 명사 ‘고민(苦悶)’가 접미사 ‘-스럽다’와 결합하여 심리 활동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 따라서 우

리는 ‘-스럽다’가 형용사 전용 접미사인 것을 알수 있다. 특히 마지막 예문 (32ㄱ)는 대명사 ‘그’의 생각이 복잡해서 ‘머리를 긁다’는 동작을 부사어 ‘고민스럽게’를 사용하여 ‘그’의 양상에 생동감을 주었다. 만약에 ‘*고민(苦悶)하게’ 사용하면 ‘*일이 너무나 많아 뭘 하는지 몰라 그는 고민하게 계속 머리를 긁다.’는 비문으로 되었다. 그래서 ‘-하다’는 동사와 형용사의 접미사이고 ‘-스럽다’는 형용사만으로 사용하는 접미사이다. ‘고민(苦悶)’과 같은 한자어들은 곤혹(困惑), 실망(失望), 절망(絶望), 공포(恐怖), 존경(尊敬) 등이 있다.

(33) 자연(自然)

- ㄱ. 제주도의 자연(自然) 경치가 유명하다.
- ㄴ.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지내다 보면 자연(自然) 알게 될 것이요.
- ㄷ. 여배우의 옷차림이 요란(自然)하지 않고 자연스럽다.
- ㄹ. *옷차림이 자연(自然)하다.
- ㅁ. 사춘기 아이들에게 여드름이 생기는 것은 자연(自然)스러운 일이다.
- ㅂ. 나는 바닷가에서 자라서 자연(自然)스럽게 수영을 배우게 되었다.

위의 (33) 예문은 다 한자어 ‘자연(自然)’로 만드는 문장이다. (33ㄱ)은 명사이고 ‘산, 강, 바다, 식물, 동물...’같이 사람의 힘이 더해지지 아니하고 저절로 생겨나는 ‘실물(實物)성’ 존재이다. (33ㄴ)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나온 예문인데 ‘자연(自然)’가 부사어로 사용하고 있다. 앞에 설정했던 기준에 ‘부사가 움직임이나 움직임을 묘사할 수 있는 것’라는 기준에 따라 ‘자연(自然)’도 ‘동사성’이 있는 것으로 귀속해야한다. 그러나 ‘당당(堂堂)’등 부사와 달리 ‘자연(自然)’은 ‘실물’식으로 존재이고 ‘당당(堂堂)’등은 다 추상

적이고 동시 ‘실물’ 소리로 존재하는 ‘쟁쟁(錚錚)’와 달리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래서 ‘자연(自然)’은 동사성이 없다고 말할 수가 있고 (33ㄷ)의 ‘자연하다’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자연(自然)’은 ‘실물(實物)성’ 존재이라서 상태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한자어 ‘자연(自然)’이 접미사 ‘-스럽다’와 결합하여 이룬 형용사가 3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33ㄷ)에 ‘억지로 꾸미지 아니하여 이상함이 없다’라는 의미이고, (33ㄱ)에 ‘순리에 맞고 당연하다’라는 의미이고, (33ㄴ)에 ‘힘들이거나 애쓰지 아니하고 저절로 된 듯하다’라는 의미이다.

(34) 정성(精誠)

- ㄱ. 선물이 비싸지 않지만 내 마음은 정성(精誠)스럽다.
- ㄴ. 정성(精誠)스러운 대접을 받다.
- ㄷ. 그녀는 보육원 아이들을 정성(精誠)스럽게 보살피다.

‘정성(精誠)’은 ‘온갖 힘을 다하려는 참되고 성실한 마음’라는 의미로 사전에서 해석하고 있다. 의미 측면에 보면 이 명사도 행위와 관련되는 면이 있지만 ‘정상성’으로 귀속하는 이유는 다음 예문을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35) ㄱ. 정성(精誠)을 들이다

- ㄴ. 정성(精誠)을 다하다
- ㄷ. 정성(精誠)을 바치다
- ㄹ. 정성(精誠)을 모으다
- ㅁ. 정성(精誠)이 지극하다
- ㅎ. 정성(精誠)이 가극하다

(35)의 6개의 예문에서 ‘정성(精誠)’이 동작을 지배하는 수동자와 묘사하는 대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36ㄱ, ㄴ)는 의미가 비슷하고 ‘온갖 힘을 다하려는 마음’을 일을 하는 상태, 태도를 보여주고 (36ㄷ, ㄹ)도 마찬가지로 ‘참되고 성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다. (36ㅁ, ㅂ)는 ‘정성(精誠)’의 정도를 보여준다. 이 6 개의 예문을 통해 ‘정성(精誠)’이 사람이 어떤 행위를 할 때의 상태를 보여주기 때문에 ‘성상성’으로 정한다.

4.2 한자어 형용사 어근이 중국어에서 품사 종류와 접미사 선택 관계

3장에 이미 논의 했듯이 한자어 형용사의 모든 접미사 중에는 ‘-하다’의 조어력이 제일 강하다. <표 2>를 보면 이것을 알 수 있다. 표에 접미사 ‘-하다’와 결합하여 이룬 한자어 형용사의 양이 제일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이 형용사를 만들 때 일반적으로 ‘-하다’와 결합한다는 추측을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다’는 형용사의 접미사이지만 몇몇 단어에 동사 ‘하다’의 영향을 받아 동사를 이룬 것을 보인다. ‘건조(乾燥)하다’와 같이 형용사이자 동사도 사용할 수 있는 품사이다. 그래서 한자어 어근이 ‘-하다’와 결합하면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가 된다. 물론 ‘건조(乾燥)하다’처럼 두 가지 품사 다 될 수도 있지만 ‘건강(健康)하다’처럼 형용사만 되는 경우도 있고 동사만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접미사 ‘-스럽다’와 ‘-롭다’는 형용사의 전용 접미사이기 때문에 동사성을 지닌 어근과 결합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 3장에 논의했던 것과 같이 ‘-스럽다’와 ‘-롭다’가 의미적으로는 비슷하지만 객관적인 본질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

다. ‘-스럽다’는 감정적인 특징이 뚜렷하고 심리적인 활동을 묘사하는 어근과 많이 결합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았다.

앞에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들을 한국어의 입장에서 이미 분석했고 여기서는 한자어 어근들을 중국어 품사적 속성에 근거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 가운데 한국어에서는 한자 어근 하나가 여러 가지의 접미사와 결합하여 새로운 형용사를 파생하는 형태적인 특징을 뚜렷하다고 하면 중국어에서는 형용사 하나가 여러 가지의 품사 종류를 공유하는 빈도가 높기 때문이다. 중국어 형용사가 품사 종류를 공유하는 현상은 주로 형용사를 동사처럼 사용한다.

王力(1980:381)은 ‘詩經·書經·易經 등 비교적 이른 시기의 자료에는 사동(使動)用法이나 의동(意動)用法이 아주 드물게 사용되고 있다. 使動用法이나 意動用法이 보편적으로 응용되기 시작한 것은 春秋末期 혹은 戰國初期이다’라고 말했다. 현대 학자들이 이러한 현상을 ‘使動’, ‘意動’⁴³⁾과 ‘일반 동

43) 使動과 意動은 그 단어에 없는 기능을 임시로 갖게 되는 경우이다. 즉 使動이나 意動은 본래 동사가 아닌 형용사나 명사가 동사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을 말한다. 王力(1980)은 ‘使動’을 ‘致動’이라 부르고 있으며, ‘意動’은 동일한 용어를 쓰고 있다. 각 예문이 다음과 같다.

ㄱ. 春風又綠江南岸(봄바람이 불어 강남언덕이 파릇파릇하다) 王安石 「泊船瓜洲」

ㄴ. 騰公奇其言, 壯其貌, 釋而不斬(등공이 그 말을 기이하게 여기고 그 모습을 장부로 여겨 풀어주고 목을 베지 않았다). 『史記·淮陰侯列傳』

ㄷ. 卒使上官大夫短屈原於頃襄王(드디어 상관대부는 頃襄王에게 屈原을 헐뜯었다) 『史記·屈原列傳』

ㄱ는 형용사가 ‘...하게 하다’로 번역되는 使動用法이고, ㄴ는 ‘...라고 여기다’라고 번역되는 의동용법, ㄷ는 일반 동사로 전성된 경우이다. 이러한 형용사의 動詞化用法은 계속 발전하였다. 처음에는 ㄱ와 같이 형용사 뒤에 목적어가 와서 형용사의 使動 의미를 나타냈지만 漢나라부터는 結果補語를 사용하여 使動 의미를 나

사로 전성되다'라고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품사측면에서 구분하면 '일반 동사로 전성'의 경우는 형용사와 동사 심지어 다른 품사로 사용하는 겹류 품사이고 '使動'과 '意動'은 동사처럼 사용할 수 없는 형용사 혹은 형용사와 다른 품사 다 가능한 겹류 품사이다. 使動과 意動은 현대 중국어의 문장형태로 정리하면 보통 '使+목적어+형용사', '認爲+목적어+형용사'로 쓰인다. 이와 같이 중국어 형용사와 동사의 긴밀한 관계 인해 여기서는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이 중국어에서 형용사뿐만 아니라 동사로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한자어 형용사 어근의 분류'에 부사도 수록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부사를 포함한다. 또한 조사의 대상들을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수록된 것을 위주로 하고 추측을 분석하기 위해 사전도 참조한다.

한자어 형용사 어근이 중국어에서 품사 종류 목록:

ㄱ. **형용사**: 가소(可笑), 가증(可憎), 간결(簡潔), 간고(艱苦), 가관(可觀), 간단(簡單), 간략(簡略), 간절(懇切), 간사(奸邪), 간사(奸詐), 간악(奸惡), 간이(簡易), 간특(姦慝), 간편(簡便), 각바(刻薄), 강대(強大), 강경(強硬), 강고(強固), 강경(強勁), 강렬(強烈), 강직(剛直), 강성(強盛), 강인(強韌), 거대(巨大), 건강(健康), 건실(健實), 건조(乾燥), 긴장(健壯), 걸출(傑出), 격렬(激烈), 견실(堅實), 견고(堅固), 건강(堅強), 결백(潔白), 겸손(謙遜), 겸연(慊然), 경건(勁健), 경미(輕微), 경솔(輕率), 경쾌(輕快), 경이(驚異), 고귀(高貴), 고급(高級), 고고(孤高), 고독(孤獨), 고단(孤單), 고등(高等), 고매(高邁), 고명(高明), 고민(苦悶), 고상(高尚), 고아(高雅), 고적(孤寂), 곤고(困苦), 곤혹(困惑), 공교(工巧), 공정(公正), 공평(公平), 과대(過大), 과감(果

타내고 있는 예문이 보인다. 예를 들어 '使陛下奉承天統，欲矯正之也(폐하게 하늘의 대통을 이어 받들게 한 것은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漢書·李尋傳》)' 등이 있다.

敢), 과격(過激), 공허(空虛), 과다(過多), 과민(過敏), 과밀(過密), 과분(過分), 과욕(寡慾), 과중(過重), 관대(寬大), 관활(寬闊), 광대(廣大), 광막(廣漠), 광범(廣範), 괴벽(乖僻), 광폭(狂暴), 광활(廣闊), 교교(皎皎), 교묘(巧妙), 교활(狡猾), 구차(苟且), 권태(倦怠), 귀중(貴重), 균일(均一), 균형(均衡), 균등(均等), 근검(勤儉), 극성(極盛), 근면(勤勉), 근엄(謹嚴), 급박(急迫), 급급(汲汲), 기구(崎嶇), 기묘(奇妙), 기민(機敏), 기이(奇異), 기특(奇特), 긴박(緊迫), 긴요(緊要), 긴급(緊急), 긴밀(緊密), 깍긴(喫緊), 나약(懦弱), 나태(懶怠), 난만(爛漫), 난감(難堪), 남루(襤褸), 낭랑(朗朗), 낭자(狼藉), 낭패(狼狽), 냉랭(冷冷), 냉혹(冷酷), 냉담(冷淡), 냉정(冷靜), 녹록(碌碌), 농밀(濃密), 농후(濃厚), 누추(陋醜), 늠름(凜凜), 늠연(凜然), 다양(多樣), 다정(多情), 단일(單一), 단순(單純), 단정(端正), 단정(端整), 단조(單調), 담담(淡淡), 대담(大膽), 대길(大吉), 대등(對等), 당당(堂堂), 도도(滔滔), 독실(篤實), 독특(獨特), 돈후(敦厚), 돌출(突兀), 동등(同等), 등등(騰騰), 막대(莫大), 막막(漠漠), 막역(莫逆), 막연(漠然), 만전(萬全), 망망(茫茫), 망연(茫然), 맹랑(孟浪), 맹렬(猛烈), 면밀(綿密), 명명백백(明明白白), 명랑(明朗), 명석(明皙), 명쾌(明快), 몽롱(朦朧), 몽매(蒙昧), 묘안(杳然), 무궁(無窮), 무능(無能), 무료(無聊), 무성(茂盛), 무용(無用), 무정(無情), 묵묵(默默), 문란(紊亂), 미려(美麗), 미묘(微妙), 미세(微細), 미소(微小), 미묘(美妙), 미미(微微), 미약(微弱), 미천(微賤), 민감(敏感), 민첩(敏捷), 밀밀(密密), 박학(博學), 박약(薄弱), 박절(迫切), 방대(龐大), 방탕(放蕩), 번다(繁多), 번화(繁華), 복잡(複雜), 부당(不當), 부귀(富貴), 부강(富強), 부득이(不得已), 부실(不實), 부유(富裕), 부요(富饒), 부화(浮華), 분방(奔放), 불량(不良), 불리(不利), 불민(不敏), 불손(不遜), 불법(不法), 불순(不純), 불안(不安), 불쾌(不快), 불의(不義), 비겁(卑怯), 비대(肥大), 비루(鄙陋), 비범(非凡), 비열(卑劣), 비옥(肥沃), 비장(悲壯), 비참(悲慘), 비천(卑賤), 비통(悲

痛), 빈번(頻繁), 빈약(貧弱), 빈곤(貧困), 빈궁(貧窮), 빈한(貧寒), 사치(奢侈), 산만(散漫), 산란(散亂), 삼엄(森嚴), 삼상(颯爽), 상세(詳細), 상쾌(爽快), 생동(生動), 생경(生硬), 생소(生疏), 석연(釋然), 선명(鮮明), 선량(善良), 성급(性急), 성결(聖潔), 섬세(纖細), 섬약(纖弱), 성대(盛大), 성실(誠實), 세련(洗練), 세미(細微), 세밀(細密), 세심(細心), 소박(素朴), 솔직(率直), 송연(悚然), 쇠약(衰弱), 수려(秀麗), 숙연(肅然), 순박(淳朴), 순결(純潔), 순백(純白), 순진(純眞), 순후(淳厚), 순연(純然), 순일(純一), 숭고(崇高), 신기(神奇), 신기(新奇), 신랄(辛辣), 신묘(神妙), 신산(辛酸), 신비(神秘), 신선(新鮮), 신이(神異), 신성(神聖), 신속(迅速), 신속(神速), 신중(慎重), 심각(深刻), 아연(啞然), 심오(深奧), 심원(深遠), 심상(尋常), 심장(深長), 악독(惡毒), 악착(齷齪), 안락(安樂), 안녕(安寧), 안전(安全), 안온(安穩), 안일(安逸), 암담(暗澹), 애절(哀切), 애매(曖昧), 애통(哀痛), 야만(野蠻), 양양(洋洋), 양양(揚揚), 양호(良好), 억울(抑鬱), 엄밀(嚴密), 엄혹(嚴酷), 엄연(嚴然), 엄정(嚴正), 엄중(嚴重), 여유(餘裕), 역력(歷歷), 연로(年老), 연면(連綿), 연약(軟弱), 열렬(熱烈), 열등(劣等), 영광(榮光), 영락(零落), 영롱(玲瓏), 영리(伶俐), 영명(英明), 영험(靈驗), 예리(銳利), 예민(銳敏), 오만(傲慢), 온건(穩健), 온당(穩當), 온순(溫順), 온유(溫柔), 온화(溫和), 완강(頑強), 완만(緩慢), 완고(頑固), 왕성(旺盛), 왜소(矮小), 요긴(要緊), 요원(遙遠), 요염(妖艷), 용맹(勇猛), 용감(勇敢), 완연(宛然), 요행(僥倖), 용이(容易), 우등(優等), 우매(愚昧), 우미(優美), 우수(優秀), 우울(憂鬱), 우아(優雅), 우월(優越), 웅대(雄大), 웅장(雄壯), 원대(遠大), 원만(圓滿), 원활(圓滑), 위급(危急), 위대(偉大), 위중(危重), 위험(危險), 위태(危殆), 유구(悠久), 유력(有力), 유명(有名), 유리(有利), 유약(幼弱), 유약(柔弱), 유순(柔順), 유연(柔軟), 유연(悠然), 유익(有益), 유적(幽寂), 유일(唯一), 유용(有用), 유장(悠長), 유유(悠悠), 유창(流暢), 유치(幼稚), 유쾌(愉

快), 유한(有限), 유효(有效), 유화(柔和), 은근(慇懃), 은은(殷殷), 은은(隱隱), 음란(淫亂), 음습(陰濕), 음침(陰沈), 음탕(淫蕩), 음험(陰險), 음울(陰鬱), 의연(毅然), 인색(吝嗇), 인자(仁慈), 자세(仔細), 작작(綽綽), 잔혹(殘酷), 잔인(殘忍), 잔잔(潺潺), 장려(壯麗), 장렬(壯烈), 장엄(莊嚴), 장중(莊重), 장황(張皇), 저급(低級), 저렴(低廉), 저명(著名), 저열(低劣), 저속(低俗), 적나라(赤裸裸), 적당(適當), 적막(寂寞), 적연(寂然), 적요(寂寥), 적적(寂寂), 전아(典雅), 절묘(絕妙), 절절(切切), 정교(精巧), 정결(貞潔), 정밀(精密), 정밀(靜謐), 정성(精誠), 정연(井然), 정정(亭亭), 정중(鄭重), 정직(正直), 정치(精緻), 정확(正確), 정확(精確), 조대(粗大), 조밀(稠密), 조숙(早熟), 조화(調和), 졸렬(拙劣), 존귀(尊貴), 주요(主要), 준수(俊秀), 중대(重大), 중요(重要), 지당(至當), 지혜(智慧), 진귀(珍貴), 진기(珍奇), 진솔(眞率), 진실(眞實), 진부(陳腐), 진지(眞摯), 질박(質朴), 질탕(跌宕), 집요(執拗), 정청(澄清), 참연(燦然), 찬란(燦爛), 착잡(錯雜), 참담(慘澹), 참신(斬新), 참혹(慘酷), 창백(蒼白), 창창(蒼蒼), 처량(淒涼), 처연(淒然), 처절(淒切), 처참(淒慘), 천박(淺薄), 천연(天然), 천진(天真), 철저(徹底), 첨예(尖銳), 청담(清淡), 청결(清潔), 청량(淸亮), 청량(淸涼), 청렴(淸廉), 청순(淸純), 청신(淸新), 청아(淸雅), 청정(淸正), 청청(靑靑), 초연(超然), 초조(焦躁), 초췌(憔悴), 총명(聰明), 추악(醜惡), 출중(出衆), 충실(忠實), 충분(充分), 충성(忠誠), 충족(充足), 취약(脆弱), 치밀(緻密), 치졸(稚拙), 치열(熾烈), 친밀(親蜜), 침울(沈鬱), 친절(親切), 침착(沈着), 침침(沈沈), 침통(沈痛), 쾌활(快活), 타당(妥當), 탁월(卓越), 태평(太平), 태연(泰然), 태만(怠慢), 통쾌(痛快), 투명(透明), 투철(透徹), 특수(特殊), 특이(特異), 특정(特定), 특출(特出), 편협(偏狹), 편편(便便), 평범(平凡), 평정(平靜), 평등(平等), 평안(平安), 평탄(平坦), 평온(平穩), 평평(平平), 평이(平易), 포만(飽滿), 풍만(豐滿), 풍성(豐盛), 풍족(豐足), 피로(疲勞), 필요(必要), 한산(閑

散), 허다(許多), 허망(虛妄), 허약(虛弱), 험난(險難), 험악(險惡), 험준(險峻), 현란(絢爛), 현묘(玄妙), 현저(顯著), 협소(狹小), 협애(狹隘), 호방(豪放), 호사(豪奢), 호화(豪華), 혼란(混亂), 혼란(昏亂), 혼탁(混濁), 화려(華麗), 화급(火急), 화기(和氣), 화목(和睦), 화순(和順), 화창(和暢), 활달(豁達), 활발(活潑), 황공(惶恐), 황량(荒涼), 황망(慌忙), 황무(荒蕪), 황홀(恍惚), 횡포(橫暴), 휘황(輝煌), 흉악(凶惡), 흉폭(凶暴), 흥흥(洶洶), 혼연(欣然), 흔쾌(欣快), 희미(熹微), 희박(稀薄), 희소(稀少)

ㄴ. 동사: 가열(加熱), 간단(間斷), 감사(感謝), 감격(感激), 감탄(感歎), 개탄(慨歎), 건재(健在), 경멸(輕蔑), 경악(驚愕), 경외(敬畏), 고유(固有), 과년(過年), 근사(近似), 매몰(埋沒), 무관(無關), 무고(無告), 무결(無缺), 무력(無力), 무색(無色), 무모(無謀), 무안(無顏), 무연(無緣), 무오(無誤), 무효(無效), 무해(無害), 밀접(密接), 박식(博識), 방종(放縱), 분주(奔走), 분기(奮起), 분망(奔忙), 불경(不敬), 불우(不遇), 비굴(卑屈), 산적(山積), 살벌(殺伐), 상관(相關), 상이(相異), 서정(抒情), 쇠락(灑落), 심통(心痛), 애련(哀憐), 애석(愛惜), 어색(語塞), 여일(如一), 연민(憐憫), 응색(雍塞), 우려(憂慮), 원망(怨望), 원숙(圓熟), 유리(有理), 유망(有望), 유식(有識), 유정(有情), 유해(有害), 윤택(潤澤), 융숭(隆崇), 자명(自明), 장대(張大), 적합(適合), 전율(戰慄), 정통(精通), 제일(齊一), 조심(操心), 즐비(櫛比), 증오(憎惡), 진중(珍重), 충격(衝擊), 충만(充滿), 측은(惻隱), 치사(致死), 탐오(貪污), 통한(痛恨), 특유(特有), 한심(寒心), 허탈(虛脫), 혐오(嫌惡), 혼동(混同), 혼잡(混雜), 혼미(昏迷), 화해(和解), 후회(後悔), 흡사(恰似)

ㄷ. 부사: 과도(過度), 급속(急速), 구구(區區), 단호(斷乎), 무고(無故), 비상(非常), 서서(徐徐), 암암(暗暗), 영원(永遠), 적확(的確), 지당(至當), 철저(徹底), 착실(着實), 합당(合當),

ㄹ. 형용사 겸 명사: 곤란(困難), 괴이(怪異), 극단(極端), 무상(無常), 불행

(不幸), 비밀(秘密), 사악(邪惡), 손색(遜色), 수치(羞恥), 위엄(威嚴), 유명(幽冥), 자유(自由), 장구(長久), 저조(低調), 전통(傳統), 정신(精神), 정의(正義), 청정(淸淨), 행복(幸福), 현명(賢明), 혼돈(混沌), 화평(和平)

ㄹ. **동사 겸 명사**: 감각(感覺), 감동(感動), 관계(關係), 난처(難處), 만면(滿面), 명백(明白), 무고(無辜), 무량(無量), 무리(無理), 부담(負擔), 소담(笑談), 여의(如意), 유감(遺憾), 유책(遺策), 의미(意味), 의문(疑問), 의심(疑心), 저주(詛呪), 한량(限量), 희망(希望)

ㄷ. **형용사 겸 동사**: 가련(可憐), 겸허(謙虛), 경박(輕薄), 고집(固執), 공고(鞏固), 과장(誇張), 당돌(唐突), 돌출(突出), 동일(同一), 등한(等閒), 만족(滿足), 명백(明白), 명료(明瞭), 명확(明確), 모호(模糊), 무례(無禮), 무망(無望), 무심(無心), 번영(繁榮), 부유(富有), 부족(不足), 불만(不滿), 불명(不明), 불편(不便), 비박(菲薄), 성숙(成熟), 소심(小心), 소원(疏遠), 소홀(疏忽), 실망(失望), 안심(安心), 엄숙(嚴肅), 엄격(嚴格), 온난(溫暖), 외설(猥褻), 유사(類似), 유수(有數), 자애(慈愛), 잔학(殘虐), 장대(壯大), 절망(絶望), 절실(切實), 정당(正當), 존경(尊敬), 진정(鎮靜), 청초(淸楚), 충실(充實), 친근(親近), 편리(便利), 평화(平和), 풍부(豐富), 황당(荒唐), 희한(稀罕),

ㄴ. **형용사 겸 부사**: 각별(各別), 건전(健全), 결연(決然), 단순(單純), 당연(當然), 돌연(突然), 무한(無限),分明(分明), 분분(紛紛), 순수(純粹), 완전(完全), 우연(偶然), 이상(異常), 일정(一定), 진정(眞正), 특별(特別), 확실(確實)

ㅇ. **접속사 겸 부사**: 불과(不過)

ㅈ. **동사 겸 부사**: 도저(到底), 무방(無妨), 방불(彷彿)

ㅊ. **형용사, 명사 겸 동사**: 공포(恐怖), 교만(驕慢),

ㅋ. **형용사, 동사 겸 부사**: 가능(可能), 불가(不可), 상당(相當), 응당(應當),

ㅌ. **동사, 명사 겸 부사**: 분별(分別),

ㅍ. **형용사, 명사 겸 부사**: 자연(自然-)

위에 13가지 품사 분류기준은 중국어 품사 분류에 따른 것이다. 중국어의 품사 종류는 한국어와 비슷해서 여기서는 각 품사 종류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설명하지 않고 13가지 분류에 각자 단어 하나씩 택하고 예문을 제시한다.

(36)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이 중국어에서의 품사 종류 상황

ㄱ. 형용사: 正確(정확)

姿勢正確(자세가 정확하다).

ㄴ. 동사: 加熱(가열)

用電磁爐把飯加熱(중한사전 전자레인지로 밥을 가열하다).

ㄷ. 부사: 過度(과도)

運動過度, 身體軟綿綿的(과도히 운동해서 몸이 녹신녹신하다).

ㄹ. 형용사 겸 명사: 健康(건강)

身體健康(몸이 건강하다).

健康是一種幸福(건강은 행복의 한 가지이다).

ㅁ. 동사 겸 명사: 關係(관계)

交通安全是關係到千萬人家庭幸福(교통안전은 여러 가정의 행복과 관련된다).

沒有關係(관계가 없다)

ㄴ. 형용사 겸 동사: 健全(건전)

那個孩子發育健全(그 아이의 발육이 건전하다).

健全公司的管理制度(회사의 관리 제도를 완전하게 한다).

ㄷ. 형용사 겸 부사: 特別(특별)

衣服的樣式很特別(의상 디자인이 특별하다).

特別優遇(특별히 우대하다)。

○. **접속사 겸 부사:** 불과(不過)

那就再好不過了(그러면 최고다.)

病人精神還不錯,不過胃口不好(환자가 정신이 좋다. 그러나 식욕이 좋지 않는다)。

ㅈ. **동사 겸 부사:** 도저(到底)

堅持到底(끝까지 버티다)

到底是誰干的(도대체 누가 이래요)?

ㅊ. **형용사, 명사 겸 동사:** 공포(恐怖)

荒涼的庭園安靜得令人恐怖(황량한 정원은 사람이 무서울 정도로 조용하다)。

恐怖只是一種情緒(공포는 단지 기분이다)。

陰森恐怖的環境(음산하고 공포스런 분위기)。

ㅋ. **형용사, 동사 겸 부사:** 상당(相當)

相當的人選(상당한 인선)。

兩個學生的成績相當(두 학생의 성적이 비슷하다)。

這個學者相當有名(이 학자는 상당히 유명하다)。

ㅌ. **동사, 명사 겸 부사:** 분별(分別),

分別大小(크기와 작기를 구분하다)。

兩種飲料都一樣，沒有分別(두 가지 음료가 똑 같다, 차이가 없다)。

兩個人分別報考了不同的大學(두 사람이 각자 다른 대학교를 신청했다)。

ㅍ. **형용사, 명사 겸 부사:** 자연(自然)

隨着科學技術的發展人們改造自然的能力在提高(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이 자연을 개발하는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

現在的整形手術做得很自然(현재 성형수술이 아주 자연스럽게 해준다)。

由于成績优秀他自然受到老師們的喜歡(그는 성적이 뛰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선생님들의 총애를 받는다)。

ㅎ- 형용사 겸 의성어: 쟁쟁(錚錚)

錚錚男子漢(실력이 뛰어난 사내)。

各種金屬互相撞擊發出錚錚的聲音(각 금속이 서로 부딪힐 때 쟁쟁 소리가 난다)。

<표 9>한자어 형용사 어근들이 접미사와 결합 상황

	-스럽다	-롭다	-업다	-있다	-차다
형용사	경이(驚異) 곤혹(困惑) 공허(空虛) 충성(忠誠)	경이(驚異) 가소(可笑) 여유(餘裕)			
동사	경멸(輕蔑) 경악(驚愕) 조심(操心)	경외(敬畏) 조화(調和)	간단(間斷)		매몰(埋沒) ⁴⁴⁾
형용사 겸 명사	수치(羞恥) 전통(傳統)	정의(正義)	손색(遜色) 정신(精神)		
동사 겸 명사	감동(感動) 부담(負擔) 유감(遺憾) 의문(疑問) 의심(疑心) 저주(詛呪)	의미(意味)	관계(關係) 한량(限量)	관계(關係)	희망(希望)
형용사 겸 동사	고집(固執) 과장(誇張) 실망(失望) 절망(絶望)	자애(慈愛)			

<표 9>에 제시한 33개 어근을 제외하면 다른 어근들이 다 ‘-하다’와 형용사를 이룰 수 있다. 이 33개 어근 중 ‘-하다’와 결합 동사로 이룬 경우는 ‘경이(驚異), 곤혹(困惑), 공허(空虛), 충성(忠誠), 경멸(輕蔑), 경악(驚愕), 조심(操心), 조화(調和), 경외(敬畏), 감동(感動), 부담(負擔), 유감(遺憾), 의문(疑問), 의심(疑心), 저주(詛呪), 의미(意味), 고집(固執), 과장(誇張), 실망(失望), 절망(絶望)’ 19개 있다. 이 19개 어근에서 충성(忠誠)과 전통(傳統)은 본질성이 없는 걸로 정할 수 있다.

충성(忠誠)은 사전에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나라, 임금, 주인 등’에게 다 ‘충성(忠誠)하다’고 쓸 수 있다. 국가와 사람에게 ‘충성(忠誠)’의 도(度)에 차이가 있고 일반사람, 주인, 임금에게 ‘충성(忠誠)’의 도가 다르기 때문에 ‘충성(忠誠)’의 표준을 정할 수 없게 되어 ‘본질성’이 없다고 본다.

‘전통(傳統)’도 마찬가지로 사전에 ‘지난 시대에 이미 이루어져 계통을 이루며 전하여 내려오는 사상·관습·행동 따위의 양식’라는 의미인데 이 의미의 전제는 ‘어떤 집단 혹은 공동체’라고 정했다. 이 전제 자체가 범위 모호하여 ‘본질성’이 없는 것으로 정한다. 이 둘이 빼면 다른 18개는 다 심리 활동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어근의 의미적 속성이 ‘심리성’이 높은 경우 ‘-스럽다’와 결합한다. 그래서 이 20개 어근은 다 ‘-스럽다’와 결합하게 된다.

이와 반하여 ‘가소(可笑), 여유(餘裕), 경외(敬畏), 조화(調和), 정의(正義)’ 이 5개 어근 예는 ‘여유(餘裕)’가 ‘물질, 공간, 시간’ 방면에서 구체적인 제한이 있다. ‘가소(可笑)’는 ‘우스움’을 나눈, 경외(敬畏)는 ‘공경하고 두렵다’

44) 『현대 국어 사용 빈도 조사2』에 ‘매몰(埋沒)차다’, ‘괴이(怪異)쩍다’로 수록되었지만 사전에서는 ‘매몰(埋沒)스럽다’, ‘괴이(怪異)하다’도 사용할 수 있다.

는 성상성 자질로, ‘조화(調和)’는 ‘서로 어울린’ 동작으로 표준을 정할 수 있고 ‘정의(正義)’는 ‘진리에 맞는’ 만큼 성상성 자질로 제한한다. 즉 이 5개 어근이 대략적인 표준을 정할 수 있고 ‘본질성’이 있다는 것으로 속할 수가 있다. 또한 ‘자애(慈愛)’는 이미 3장에 논의하였고 ‘의미(意味)’ 자체는 그래서 ‘-롭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이룬다.

또한 ‘간단(間斷), 관계(關係), 손색(遜色), 정신(精神), 한량(限量)’ 5개 어근이 중국어에서는 ‘간단(間斷)’이 동사이고 다른 것들은 다 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 5개 어근 중 ‘관계(關係)’는 ‘있다’, ‘없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이루고 다른 4개의 어근은 ‘없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구성한다. 그 중 ‘관계(關係), 손색(遜色), 정신(精神), 한량(限量)’은 조사 ‘가’이나 ‘이’를 붙이고 띄어쓰기도 되는 걸 보면 3장에 논의했듯이 구를 어휘화 현상으로 정할 수 있다. ‘간단(間斷)’은 중국어에서 동사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명사로 사용하여 접미사 ‘-없다’를 붙여 형용사가 된다.

‘희망(希望)’의 경우는 ‘희망(希望)하다’가 사전에서 동사로 표시하고 있다. 이 한자어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다 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 3장에 분석했듯이 [+ 자립] 접미사로 이룬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은 대다수가 [+ 자립]인 경우가 많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단음절의 한자어 형용사가 ‘-하다’와 결합하여 형용사를 이룬다. 한자의 음절이 두 개 있는 경우는 접미사와 결합 상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 현대 중국어는 주로 쌍음절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중국어에서 형용사로 사용할 때도 일반적으로 ‘-하다’, ‘-스럽다’, ‘-롭다’ 등 이 다 가능하다.

중국에서 동사로 사용하고 있는 어근들은 한국어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다’와 결합한다. 대다수의 형용사가 일부의 어근이 심리적인 명사이라면 보통 동사가 된다. 그래서 생산량이 두 번째로 많은 접미사 ‘-스럽다’와 결합하는 경우가 많다. ‘-스럽다’도 주관 감정을 지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말할 수 있다. ‘-롭다’는 ‘-스럽다’보다 약간의 객관적인 본질성이 있어서 보통 본질성을 지닌 어근과 결합한다. 그리고 중국어에서 명사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 자립] 접미사와 결합의 빈도 상대적으로 높다.



V. 한·중 동형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 층위 분석

본장에서는 양국 언어 사전에 나타나는 뜻에 의거하여 한·중 어휘의 의미를 비교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중 한자어들을 동형이의어와 동형유의어로 구분하여 의미 분석을 시도하였다. 동형이의어는 형태가 같지만 의미가 완전히 다른 어휘를 가리키는 개념이고, 동형유의어는 같은 형태를 가지며 일정한 의미를 공유하지만 어떤 의미에 있어서는 일치하지 않는 어휘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장에서는 동형한자어 중에서도 다음절(多音節) 동형 한자어, 특히 쌍음절 어휘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의미 차이를 비교하였다⁴⁵⁾.

동의어라는 말을 쓸 때, 우리가 어휘의 풍부성 및 문학에서 표현의 정교화를 말할 때 논하여지는 일물일어(一物一語)주의에 관한 연상을 포함한다. 사실은 동일 문장 구조에서 그 변화는 하나의 동의어를 대치하여 거의 완전한 동의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한 사실로 학자들에게 인정되어 있다. 따라서 동의어라기보다는 유의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

45) 단음절 동형 한자어에서도 의미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단음절 한자어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자립성을 잃고 기능성이 퇴화하여 다음절 단어를 구성하는 형태소로 주로 사용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형용사 ‘귀하다’와 현대 중국어 형용사 ‘貴’는 유의어라기보다는 이의어(異義語)라고 할 수가 있다. 현재 중국어에서는 형용사 ‘貴’가 주로 ‘비싸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가치 있다, 값지다’라는 뜻으로는 거의 쓰지 않는다. 또한, 한국어에서 ‘귀하다’가 가지는 ‘신분, 지위 따위가 높다’라는 뜻은 중국어에서는 ‘高貴’와 ‘尊貴’로 쓰이며, ‘존중할 만하다’라는 뜻은 단어 ‘可貴’로 표현된다. 그리고 “貴”는 ‘아주 보배롭고 소중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단어 ‘寶貴’, ‘金貴’의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동형이의어와 동형유의어의 분석은 다음절의 한자어에 한하여 실시하였음을 밝혀둔다.

하여지고 있는 실정이다(심재기 1963:13). 그리고 낱말들은 본래적 의미, 파생적 의미 및 비유적 의미 등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갖추기 때문에 의미 분석을 더 복잡하게 만든다. 예를 들어 중국 한자어 화(花)가 가지는 다의성을 보기로 들면 다음과 같다.

(37) ㄱ. 春天到了各種花都開了봄이 되자 여러 가지 꽃이 피었다. (본의)

ㄴ. 過度勞累讓她頭昏眼花 그녀가 과로로 머리가 아찔하고 눈앞이 캄캄하다. (파생 의미)

ㄷ. 她喜歡花裙子 그녀가 꽃무늬 치마를 좋아한다. (파생 의미)

ㄹ. 她是我們學校的校花 그녀는 우리학교에 공인된 제일 예쁜 여 학생이다. (비유 의미)

(37)의 화(花)와 같이 한국어도 실제 사용할 때는 언어 환경에 의거하여 본래 의미, 파생의미와 비유의미가 생긴다. 우리가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와 동형 현대한어 형용사 가운데 동의어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 인간의 언어에 완전 동의어가 존재하느냐에 대해 손경옥(1994:66)에서는 Ullmann의 관점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현대 언어학에 있어 완전한 동의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공리로 여겨지고 있다. ... 그러나 완전한 동의어의 가능성을 부정해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충분히 역설적이지만, 완전한 동의를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즉 專門的術語들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된다. 과학용어들이 정확하고 감정적으로 중립적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 용어들 중 어느 것이 완전히 교체 가능한 지를 아주 명확히 발견할 수 있게 하고, 절대적 동의(absolute synonymy)는 결코 드물지 않다. 産業術語들의

형성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은 여러 동의어가 완전히 분류될 때까지 새로운 발명에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런 동의어는 일정의 기간 동안 존속할 수도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동의가 언어를 보는 우리의 방식 전체에 모순된다는 것은 완전한 사실이다. 우리가 다른 단어들을 볼 때 우리는 의미상 어떤 차이가 또한 있음에 틀림없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하고, 비록 명확히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상 구별이 있다. 객관적 의미, 정조(feeling-tone) 또는 환기적 가치를 조금도 변경시키지 않고 교체 가능하다는 뜻에서 극히 소수의 단어들이 완전히 동의적이다.

한·중 두 언어에서 형태가 같은 한자어이라도 의미적인 차이점이 있고 심지어 사전에 의미 해석을 서로 대응하며 일치하면서도 불구하고 실제 사용할 때는 두 언어에 갖지 않은 언어 환경이랑 묘사 대상에 따라 적용한 사물이 다른 경우도 많다. 그리고 동의 관계를 설정할 때의 기준이 사전에 나타낸 의미 해석뿐 만 아니라 주로 번역 과정을 통해 반영되는데,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인지적 의미와 감정적 의미가 서로 같으며 모든 문장에서 문자 그대로 번역해도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없고 각자의 언어 표현 습관에 맞을 때 그것을 동의⁴⁶⁾라고 하고, 인지적 의미는 같지만 감정적 의미나 사용 문맥, 또한 적용 대상 등에 차이가 나는 것을 이의어와 유의어라고 한다. 한국어와 중국어는 비록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지만 한국의 많은 상용 한자어가 고대 한어에 기원을 두로 있고 그 비율 역시 상당히 높고

46)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동의(同義)’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한·중 양국 국민의 의사 방식이 같지 않기 때문에 한자어 형용사가 두 언어의 사전에서 의미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고 다소 미세한 차이가 있다. 정확히 말하면 단지 서로 아주 가깝기 때문에 번역할 때 똑같은 것으로 여겨 쉽게 처리한다. 여기서 말하던 ‘동의’는 바로 이같이 소홀하게 대할 수 있는 차이점을 제외하고 의미항목과 상관없이 두 언어 속에서 동일한 한자어 의미를 같은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완전하게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의미를 해석할 때는 키워드가 완전하게 일치하고 있으므로 두 언어에서 서로 ‘동의’의 대응관계가 성립한다고 본다.

어휘 영역에 각 품사 종류에 거의 다 동의어 현상이 있다. 예를 들어 명사의 ‘가격(價格)’, 동사의 ‘연구(研究)하다’, 형용사의 ‘부족(不足)하다’, 부사의 ‘점점(漸漸)’ 등 들이다. 그러나 의미가 완전 같은 것에 비해 동형어 의미의 차이점이 공부하는 자들에게 더 어렵고 구분하기 힘들어서 본 연구는 그의 차이점을 위주로 분석한다. 우선 동형어가 한·중 두 언어에서 의미 차이점 형성 이유를 분석하고자 한다.

5.1 한·중 동형 한자어 의미 차이 형성 요인

가. 동형이의어 형성 요인

한·중 동형 한자어가 동형이의어 관계를 형성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네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형태소의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이다. 한자어를 구성하는 단음절 한자는 보통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지는데, 한자의 의미를 어떤 뜻으로 해석하는지에 따라 의미 차이가 생겨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자어 ‘과년(過年)하다’는 중국어에서는 ‘구정을 쇠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한국어에서는 ‘나이가 혼인할 시기를 지난 상태에 있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중국어에서 ‘과(過)’는 ‘보내다, 쇠다’라는 뜻으로 해석되고, ‘年’은 명절을 가리키는 말인데 반해, 한국어에서 ‘과(過)’는 ‘초과하다, 넘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년(年)’은 ‘일정한 나이’를 의미한다. 즉, 한·중 언어에서 주로 사용되는 형태소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휘의 의미 차이가 발생하게 된

다.

둘째, 어휘 구성 원리의 차이가 동형이의어 형성의 원인이 된다. 양국 언어의 화자가 동형 한자어의 한자를 같은 의미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어휘가 구성된 원리에 따라 뜻이 달라지고, 다르게 사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경우가 ‘약수(藥水)’이다. 중국어에서 ‘약수(藥水)’는 ‘액체로 된 약’이라는 뜻이고, 한국어에서 ‘약수(藥水)’는 ‘약효가 있는 샘물’이라는 뜻이다. 각각의 형태소 ‘약(藥)’과 ‘수(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 차이가 없으나, 한·중 ‘약수(藥水)’는 어휘 구성의 원리가 다르다.

중국어 ‘약수(藥水)’의 단어 핵은 ‘약(藥)’으로서, ‘수(藥)’는 약의 성질 즉, 액체 상태에 있다는 의미를 부가해 준다. 그러나 한국어 ‘약수(藥水)’의 의미 핵심은 약이 아닌 ‘수(水)’에 있다. 다시 말해, ‘약수’는 약이 아닌 물로서, 마시거나 몸을 담그면 약과 같은 효험이 있는 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 각 언어에서 한자어가 새로운 의미를 획득한 경우가 해당된다. 고대 중국어에서 한국어로 유입된 어휘들은 그 의미가 변한 경우가 많다. 의미의 변화는 다시 여러 유형으로 나뉘는데, 한국어에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옛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첫 번째 유형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총각(總角)’은 중국어에서는 미성년자가 하는 머리 모양을 가리키거나 ‘미성년’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어에서는 그 의미가 변화하여 ‘결혼하지 않은 성년 남자’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어에서 옛 의미를 사용하고 중국어에서 새로운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만두(饅頭)’의 경우, 한국에서는 ‘밀가루 따위를 반죽하여 소를 넣어 빚은 음식’을 뜻하는 반면에 현대 중국어의 ‘饅頭’는 ‘소가 없는 만두’를 의미하게 되었다⁴⁷⁾. 마지막으로, 특정한 단어가 두 언어에서 모두 새로운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 ‘인사(人事)’는 원래 ‘세

47) 한국인이 생각하는 ‘만두’는 현대 중국어에서는 ‘水餃’라고 한다.

상의 모든 일'을 의미하는 단어였다. 그런데 현대 한국어에서는 주로 '처음 만날 때나 마주 대하거나 헤어질 때에 예를 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고, 현대 중국어에서는 주로 '사람의 의식'과 '직원의 임용 및 관리 등의 일'로 사용되고 있다.

넷째, 문화의 차이 역시 동형이의어 형성을 촉진하는 원인이 된다. 한국어에서 '유창(流暢)하다'는 '말을 하거나 글을 읽는 것이 물 흐르듯이 거침이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중국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지는 단어는 '流利'인데, 중국어에서 '유창(流暢)'은 보통 글의 내용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이다. 중국어에서 '창(暢)'은 '창통무조(暢通無阻)'라는 뜻이 있어 사람의 입보다 강물이나 교통 등을 더 넓은 범위를 나타내는 단어와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중국인에게는 글이 상상의 공간으로서, 말하기나 글을 읽는 것보다 더 넓다고 인식된다. 따라서 이러한 문화의 차이로 인해 동형어의 의미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나. 동형유의어 형성 요인

한국어와 중국어 한자어의 동형유의어 역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형성된다.

첫째, 의미의 확대 현상을 들 수 있다. 한국어 한자어 중에는 그 의미가 중국어 어휘에 비해 확대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한자어는 양국의 언어에서 동형유의어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독신(獨身)'은 한·중 두 언어에서 모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지니는데, 한국어에서는 '형제자매가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

둘째, 의미의 축소 현상을 들 수 있다. '결실(結實)하다'는 한국어 사전에

서 ‘식물이 열매를 맺거나 맺은 열매가 여물다’와 ‘일의 결과가 잘 맺어지다’의 의미로 나타난다. 두 의미 모두 ‘결과’와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중국에서는 ‘결실(結實)’이 이러한 의미 외에도 ‘튼튼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된다. 이렇게 중국어 어휘가 한국어에서 축소된 의미로 사용되어 유의어 관계를 이루게 된다. .

셋째, 어휘의 의미가 전이된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의미가 전이된 경우로는 ‘계단(階段)’을 들 수 있는데, 중국어에서 ‘계단(階段)’은 ‘일을 이루는 데 밟아 거쳐야 할 차례나 순서’를 의미한다. 그런데 한국어에서는 ‘사람이 오르내리기 위하여 건물이나 비탈에 만든 층층대’라는 뜻으로 전이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중국어에서 한자어의 의미가 바뀐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에서 ‘결실(結實)’은 ‘他這一跤摔得結實(그는 심하게 가꾸러졌다.)’와 같은 문장에서도 사용되는데, 이때 ‘結實’은 ‘분량이 충분하고 크다’라는 뜻으로서 원래 ‘결실(結實)’이 가졌던 의미가 전이된 것이다.

넷째, 어감의 차이로 인해 유의관계가 나타난다. 한국어에서 ‘환락(歡樂)’은 일반적으로 ‘환락에 탐닉하다, 환락에 빠지다’와 같이 부정적인 어감을 가진다. 그렇지만 중국어에서 ‘환락(歡樂)’은 긍정적인 뜻을 가진다. 또한 동사 ‘自負하다’는 한국어에서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 그 가치나 능력을 믿고 마음을 당당히 가지다’라는 긍정적인 뜻으로 쓰이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교만(驕慢)하다’와 같이 부정적인 어감으로 인식된다.

5.2 한·중 동형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 대비

가. 사전적 의미 대비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는 한국어와 중국어에서의 차이점을 살펴보면 아래의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된다. 동형 한자어인데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한국어에서 의미가 확대된 것, 중국어에서 의미가 확대된 것, 그리고 한·중 두 언어에서 의미가 거의 동일하지만 약간의 차이가 있는 어휘가 바로 그것이다.

첫째, 한·중 한자어의 의미가 완전히 다른 것

(38) 한: 그가 결백(潔白)하다면 누명은 곧 벗겨질 것이다.

중: *如果他是潔白(清白/無辜)的終將會擺脫罪名⁴⁸⁾。

위의 예문과 같이 ‘결백하다’가 쓰인 한국어 문장을 중국어로 번역하면 비문이 된다. 한국어에서 ‘결백하다’는 ‘행동이나 마음씨가 깨끗하고 조출하여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의미를 표현하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같은 의미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형용사 ‘清白(청백하다)’ 혹은 ‘無辜(무고하다)’를 사용한다. 중국어에서 ‘결백(潔白)’은 ‘더럽지 않고 깨끗하면서 회다’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또한 사전에 있는 예문을 살펴보면 중국어에서는 ‘결백(潔白)’이 ‘모든 물건’을 묘사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어에서는 사람 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사전 상에서 사람을 묘사하지 않는 경우는 ‘달(月)’을 묘사하는

48) (38)의 한국어 문장이 중국어로 표시할 때는 ‘潔白’으로 사용하지 않고 괄호() 안에 있는 ‘清白/無辜’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표기 방식은 앞으로 계속 사용될 것이다.

예문 하나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한자어 ‘결백(潔白)’으로 구성된 형용사가 한국어에서는 ‘사람의 무죄 상태’를 의미하고, 중국어에서는 ‘물건’의 상태를 의미한다. 이를 의미 성분으로 분석해 보면, 한국의 한자어 형용사 ‘결백(潔白)하다’의 사용 범위는 ‘[+ 성품][− 물건]’으로, 중국어 형용사 ‘결백(潔白)’의 사용 범위는 ‘[− 성품][+ 물건]’으로 표시할 수 있다.

‘결백하다’와 같이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완전히 의미가 다르게 나타나는 한자어 형용사를 정리하면 <표 10>와 같은데 동형 한자어의 한국어 사용 범위와 중국어에서의 사용 범위와 그 의미를 표시하였다 49).

<표 10> 한·중 의미가 완전히 다른 동형한자어

형용사	한국어 사용 범위 및 의미	중국어 사용 범위 및 의미
潔白	[+ 달·사람] 清白, 無辜	[+ 물건] 더럽지 않고 깨끗하면서 희다
工巧	[+ 솜씨·일] 精湛, 巧妙, 恰巧	[+ 예술품] 세치하고 정교하다
寬大	[+ 마음] 寬厚, 大度, 寬容	[+ 면적·용적] 넓고 크다
苟且	[+ 살림·말·행동] 貧窮, 尷尬	[+ 살림·행동·남녀관계] 되는대로 살아가다. 불정당하다.
奇特	[+ 말·행위] 乖巧, 難得, 可貴	[+ 사물·언행] 이상하다
濃密	[+ 사이·어둠·감화·향기] 親密, 濃厚, 濃濃,	[+ 머리카락·나무·가지·농작물 싹] 밀집하고 많다.
玲	[+ 광채·소리]	[+ 사람]

49) 한국 한자어 형용사의 경우, 접미사가 반드시 필요한 데 반해 중국어에서는 한자어 형용사의 한자 부분만 존재한다. 따라서 표에서 어휘 목록을 제시할 때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의 접미사 부분은 생략하고 어기 부분만 표기하였다. 또한 형용사의 사용 범위를 표시할 때도 ‘-’ 자질은 생략하고 ‘+’ 자질만 표시하였다.

朧	燦爛, 剔透, 清脆	윙통성이 있고 민첩하다.
頑 強	[+ 태도·체격] 頑固, 健壯	[+ 성격·투쟁] 굳고 강하다. 강경하다
圓 滑	[+ 인간관계·일] 圓滿, 順暢	[+ 사람] 책임감 없고 말만 잘하고 일을 얼렁뚱땅 해치우다.
有 力	[+ 세력·재산·후보] 有勢力, 有權勢, 極有可能	[+ 문장] 무게가 있고 힘이 세다.
殷 殷	[+ 소리] 隆隆	[+ 정의] 깊고 후하다.
張 皇	[+ 말] 冗長	[+ 사람] 놀라고 당황하다.
切 切	[+ 감정] 慇切	[+ 당부 말] 반드시
跌宕	[+ 정서·흥분] 盡興, 盡情	[+ 성격·문장·국조] 자유분방하다. 변화가 풍부하다.
錯 雜	[+ 기분·마음] 百感交集	[+ 물건] 서로 갈마들다
沈 沈	[+ 빛·눈] 昏暗, 陰沈, 模糊	[+ 물건·정신] 무겁다. 활기가 없다.
怠 慢	[+ 근무나 학업에 태도] 懈怠, 怠惰	[+ 대접의 태도, 인사말] 차갑고 홀대하다. 대접이 변변치 않아서 인사말.
便 便	[+ 도구·물건] 十分方便, 平平, 方正	[+ 사람] 배가 부르케 뚱뚱하다.
飽 滿	[+ 먹음·생활] 飽飽的, 富裕	[+ 쌀알·정신] 과립이나 정신이 가득하게 차다.
閑 散	[+ 거래·환경] 無所事事, 冷清, 僻靜	[+ 살림·사람·물자] 일이 없고 자유롭다. 쓰지 않은 인원과 물자(物資)
慊 然	[+ 모습] 羞愧, 慚愧	[+ 모습] 만족하지 않다.
明 白	[+ 사실·증거·실패 등] 明顯, 明確, 顯然	[+ 해석·의견 제출·사람·일] 설명이 정확하고 자세하다. 의견을 명확하게 말한다. 머리 좋고 똑똑하다. 알다.

深刻	[+ 상태·정도] 嚴重	[+ 느낌·설교] 영향이 크다. 철저하다.
洋洋	[+ 바다·앞날이] 浩瀚, 遠大	[+ 말·마음] 양이 많거나 풍성하다. 만족스럽다.

둘째, 중국어보다 한국어에서 의미가 광범위한 것

(39) 한: ㄱ. 생활이 충실(充實)하다.

ㄴ. 모유를 먹고 커서 아이가 충실(充實)하다.

중: ㄱ. 生活很充實

ㄴ. *母乳喂養的孩子很壯實/結實

위의 (3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어에서 ‘충실(充實)하다’는 ‘내용이 알차고 단단하다’와 ‘아이들의 몸이 건강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중국어에서는 내용이 알차고 단단하다는 의미로만 사용된다. ‘충실하다’와 같이 한국어에서 사용되는 한자어 형용사 중에는 중국어의 동형 한자어에 비해 확장적인 의미를 가지는 어휘가 많은데, 이를 정리하면 <표 11>과 같다. 한·중 동형한자어의 공통적인 의미는 ‘同’으로 중국어에는 없지만 한국어 어휘가 가지는 확장적인 의미는 ‘異’로 표시하였다.

<표11> 한국어에서 의미 범위가 넓은 동형한자어

단어	異 同	한 국 어 사용 범위 및 의미	중 국 어 사용 범위 및 의미
----	--------	---------------------	---------------------

充實	同	[+ 내용]	充實	[+ 내용] 알차고 단단하다
	異	[+ 몸]	健康, 結實	
刻薄	同	[+ 말]	刻薄	[+ 말] 대접하는 태도나 하는 말이 매정하고 혹은 남에게 지나치게 까다롭다.
	異	[+ 땅·현실·인심]	瘠薄, 薄情, 摑門兒	
健實	同	[+ 몸]	健實	[+ 몸] 몸이 건강하다
	異	[+ 생각·태도·생활·기업]	健康, 篤實	
皎皎	同	[+ 달빛]	皎潔	[+ 달빛] 아주 희고 밝다
	異	[+ 환경]	寂靜	
極盛	同	[+ 시기·사업]	全盛	[+ 시기·사업] 몹시 왕성하다
	異	[+ 성질·형동]	熱衷	
懦弱	同	[+ 성격]	懦弱	[+ 성격] 연약하고 무능하다.
	異	[+ 몸]	文弱	
碌碌	同	[+ 생활]	碌碌無爲, 忙碌辛苦	[+ 생활] 평범하다. 일이 많고 고생하는 모습
	異	[+ 사람]	無用, 可欺	
茂盛	同	[+ 풀·나무]	茂盛	[+ 풀·나무] 풀이나 나무 따위가 자라서 우거져 있다.
	異	[+ 털·생각·소문]	濃密,	
紊亂	同	[+ 질서]	紊亂 紛亂, 雜亂	[+ 질서] 복잡하고 혼란스럽다.
	異	[+ 성품·사생활]	敗壞, 淫亂	
微細	同	[+ 물체]	微細, 細小	[+ 물체] 아주 작다.
	異	[+ 통찰력]	仔細, 細緻	
迫切	同	[+ 거절]	無情, 絕情	[+ 거절] 아주 급하다
	異	[+ 상황]	急切	
繁	同	[+ 지역]	繁華	[+ 지역] 번성하고 화려하다.

華	異	[+ 얼굴]	燦爛	
卑	同	[+ 마음]	膽小	[+ 마음] 비열하고 겁이 많다.
怯	異	[+ 행동·수단]	卑劣, 卑鄙	
貧	同	[+ 나라·민족]	貧弱	[+ 나라·민족] 빈공하고 쇠약하다.
弱	異	[+ 시설·몸·지식]	簡陋, 衰弱, 匱乏	
貧	同	[+ 살림·가정]	貧困	[+ 살림·가정] 살림이 힘들다.
困	異	[+ 내용]	不足	
颯	同	[+ 모습]	颯爽	[+ 모습] 늠름하고 씩씩하다.
爽	異	[+ 바람·공기]	爽快	
洗	同	[+ 문장]	洗練	[+ 문장] 간결하고 시원스럽다.
練	異	[+ 옷차림·사람]	明快, 干練	
純	同	[+ 색]	純白	[+ 색] 완전히 하얗다.
白	異	[+ 사람·마음]	純潔	
淳	同	[+ 사람]	敦厚質朴	[+ 사람] 둔하고 소박하다.
厚	異	[+ 날씨]	和煦, 暖和舒適	
齷	同	[+ 품행]	齷齪	[+ 품행] 더럽다. 품행이 비열하다.
齪	異	[+ 죄]	極殘忍	
安	同	[+ 사회·마음]	安寧, 安定,	[+ 사회·마음] 평안하다.
寧	異	[+ 몸·인사말]	健康, 你好	
安	同	[+ 생활]	安逸	[+ 생활] 편안하고 한가롭다
逸	異	[+ 태도]	貪圖享受	
嚴	同	[+ 추론·문장]	縝密, 嚴密	[+ 추론·문장] 틈이 없이 매우 가깝다.
密	異	[+ 목소리 등]	隱密, 秘密	
銳	同	[+ 감각]	靈敏, 尖銳	[+ 감각] 날카롭다. 민감하다.
敏	異	[+ 문제]	敏感	

圓滿	同	[+ 일]	圓滿	[+ 일] 일이 탐탁하다.
	異	[+ 성격·인간관계]	圓滑, 美滿	
慇懃	同	[+ 태도·말]	慇懃, 熱情周到	[+ 태도·말] 열정이 많고 주도면밀하다.
	異	[+ 정취·행동·정]	清雅, 隱密, 慇切	
陰濕	同	[+ 환경]	陰暗, 潮濕	[+ 환경] 어두컴컴하고 습기 많다.
	異	[+ 정서]	陰森	
陰沈	同	[+ 날씨·표정]	陰沈, 鬱鬱寡歡	[+ 날씨] 흐리고 컴컴하다.
	異	[+ 분위기]	陰森	
寂寂	同	[+ 환경]	寂靜	[+ 환경] 아주 조용하다.
	異	[+ 사람·생활]	默默, 無聊	
蒼白	同	[+ 얼굴]	蒼白	[+ 얼굴] 핏기가 없고 해쓷다.
	異	[+ 달빛·불빛]	灰白, 淡淡	
天然	同	[+ 경치]	天然	[+ 경치] 인공적이지 않고 자연적이다.
	異	[+ 시치미·비슷함]	自然, 像	
徹底	同	[+ 감사·설명 등]	徹底	[+ 감사·설명] 철두철미하다. 속속들이 깊다.
	異	[+ 성격]	完整, 完美	
青青	同	[+ 초목]	青青, 茂盛	[+ 초목] 싱싱하게 푸르다.
	異	[+ 강물·하늘]	清清, 湛藍	
超然	同	[+ 입장]	超然	[+ 입장] 대립적인 어느 편에도 들지 않다.
	異	[+ 수준]	卓越	
快活	同	[+ 사람]	高興, 愉快	[+ 사람] 기쁘다
	異	[+ 성격]	開朗, 活潑	

太平	同	[+ 나라]	太平	[+ 나라] 사회가 안정되어 아무 문제없다.
	異	[+ 마음]	悠閑, 安閑, 不以爲意	
透明	同	[+ 물체·청치]	透明, 透光	[+ 물체·청치] 광선이 들어갈 수가 있다.
	異	[+ 말·태도·미래]	明明白白, 分明, 光明	
透徹	同	[+ 판단·분석]	透徹	[+ 판단·분석] 상황 파악이나 사리분별이 철저하다
	異	[+ 비판·의식·사람]	明哲, 徹底, 明確	
特殊	同	[+ 상황·경우]	特殊, 特別	[+ 상황·경우]특별히 다르다.
	異	[+ 수준·능력]	特秀	
偏狹	同	[+ 도량·성격]	偏執狹隘	[+ 도량·성격] 도량이 좁다.
	異	[+ 땅]	狹窄	
平坦	同	[+ 바닥]	平坦	[+ 바닥] 지세가 우툴두툴하지 않고 평평하다.
	異	[+ 마음·진전]	平靜舒坦, 順利	
平平	同	[+ 용모]	普通, 平常	[+ 용모] 좋지도 나쁘지도 않고 평범하다.
	異	[+ 바닥]	平坦	
華麗	同	[+ 옷]	華麗	[+ 옷] 환하게 빛나며 아름답다.
	異	[+ 생활]	奢華	
混濁	同	[+ 공기·물]	混濁, 不干淨	[+ 공기·물] 물이나 공기 등에 불순물이 섞여서 깨끗하지 못하다.
	異	[+ 정치·도덕]	混亂	
荒蕪	同	[+ 논밭]	荒蕪	[+ 논밭] 논밭 따위를 내버려 두어 매우 거칠다.
	異	[+ 글]	雜亂	
寬闊	同	[+ 장소]	寬闊	[+ 장소] 아주 넓다
	異	[+ 도량]	寬容, 心胸開闊	

不安	同	[+ 사회·마음]	不安	[+ 마음]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하다. 미안하다.
	異	[+ 몸]	欠安, 不舒服	
健在	同	[+ 어른]	健在	[+ 어른] 건강하게 살아계시다.
	異	[+ 고건축물]	保存完好	

셋째, 한국어보다 중국어에서 의미가 광범위한 것

(40) 한: ㄱ. 몸이 건강(健康)하다

ㄴ. *사상이 건강(健康)하지 않다.

중: ㄱ. 身體健康

ㄴ. 思想不健康

(40)의 예문에서 형용사 ‘건강(健康)하다’는 한국어에서 ‘사람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무 탈이 없고 튼튼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그런데 중국어에서 ‘건강(健康)’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상, 책, 언어, 회사의 운영’ 등에 모두 사용될 수 있다. 중국어 ‘건강(健康)’이 사람의 몸이나 정신이 튼튼하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정상적이고 결함이 없다는 의미 역시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건강(健康)’이 한국어에 비해 중국어에서 더 확장적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현대 중국어에서 사용되고 있는 형용사 중에는 ‘健康’과 같이 한국어 어휘에 비해 의미가 더 넓은 경우는 많지 않은데, <표 12>와 같은 어휘가 대표적이다.

<표12> 중국어에서 의미 범위가 넓은 동형한자어

단어	異同	중국어		한국어
		사용 범위 및 의미		사용 범위 및 의미
健康	同	[+ 몸]	健康	[+ 몸] 건강하다
	異	[+ 사상]	健全	
天真	同	[+ 성격]	單純, 善良	[+ 성격] 꾸밈이나 거짓이 없고 선량하다
	異	[+ 언행]	傻	
尖銳	同	[+칼끝·사태]	尖銳, 尖利	[+ 칼끝·사태] 날카롭고 뾰족하다. 상황 등이 날카롭고 격하다.
	異	[+ 소리]	刺耳	
聰明	同	[+지력·재주]	聰明	[+ 지력·재주] 오래 기억하는 힘이 있다. 영리하고 재주가 있다.
	異	[+ 시청능력]	好	
親切	同	[+ 태도]	親切	[+ 태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하다.
	異	[+ 느낌]	親近, 親密	
沈痛	同	[+ 심정]	沈痛	[+ 심정] 마음이 괴롭거나 슬프다.
	異	[+ 일]	深刻, 嚴重	
虛弱	同	[+ 사람]	虛弱	[+ 사람] 기운이 없고 약하다.
	異	[+ 국력·군사력]	軟弱, 薄弱	
過密	同	[+ 인구·건물등]	過密, 太集中	한곳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
	異	[+교제·왕래]	親密, 頻繁	
緊密	同	[+ 관계]	緊密, 密切	[+ 관계] 서로의 관계가 매우 가까워 빈틈이 없다.
	異	[+ 빗방울]	緊密, 密集	
喫緊	同	[+ 정보]	重要	매우 중요하다.
	異	[+ 상황]	緊張, 緊急	
切切	同	[+염원·감정]	殷切, 非常懇切	[+ 염원·감정] 매우 간절하다.
	異	[+ 당부]	千萬, 務必	
跌宕	同	[+심정·성격]	盡情, 放蕩不羈	[+심정·성격] 신이 나서 정도가 지나치도록 흥겹다.
	異	[+곡조·문장]	抑揚頓挫	
慘澹	同	[+ 경영·심정]	非常艱苦, 非常傷心	[+ 경영·심정] 끔찍하고 절망적이다. 슬프고 괴롭다.

	異	[+ 날]	光線暗澹	
冷靜	同	[+ 사람]	冷靜沈着	[+ 사람] 생각이나 행동이 감정에 좌우되지 않고 침착하다.
	異	[+ 환경]	冷清, 不熱鬧	
凜凜	同	[+ 모습]	威風凜凜	[+ 모습] 생김새나 태도가 의젓하고 당당하다.
	異	[+ 바람·물기]	寒冷	
明朗	同	[+ 성격·태도]	明朗, 明顯清皙	[+ 성격·태도] 흐린데 없이 뚜렷하다. 유쾌하고 활발하다.
	異	[+ 날씨]	光線充足,	
明快	同	[+ 말·글·성격]	明快, 明朗	[+ 말·글·성격] 내용이 명백하여 시원하다. 명랑하고 쾌활하다.
	異	[+ 밤길·등]	明亮	
散漫	同	[+ 세상·태도]	散漫	어수선하여 질서나 통일성이 없다.
	異	[+ 산업]	分散, 不集中	
生疏	同	[+ 대상·기술]	不熟悉, 不熟練	[+ 세상·태도] 친숙하지 못하고 낯이 설다. 익숙하지 못하고 서투르다.
	異	[+ 관계]	疏遠	
鮮明	同	[+ 색채]	明亮	[+ 색채] 산뜻하고 뚜렷하여 다른 것과 혼동되지 아니하다.
	異	[+ 입장·태도]	明確	
細密	同	[+ 검토·분석]	具體細密	[+ 검토·분석] 자세하고 꼼꼼하다.
	異	[+ 무늬]	精巧細緻	
衰弱	同	[+ 몸·신경]	衰弱, 不强	[+ 몸·신경] 힘이 쇠하고 약하다.
	異	[+ 공세]	由強轉弱	
穩健	同	[+ 행동]	穩健, 穩重	[+ 행동] 생각이나 행동 따위가 사리에 맞고 건실하다.
	異	[+ 걸음]	穩而有力	
悠悠	同	[+ 시간·거라·움직임]	長久, 遙遠, 從容不迫	[+ 시간·거라·움직임] 아득하게 멀거나 오래되다. 태연자박하다.
	異	[+ 언론·감정]	荒謬, 憂傷	
綽綽	同	[+ 물건]	綽綽有余	[+ 물건] 빠듯하지 아니하고 넉넉하다
	異	[+ 영상·견문]	影影綽綽, 不清楚	

넷째, 한·중 한자어의 의미가 유사한 것

(41) 한: ㄱ. 낭자(狼藉)한 전쟁터

ㄴ. 낭자(狼藉)한 웃음소리

ㄷ* 성명이 낭자(狼藉)하다

중: ㄱ. 狼藉의戰場

ㄴ. *狼藉의笑聲

ㄷ. 聲名狼藉(악명이 자자하다)

형용사 ‘낭자(狼藉)하다’는 한국어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여기저기 흩어져 어지럽다’라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악자지껄하고 시끄럽다’라는 뜻이다. 그 중 전자는 중국어에서의 의미가 완전히 일치한다. 하지만 한국어와 달리 중국어에서는 ‘낭자하다’를 ‘명성’, ‘명예’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41, 한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소리가 시끄럽다’라는 의미를 나타낼 때 한국어에서는 ‘낭자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41, 중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이렇듯 하나의 단어가 의미가 일부는 일치하지만, 사용 범위는 일치하지 않는 한·중 동형 한자어 형용사를 정리하면 <표 13>와 같다.

<표13> 의미가 유사하지만 사용 범위에 차이가 있는 동형한자어

단어	일치하는 의미	불일치하는 의미	
		한국어	중국어
狼藉	[+ 장소]	[+ 소리] 악자지껄하다	[+ 명성] 자자하다.
爛漫	[+ 꽃]	[+ 광채·토론] 明媚, (談話)投機/融洽	[+ 성격] 천진난만하다
狼藉	[+ 장소]	[+ 소리] 雜七雜八, 亂哄哄, 鬧騰	[+ 명성] 나쁘다
冷淡	[+태도·반응]	[+ 마음씨] 冷漠	[+ 장사] 잘되지 않고 불

			경기이다.
凜然	[+ 모습]	[+ 추위] 凜烈	[+ 감정] 두려워하다
淡淡	[+ 표정·목소리]	[+ 물·심경·음식] 平靜, 淡泊, 清淡	[+ 흔적·광선 등] 뚜렷하지 않고 모호하다
茫然	[+ 표정·모습]	[+ 산길·바다] 遙遠, 茫茫	[+ 모습·눈빛] 실의하다
明朗	[+ 성격]	[+ 얼굴·웃음·분위기 등] 快活, 明快,	[+달빛·날씨·태도] 광선이 충분하다. 태도가 분명하다.
杳然	[+ 거리·소식]	[+ 기억] 模糊	[+ 환경] 조용하다
無聊	[+ 시간]	[+느낌] 難爲情	[+ 사람] 언행이 속하다.
不實	[+ 사람]	[+ 몸·공사·살림] 不健康, 不結實, 艱難	[+ 열매·말] 흘쭉하다. 믿 음성이 적다
纖細	[+ 손·팔치]	[+ 묘사·숨씨·모습] 細膩, 細緻,	[+ 소리] 가늘고 작다.
安穩	[+ 생활]	[+ 날씨] 和暖	[+ 언행] 침착하고 의젓하다.
曖昧	[+ 말·태도]	[+ 죄·사람] 不白, 糊塗	[+ 남녀관계] 부당하다
儼然	[+ 모습]	[+ 사실] 千眞萬確	[+ 진용·모양] 정연하다. 아주 뒳다.
亭亭	[+ 화목]	[+ 노인] (精神)豐饒, 硬朗	[+ 여자] 늘씬하다
蒼蒼	[+ 바다·나무]	[+ 하늘·앞길] 藍藍, 遠大	[+ 사람] 백발이 성성하다.
清淡	[+ 빛깔·맛]	[+ 사람] 恬淡	[+ 장사] 불경기이다.
堅實	[+ 일]	[+ 생각·태도] 堅定	[+ 몸] 긴장하다
生硬	[+ 문장]	[+ 환경] 生疏, 陌生	[+ 말투·밥] 부드럽지 않 고 딱딱하다.
純潔	[+ 사람·마음]	[+ 물건]	[+ 단체]

		潔淨, 純淨	깨끗하게 하다. 정화하다.
--	--	--------	----------------

나. 유의어 사이에 의미적인 차이점

(1) 의미 경중(輕重)정도의 차이

한국어에서는 의미가 서로 비슷한 어휘를 유의어라고 하고 중국어에는 근의사(近義詞)라고 부른다. 한자어 형용사 중에도 의미가 비슷한 어휘들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예를 들면 ‘비만(肥滿)하다’와 ‘풍만(豐滿)하다’, 둘이다 ‘뚱뚱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전자는 후자보다 뚱뚱한 이미지가 더 강하다. 따라서 ‘비만(肥滿)하다’와 ‘풍만(豐滿)하다’는 의미의 경중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또한 음절의 양에 보면 아주 특별한 경우 ‘미묘(微妙), 묘(妙)’와 같은 것을 제외하면 보통 음절이 많은 다음절 어휘의 의미가 강한다. 예를 들어, 묘(妙)와 기묘(奇妙), 귀(貴)와 귀중(貴重), 명백(明白)과 명명백백(明明白白)과 같이 다음절 어휘의 의미가 강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단음절 한자어가 다음절 한자어를 구성하기 때문에 다음절 한자어는 여러 개의 다음절 한자어와 유의어가 될 수가 있다⁵⁰⁾. 음절수 같은 어휘들을 예로 몇 개만 정리하면 아래 <표 14>과 같다.

<표 14>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 경중

50) 예를 들어 急과 의미 비슷한 한자어가 緊急, 急迫, 時急등이 있다. 이러한 어휘들이 의미 경중 차이의 분석을 복잡하게 만들어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는다.

정 도	重	건강 健壯	고독 孤獨	감격 感激	전아 典雅	존귀 尊貴	기특 奇特	결출 傑出	광활 廣闊	신기 神奇	신속 神速
차 이	輕	건강 健康	고단 孤單	감사 感謝	고아 高雅	고귀 高貴	기이 奇異	우수 優秀	관활 寬闊	신기 新奇	신속 迅速

(2) 감정적인 차이

감정적인 차이 혹은 어감은 한·중 두 언어에서 나타내는 한자어 형용사 감정 색채가 다른 경우를 대해 말하는 것이다. 어휘가 대상을 지칭하거나 개념을 표시할 때, 어떤 경우는 일정한 의미 색채, 즉 뉘앙스를 지니는데, 이를 색채의미라 한다. 이 색채의미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개념의 미⁵¹⁾에 종속하여 존재하기에 부속의미, 또는 부가 색채라 칭하기도 한다. 색채의미는 다시 형상(形象), 감정(感情), 문체(語體), 시대(時代)⁵²⁾로 나눌 수 있다. 감정색채는 사물에 대한 평가나 태도를 표시한다. 좋은 평가는 포의(褒義), 나쁜 평가는 폄의(貶義), 또 중간 경우는 중성(中性)라고 부른다. 한국어와 중국어에 사용하고 있는 한자어 형용사는 비록 서로 다른 어족에 속하지만 어원이 같아 감정 색채도 거의 같은데 특별한 예외도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형 형용사 한자어를 살펴보면 어감이 일치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어감에 따라 한국어와 중국어의 동형 형용사 한

51) 이영주(2000), 『漢字字意論』에 개념의미는 理性義 또는 指稱義라고도 한다. 이것은 어떤 본질적 특성 혹은 특성을 반영하여 그 사물을 지칭하고 다른 사물과 구별하게 하는 것으로 자의의 핵심이 된다. 이는 사물에 대한 사람들의 이성적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전이나 사전에서 정의한 것이 주로 이에 해당한다.

52) 형상색채(形象色彩)는 어휘의 내부 구성 성분을 인하여 사람이 사물에 대한 시각과 청각 등 감각적인 연상이다. 문체색채(語體色彩)는 말투에서 느껴지는 뉘앙스로서 품격색채라고도 한다. 보통 구어체와 문장체로 나눈다. 시대색채(時代色彩)는 일정한 역사나 사회 환경이 어휘에게 부가 주는 시대 정취이고 일반적으로 당대와 역사 두 가지로 나눈다.

자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어감이 일치한 경우이다. 비만(肥滿)과 풍만(豐滿)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이 두 단어 모두 ‘뚱뚱하다’를 의미한다. 그런데 어감적인 면에서 비만(肥滿)에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다.

둘째, 한국어에서만 어감이 부정적인 경우이다. 형용사 ‘小心하다’가 한국어에서는 ‘대담하지 못하고 조심성이 지나치게 많다.’라는 뜻으로 부정적인 뜻이 있다. 중국어에서 ‘小心’이 비슷한 의미를 나타낼 때 사용 가능하지만 단어 자체에 부정적인 뜻이 없다.

셋째, 한국어에서만 어감이 긍정적인 경우이다. 원활(圓滑)하다는 형용사로 사용할 때 한국어에서는 ‘모난 데가 없고 원만하다’와 ‘거침이 없이 잘 되어 나가다’ 등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어에서는 ‘윗 사람에게 아첨하여 비위를 맞추고 일에 이야기만 할 뿐 책임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다.’라는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인다.

넷째, 한국어에서 부정과 긍정적인 어감이 다 있는 경우이다. 가관(可觀)은 한국에서 ‘경치 따위가 꽤 볼 만함’과 ‘꼴이 볼만하다’는 뜻으로, 남의 언행이나 어떤 상태를 비웃는 뜻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국어에서 칭찬과 비웃는 두 가지 뜻으로 다 사용하는 반면에 중국에서는 긍정적인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 화용적인 차이점

(1) 직접 번역할 때의 차이

번역은 인류가 창조적으로 언어를 전환하는 활동이며 직역과 의역 두 가

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한자어 형용사가 들어 있는 문장들을 현대 중국어로 번역할 때도 번역상의 여러 문제가 고려되어야 한다. 형태가 완전 같고 사전에 해석된 의미 항목도 일치하지만 번역할 때 같은 한자어를 쓰지 않고, 또 같은 어휘를 사용해도 둘을 전혀 다른 의미로 번역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어의 형용사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3가지 있기 때문에 한자어 형용사가 들어 있는 문장들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하여 번역하여야 한다. 한국의 한자어의 형용사를 중국어로 번역할 때 발생하는 의미 차이를 수식하는 대상, 어감, 약칭, 그리고 문장 수사법적인 차이에 따라 살펴보았다.

첫째, 수식하는 대상에 따라

(42) 한: ㄱ. 학업이 충실(充實)하다.

ㄴ. 벼 알이 충실(充實)하다.

ㄷ. 회의 내용의 기록이 충실(充實)하다.

중: ㄱ. *學問充實(篤實)

ㄴ. *稻粒充實(飽滿)

ㄷ. *會議內容的記錄很充實(全面)

형용사로 사용하는 한자어 ‘충실(充實)’은 한국어와 중국어에서 다 ‘내용이 모자라지 않고 알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실제 사용할 때는 한국어 형용사 ‘충실(充實)하다’가 사람이나 물건에 다 적용되고 중국어보다 광범위하다. (42)에서처럼 학업과 벼 알은 ‘충실(充實)하다’와 함께 쓰일 수 없어 중국어에서는 비문이 된다. 학문의 범위가 넓고 깊이가 있어야하는데,

‘充’은 중국어에서는 ‘滿(가득하다/차다)’라는 뜻뿐이고, ‘篤(篤)’는 ‘厚(깊다), 豐厚(풍부하고 깊다), 深厚(높고 깊다)’라는 뜻이라서 학문에 더욱 많이 적당한다. 또한 한자‘실(實)’이 ‘만(滿)’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포(飽)’는 기본적인 의미가 ‘배가 부르다’는 뜻이라서 ‘飽滿’이 ‘充實’보다 벼알을 더 구체적이고 생동감 있게 묘사한다. ‘회의 내용이 충실하다’ 한·중 두 언어에서 어색하지 않다. 그런데 위에 ‘회의 내용의 기록이 충실하다’라는 말은 실제로 ‘기록 내용이 충실하다’라는 뜻이고 바로 ‘내용이 모자라지 않고 알차다’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일리에 맞지만 중국어에서는 명사 ‘기록’의 ‘내용’이 아무리 ‘알차다’라 해도 ‘배껴 적은 복제품’ 뿐이라서 ‘충실하다’고 말할 수가 없고, 결함 없이 제대로 기록하면 보통 ‘全面(전반적이다)’라고 사용한다. 특히 ‘記錄’이 동사로 사용할 때는 ‘충실(充實)하다’와 사용할 수 없어 일반적으로 ‘記錄得很全面(충실하게 기록한다)’ 혹은 ‘記錄得很詳細(상세히 기록한다)’로 표시한다.

둘째, 품사에 따라

(43) 한: ㄱ. 모유를 먹고 커서 아이가 충실(充實)하다.

ㄴ. 모유를 먹고 커야 아이가 충실(充實)하게 잘 자란다.

중: ㄱ. *由于母乳喂養孩子很充實(壯實/結實)

ㄴ. *母乳喂養的孩子充實(茁壯)地成長

위에 한국어의 두 문장이 다 한자어 ‘충실(充實)’에 대한 예문인데, 전자는 형용사, 후자는 부사로 사용하고 있다. 품사가 다르기 때문에 번역할 때는 각자 다른 어휘로 표시되고 있다. 사실은 장실(壯實), 결실(結實), 줄장(茁壯) 이 세 개 어휘가 다 ‘건강하여 튼튼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충실(充實)하다’는 ‘건강하여 튼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 어에서 충실(充實)이 형용사로 쓸 때는 ‘내용이 알차다/넉넉하며 풍부하다’라는 뜻이고 동사로 쓸 때는 ‘내용을 충족시키다/내용을 풍부하게 만들다’라는 뜻이다. ‘壯實’과 ‘茁壯’이 사람, 동물 및 농작물에 다 사용 가능하지만 ‘壯實’이 동사를 수식할 수가 없고 ‘結實’과 ‘茁壯’이 동사를 수식 가능하다. 때문에 중국에서 두 예문이 비문(非文)이 되어 ‘壯實, 結實, 茁壯’로 대신 표시한다. 동시에 『孟子』에서는 ‘牛羊茁壯長而已矣’ 말이 있어 그의 ‘茁’은 ‘生長貌(자라가는 모습)’라는 동사성이 있다. (한ㄱ)에서는 ‘모유를 먹어 커서’ 후의 모습을 설명하기 때문에 ‘生長貌’의 뜻이 아니고, (한ㄴ)에서는 아이가 ‘모유를 먹어’ 어떻게 ‘자라’의 상태성을 표현했다. 동작 ‘자라다’에 대해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 중국어에서는 ‘茁壯’보다 ‘壯實, 結實’ 더 정확하고 반대로 ‘충실(充實)하게 잘 자라다’에는 ‘茁壯’이 잘 어울린다.

셋째, 어감에 따라

(44)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냥 듣고 있기가 가소(可笑)롭다.

이 한국어 예문은 중국어로 번역하면 어감에 따라 ‘可笑’, ‘好笑’, ‘搞笑’, ‘荒唐’ 네 개의 형용사로 쓰일 수 있다. 현대 중국어에서는 ‘荒唐’이 ‘황당하다/ 터무니없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다른 세 단어 모두 ‘웃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可笑’와 ‘好笑’는 의미적인 차이는 거의 없다. ‘可笑’가 문어체에 많이 사용하며 격식체이다. ‘搞笑’는 완전 구어체이고 ‘好笑’보다 덜 격식적이다. 의미 경중(輕重)정도 보면 ‘可笑’와 ‘好笑’는 ‘搞笑’보다 강하고 감정적인 면에서 보면 전자의 두 단어 모두 부정적이고 후자는 약간 善意를 의미를 한다. 예를 들어 누구를 위해 일부러 가소로운 짓을 할 때 중

국어에서는 그 행위 자체를 ‘可笑’와 ‘好笑’를 사용하지 않고 ‘搞笑’라고 한다. 또한 ‘可笑’가 ‘갈잡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만약에 지나치게 ‘갈잡다’라면 중국어에서는 ‘터무니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서 바로 ‘荒唐’라고 사용한다.

넷째, 약칭

(45) 한: 건강(健康)식품

중: 健康食品

한국어에서 ‘건강(健康)식품’라는 말이 있고 중국어에서도 ‘健康食品’이라고 한다. 형용사 ‘건강(健康)하다’와 명사 ‘건강(健康)’이 중국어와 일치해서 품사적으로 보면 문제가 없다. 한국의 ‘건강식품’은 ‘건강에 좋은 식품/건강 보조 식품’이라는 의미를 나타낸다. 중국의 ‘健康食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는 ‘保健食品(건강을 지킨 식품)’ 즉 한국어 ‘건강 보조 식품’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健康的食品’ 즉 ‘식품 자체가 상하지 않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사용한다. 한국어 ‘건강(健康)식품’은 ‘健康 보조 식품’라는 말을 줄인 말이며 중국어 ‘保健食品’과 서로 대응한다.

다섯째, 문장 수사법적인 차이

수사법은 효과적·미적 표현을 위하여 문장과 언어를 꾸미는 방법이다. 그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사법은 바로 비유법이다. 비유법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나타내기 위해 다른 사물을 이끌어 쓰

는 수사적 방법이다. 이때 나타내려는 대상을 원관념(元觀念)이라하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끌어들인 매개물을 보조관념(補助觀念)이라 한다. 비유법에는 직유법, 은유법, 의인법 등 여러 가지 있다. 한자어 형용사가 한·중 언어의 표현 방식이나 방법에 따라 수사법적인 차이가 나타난다. 아래에서 살펴보았다.

狡猾

(46) 한: *주인은 새장 안의 구관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 꼬맹이 여간 충명(聰明)한 게 아니야, 무척 狡猾하지!

중: 主人指着鳥籠里的鸚哥說:“小家伙不是一般聰明, 非常狡猾!”

한자어 형용사 ‘충명(聰明)하다’와 ‘교활(狡猾)하다’는 현대 중국어의 ‘聰明’ 및 ‘狡猾’과 의미적인 차이가 없지만 한국의 예문이 비문으로 된다. ‘교활’은 원래 좋지 않은 사물과 언행을 가리킨다. ‘충명하다’는 보통 사람을 묘사하는 형용사인데 ‘구관조’에 사용했으니 의인법이다. 중국어 예문에서는 매우 ‘충명하다’라는 뜻과 새에 대한 주인의 사랑과 애정을 나타내며, 칭찬하는 뜻이다. 따라서 중국어 예문에 형용사 ‘聰明’과 ‘狡猾’을 사용해서 비유법을 실현하다고 말할 수 있다. 이것은 언어 표현 방식 혹은 습관에서 초래한 차이이다.

5.3 한국 한자어 형용사 의미 특징

서론에서 한자어 형용사와 고유어 형용사의 일반적 특징을 설명하였다. 여기서는 앞에 분석했던 의미 및 화용 예문들을 통해 현대중국어 형용사와 동형어인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의 특징을 설명하고 그의 생성원인도 추측

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특징

한자의 기원은 그림이다. 상형(象形), 지사(指事), 회의(會義)는 모두 그림과 관계가 긴밀한 한자의 구성방식이다. 현대 중국어에 가장 많은 형성자(形聲字)도 象形을 바탕으로 변천해왔다. 즉, 한자는 음, 형, 의 가운데 형태와 의미 관계가 아주 긴밀하다. 특히 초기의 상형자(象形字)는 형태를 보면 의미까지 알 수 있다. 중국어에는 없지만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자도 마찬가지로이다. 예를 들면 ‘畚’ 이다.

어의는 어휘의미의 약칭이자 객관적인 사물과 현상을 추론하는 반영이다. 추론이라는 것은 인간 뇌의 사고활동이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 그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추해 냄을 의미한다. 어의는 객관사물과 현상의 추론을 통해 구체에서 추상으로, 복잡함에서 간단함으로 특수에서 일반으로 가는 인식의 전 과정을 이르는 말이다. 그러나 추상, 간단, 일반은 본래 명확한 경계가 부족하고 단지 큰 범위만 존재한다. 따라서 한자어 형용사는 개괄성(概括性) 및 모호성(模糊性)⁵³⁾을 나타낸다. 한자어가 외래어로서 한자어 형용사에 영향을 주고 사용할 때 현대중국어와 다른 점도 나타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의미 개괄성(概括性)

53) 胡明揚(1999:196-197)에서는 어의(語義)의 개괄성과 모호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동시에 단어의 미(詞義)도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의의 개괄적 특성은 어의가 표시하는 객관적인 대상에 귀납하고 개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소아(小兒)’, ‘성인(成人)’, ‘노인(老人)’, ‘남자(男子)’, ‘여자(女子)’ 등 서로 차이가 있는 어휘의 공통점은 ‘사람(人)’ 의미 자질을 가진다는 것이다. 어의의 개괄성을 통해 우리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을 분류해서 종합하여 일정한 어휘로 표시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들의 수를 헤아리기 어렵고 복잡하다. 각자 하나씩 단어로 나타낸다면 어휘의 양은 분명히 현재보다 더 많을 것이다. 어의란 이 많은 사물에 대해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물과의 차이점을 나타낼 만한 특별한 것을 찾아 물건이나 현상들을 반응한다. 어의의 개괄성이 있어 현재 우리는 제한된 어휘들을 통해 무수한 사물을 표시하고 풍부한 내용을 전달할 수 있다. 개괄성은 언어의 필수이며, 사람들은 이를 바탕으로 어휘의 이해에 공통된 인식을 갖게 되어 의사소통을 실현하게 된다.

한자어 형용사는 언어의 한 종류로서 개괄성을 가지고 있다. 韓·中 두 언어를 비교해 보면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가 의미적인 개괄성이 강한 면이 있다. 다음의 예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하겠다.

(47) ㄱ. 아이들이 밤새 요란(搖亂)을 떨었다.

ㄴ. 요란(搖亂)스러운 사람

ㄷ. 요란(搖亂)한 개구리 울음소리.

ㄹ. 요란(搖亂)한 말소리

ㅁ. 요란(搖亂)한 옷차림

ㅂ. 일이 많이 생겨서 마음이 요란(搖亂)하다.

ㅅ. 요란(搖亂)한 몸짓.

○. 시절이 요란(搖亂)하다.

위에 예문들 중에서 ‘요란(搖亂)’은 명사와 형용사로 달리 사용하고 있지만 모두가 ‘시끄럽다, 어수선하다, 어지럽다’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는 현대중국어에서는 각각 ‘鬧騰/嬉鬧(웃고 떠들며 놀다)’, ‘聒噪(떠들썩하다/시끄럽다)’, ‘沓亂(분잡하다)’, ‘繚亂(눈을 어지럽게 하다)’, ‘煩亂(마음이 복잡하고 산란하다)’, ‘手舞足蹈(기뻐 어쩔 줄을 모르다)’, ‘混亂(혼란하다)’이다. 즉 한국어 ‘요란(搖亂)’은 위의 7가지 중국어의 뜻을 모두 포함한다.

(2) 의미 모호성(模糊性)

어의의 모호 현상도 개괄성과 같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모호성은 언어의 기본속성이자 어의의 중요특징이다. 어의의 모호성과 명확성은 대립관계로 어의의 모호성은 어의의 비명확성(非明確性)의 표현형식 중 하나이다. 의미의 모호성은 어의의 내포의미가 정확하지 않고 인간의 인식능력의 국한성과 언어부호의 표현력이 국한되어 있기에 나타난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 사물을 표현하기 위해 사람들은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분명하게 한정지어야 한다. 형용사는 사물의 성질 상태를 나타낼 때 모호성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에서 보면 형용사 단어들의 탄생은 인간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성질·상태·특징의 추상적인 개괄에서 시작한다. 또한 실제 언어교류에서 사람들은 구체적인 언어 환경의 영향을 받아 형용사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하고 언어교류의 목적에 도달한다. 따라서 형용사의 의미에 정확성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한자어 형용사는 모호성 측면에서 보면 중국어에 비해 한국어가

상대적으로 우월하다. 예문은 다음과 같다.

(48) 한: ㄱ. 우주에 견주면 인간은 더할 나위 없이 왜소(矮小)한 존재다.

ㄴ. 광활(廣闊)한 우주

ㄷ. 광활(廣闊)한 국토

ㄹ. 광활(廣闊)한 들판

중: ㄱ. *和宇宙相比人類是極其矮小的。

ㄴ. *廣闊的宇宙

ㄷ. *廣闊的國土

ㄹ. 廣闊的草原

‘왜소(矮小)하다’는 한·중 두 언어에서 다 ‘몸뚱이 작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대 중국어에서 ‘사람’과 ‘우주’의 사이는 ‘모래알 하나’와 ‘사막’의 관계와 비슷하며, 사람은 우주에 비해 아주 미미한 존재로 표현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중국어에서는 ‘渺小(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다/미미하다)’로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에서는 ‘묘소(渺小)’가 ‘왜소(矮小)’에 비해 한결 더 작아서 우리는 ‘왜소(矮小)하다’가 한국어에서는 모호성이 있다고 말할 수가 있다. 한국어에서는 ‘왜소(矮小)하다’가 정확하게 말하면 ‘몸뚱이가 작고 초라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용사 ‘광활(廣闊)’은 두 언어에서 완전 똑같은 뜻으로 ‘막힌 데가 없이 트이고 넓다’로 사용하고 있다. 명사 ‘우주’, ‘국토’, ‘들판’을 면적·크기를 기준으로 보면 사람마다 ‘우주>국토>들판’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어에서 위의 예문은 성립하는 반면에 중국어에서는 각자 ‘浩瀚(호한하

다/끝없이 아득히 멀고 너르다), ‘요활(遼闊)’, ‘광활(廣闊)’로 사용하고 있다. ‘호한(浩瀚)’은 보통 ‘宇宙’나 ‘星空’과 같은 것을 수식하고, ‘요활(遼闊)’은 ‘광활(廣闊)’과 의미가 비슷한지만 ‘광활(廣闊)’보다 더 ‘크고 넓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의로 사용한 ‘광활(廣闊)’은 한국어에서 의미가 모호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3) 의미 투명성(透明性)

투명성(transparency)이란 용어는 일찍이 S.Ullmann(1962:80-93)이 기호의 자의성과 관련하여 각 언어는 음성과 의미 사이에 관련이 없는 자의적이고 불투명한(opaque) 단어들을 가지고 있는 한편, 어느 정도 유연적(motivated)이고 투명한(transparent) 단어도 가지고 있다고 한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Bauer(1983: 19-20)에서는 “한 어휘소가 분명하게 구성 형태로 분석 가능하고, 관련 형태에 대한 지식이 다른 문맥에서 그 어휘소를 해석하는 데 충분하다면 그 어휘소는 투명하다”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의미가 투명한 경우는 구성 형태소의 의미가 유지되어 의미 합성성의 원리로 설명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⁵⁴⁾. 투명성이 한자어 형용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과 기준을 생각해 보기로 하자.

한자어 형용사에 각 한자와 전체 단어의 의미적 관련성은 합성성의 원리에 의해 설명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즉 ‘유익(有益)하다’ 등과 같이 각각 한자의 의미를 알면 전체 형용사의 의미가 파악되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의미가 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⁵⁵⁾. 그러나 ‘유익(有益)’과 같

54) Bauer(2001: 52-53)에서는 의미적 투명성의 결여와 합성성이나 의미적 정합(整合)성(semantic coherence)의 결여를 같은 것으로 보고 있다.

55) 투명성과 대립한 불투명성에도 한자어 어휘 의미적인 특징의 하나이다. ‘깁긴(喫緊)’, ‘무참(無慘)’ 등과 같이 개별 한자의 의미를 알아도 전체 한자어의 의미 파악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가 불투명하다고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투명성만 분석

이 전체 단어의 의미에 각 한자가 의미항목이 하나뿐이면서 그 의미항목을 해석하는 뜻이 기본의미(本義)인 경우는 많지 않다. 대부분 한자는 의미항목이 두 개나 두개 이상인 것이 있고 각 의미항목에 뜻은 본의 혹은 파생의미이다. 따라서 단어의 전체의미는 본의와 파생의미를 통해 추측 가능하다. 앞의 <표 11>와 같이 한국어가 중국어보다 의미범위가 큰 경우는 다 이러한 원인으로 초래된 것이다. ‘각박(刻薄)’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각박(刻薄)’의 ‘박(薄)’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에서는 ‘각박(刻薄)’의 ‘박(薄)’은 ‘정이 없다’, ‘적다’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토양이 메마르다’라는 3가지 뜻으로 해석가능하다. 현대중국어에서 ‘박(薄)’은 세 가지 발음이 있고 뜻도 여러 가지 있지만 형용사 ‘각박(刻薄)’의 ‘박(薄)’은 ‘정이 없다’는 의미만 가지고 있다. 즉, 한자 ‘박(薄)’과 중국어 ‘각박(刻薄)’의 ‘박(薄)’ 의미 차이가 난다. 따라서 우리가 ‘각박(刻薄)하다’는 한국어에서 투명성이 강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자어 형용사가 한국어에서 의미가 광범위한 경우는 중국어의 의미 광범위한 경우보다 양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의미의 투명성 측면에서 한국어가 약간 강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한국의 한자어 형용사는 의미의 투명성과 비슷한 다른 투명성도 있다. 즉 어미의 형태에 따라 그 어휘가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예를 보면 ‘건강(健康)하다’, ‘건강(健康)한’, ‘건강(健康)히’등 어미를 통해 한자어 형용사 ‘건강(健康)하다’가 어떠한 문장 성분을 하는지 쉽게 알 수 있다.

(4) 어형(語形)의 안정성(穩定性)

한다.

‘안정성’은 어순도치에 대한 것이다. 중국어는 단음절부터 다음절로 발전해 왔다. 단음절 위주로 사용한 역사단계에 ‘일자다용(一字多用)’한 경우가 아주 보편적이었다. 한자 하나가 사용의 상황에 따라 의미와 음, 그리고 품사 종류가 다양하게 표현되었다. 다음절 어휘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에도 一字多用의 현상이 흔히 보인다. 그러나 옛날에 사용했던 대부분의 단음절 한자가 현재의 다음절 어휘 위주로 사용한 시기에서는 자립성을 상실되지만 다음(多音), 다의(多義), 多性(품사종류가 많다)의 현상은 그대로 유지해서 다음절 어휘에서 자유 형태소로 된다. 따라서 韓·中 두 언어의 쌍음절 어휘에 앞의 ‘역순어’에 살펴보았듯이 어순이 도치할 수 있다. 사전에 의거하면 두 나라 언어에 어순도치가 가능한 경우 비슷한 반면에 실제 사용할 때를 보면 중국어의 어순 도치가 한국어보다 높은 편이다. 그리고 중국어의 어순 도치에는 임시성(臨時性)과 지역성(地域性) 있다.

임시성은 중국어 문학작품에 임시로 쌍음절 단어를 어순도치로 사용할 때 나타난다. 중국어의 시에서는 항상 압운(押韻)을 사용하였고 성운의 조화 등 운율의 수요에 의해 두 한자의 순서를 전도시켜 사용하였다. 이는 어순도치의 생성을 촉진한 원인의 하나로 보인다. 그리고 현대에 와서 시나 소설, 수필에서 수식적인 요구나 문장 전체 유창도의 수요 혹은 동일한 어휘를 중복하지 않도록 표현하기 위해 도순도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소 순서가 도치되어도 의미가 변하지 않는 어휘에만 국한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지역성은 표준 중국어에서 단어는 도치할 수 없지만 지방의 언어에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원대(遠大)’와 ‘관대(寬大)’, 산둥성(山東省)의 어떤 지방 언어에서 각자 ‘大遠(아주 멀다)’와 ‘大寬(아주 넓다)’로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들을 하나씩 고찰하면 불가하지만 양이 많다는 예상이 된다. 또 현대 중국어의 개념에서 ‘……方語爲基礎(지방 언어 기초로)’라는

말이 있어 현대 중국어에도 이 지역적인 어순도치의 경우가 있다는 사실이 확실하다. 정리하면 중국어에 형용사의 어형은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어의 다음절 단어 사용 보편화에 따라 부분의 한자어 형용사가 중국어에서는 형태적인 불안정성(不穩定性을) 초래했다. 예를 들어 한자어 형용사 ‘극렬(極烈)하다’의 ‘극(極)’은 현대 중국어에서 주로 단어를 만든 형태소로 사용하고 있어 ‘極’을 대신 사용하는 단어가 ‘비상(非常)’ 등이 있다. 따라서 한자어 형용사 ‘극렬(極烈)하다’는 중국어에서 보통 ‘非常烈’ 혹은 상황에 따라 ‘極其○烈’⁵⁶⁾로 사용한다. 그러나 문어체에 ‘酒性極烈’, ‘藥性極烈’, ‘性子極烈’ 등 ‘○○極烈’라는 어휘도 많이 쓴다. 한자어 형용사 ‘극렬(極烈)하다’의 ‘極’과 같이 이룬 어휘가 형태적으로 불안정성이 있는 한자들은 ‘막(莫)’, ‘무(無)’, ‘미(未)’, ‘지(至)’, ‘비(非)’, ‘소(所)’, ‘심(甚)’ 등이 있다.

(5) 문체적

한자어가 한국에 들어온 초기에는 주로 나라의 공문 및 귀족 계급 속에서 서한에 쓰이고, 보통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는 한자어 말고 고유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백성들은 한자어의 상용이 자유롭지 못했을 것이다. 한자어는 한국에 유입된 초기에 문어체로만 사용되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일상용어에 포함되기 시작 했다. 그러나 문어체의 특징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자어 형용사도 그러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표 2>를 보면 한자어 형용사의 사용빈도가 고유형용사에 비해 많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어에서는 한어가 모어로서 문어체는 물론이고 구어체에도 소수 민족을 제외하면, 그것의 사용은 아주 광범위하다. 그리고 현대 중국어의 개념에도 ‘……方語爲基礎(지방 언어 기초로)’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국

56) ‘極其○烈’은 문맥에 의거하여 ‘極其強烈’, ‘極其激烈’, ‘極其猛烈’ 등 여러 가지 가능하다.

어보다 한자어 형용사는 중국어에서 구어체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사전에서도 단어를 해석할 때는 ‘방어(方言)’로 표시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書>(즉, 문어체에만 사용한 뜻이다)’로 표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 대상 중 의미를 해석할 때 전자로 표시하는 형용사의 어근은 냉정(冷靜), 명쾌(明快), 안온(安穩) 등 있고 후자로 표시하는 경우는 흥흥(洶洶), 악착(齷齪), 유유(悠悠), 장황(張皇), 적연(寂然), 처연(淒然) 등 있다.

(6) 의도성(意圖性)과 조절성(調節性)

의도성(intentionality)은 어떤 대상에 유의하거나 반응하는 의식의 특징이다. 의도적 대상은 반드시 실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것은 정신적이나 심리적 행위가 목적하는 바를 뜻하는 것이므로 상상적인 것을 수도 있다. 형용사도 이러한 의도성 의미특징을 갖추기 때문에 일부의 한자어 형용사도 의미에서는 의도성이 나타나 행위를 묘사하는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아래의 예문들 보자.

(49) 한: ㄱ. 잠시의 행복에 만족하지 마라.

ㄴ. *각박(刻薄)하지 마라.

중: ㄱ. 別滿足於一時的幸福.

ㄴ. 別太刻薄!

위의 한·중 문장 서로 대응한 것이다. 문장 (한ㄱ)에 한자어 형용사 ‘만족하다’가 어미 ‘-지 마라’ 붙어 부정한 뜻이 나온 의도를 분명하게 표시한다. 이거는 ‘만족(滿足)하다’가 동사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동

사로 사용 가능한 한자어 형용사는 ‘무리(無理)하다’, ‘조신(操身)하다’, ‘행복(幸福)하다’, ‘겸손(謙遜)하다’등이 있다. 이에 반하여 ‘각박(刻薄)하다’와 같이 형용사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어에서는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의도성이 사람의 활동을 표시하기 때문에 조절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의도성 있는 한자어 형용사는 조절성이 있다. 의도성이 없는 한자어 형용사에도 조절성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단어들이 예문으로 표시하고자 하면 다음과 같다.

- (50) 한: ㄱ. 너무 과분(過分)하다/당황(唐慌)스럽다
 ㄴ. 조금 위험(危險)하다/소심(小心)하다

이 두 가지 문장들이 중국어에서도 모두 사용할 수 있고 보통 ‘너무’가 ‘非常’로 ‘조금’이 ‘一點(兒)’로 쓰인다. 단지 중국어에서 이러한 조절성이 있는 한자어 형용사가 한국어보다 아주 많은 편이다.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 중에 중국어 형용사의 의도성과 조절성이 강하게 보인다. 왜냐하면 중국어에서는 동사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고대 중국어에는 형용사술어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 경우가 보인다. 현대 중국어 형용사가 동사화(動詞化) 용법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喻芳葵(1987:99-100)에서 말했던 고대 중국어 형용사가 동사화(動詞化) 원인과 같은 두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 중국어의 형용사와 동사는 엄격한 의미의 형태 변화가 없으므로, 아무런 형태 변화 없이 바로 술어로 쓰이는 것과 같은 공통점이 많다는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동사와 형용사가 같은 범주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둘째, 간결·명쾌하고 생동감이 있는 표현을 추구

하려는 중국인의 언어 습관 때문이다. 형용사를 동사처럼 사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언어 습관의 반영이다. 예를 들어: 亏了我一个, 幸福了十亿人(나 혼자 고생하여 수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었다. 그중 ‘幸福了十亿人’은 ‘使十亿人幸福(십억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다)'))

‘행복(幸福)’은 본래 동작성이 없으면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정지 상태의 형용사인 데, 동태조사(動態助詞) ‘了’가 첨가되고 목적어가 와서 변화적인 의미 즉 한국어의 ‘행복해지다’와 비슷한 뜻을 나타내는 동작성(動作性)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⁵⁷⁾.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미가 목적어에까지 영향을 주어 문장을 더욱 생동감 있고 간결, 명료하게 해주고 있다. ‘使’자를 사용하여 뒷부분을 ‘亏了我一个, 使十亿人幸福了’로 표현했더라면 문법과 의미적인 아무 문제없지만 생동감이 떨어지고, 생경하고 단조롭게 느껴진다.

이러한 형용사의 동사화 용법을 통해 문장을 더욱 생동감 있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만든 현상은 한국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손호민(1978:171-185)은 ‘...게 하다’형의 긴 형 사동형과 활용어미 ‘시키-, -히-’ 등이 쓰인 짧은 형 사동형에 대해 언급하면서, 짧은 형 사동형이 의미적으로 좀더 직접적이라는 J. Ross의 가설을 이용하여 직접성 이론을 긴 형 사동형과 짧은 형 사동형에 적용·연구한 바가 있다.

나. 형성 요인

언어는 명칭과 의미, 즉 소리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뜻의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내용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한 세대

와 시대 속에서 쉬지 않고 변화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나 시대로 옮겨지면서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생성→변화→발전→사멸의 길을 밟으면서 살아 움직인다. 한자어 형용사도 이 순서에 따라 발전하면서 변화해 온다. 이러한 변화 때문에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가 공시(共時)와 통시 측면에서 차이점이 생긴다. 의미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학자들의 많은 견해가 있으나 그 중에서 S.Ullmann의 견해는 가장 범주가 크고 체계적이어서 언어 일반에 공통으로 적용된다⁵⁸⁾. 여기서는 앞에 분석했던 한·중 한자어 형용사 가운데 차이점과 공통점 생성 원인은 다음과 같다.

(1) 역사적

통시적 요인에 의한 의미 변화는 바로 역사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이 잠시도 쉬지 않고 변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모든 언어는 역사적 원인에 의하여 의미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한자어는 한국어 어휘의 중요한 일부로 차지하고 있지만 외래어라는 본질적인 면을 벗어 버리기 어렵다. 한자어 형용사가 지닌 보수성을 이러한 자질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나라의 언어가 다른 나라로 수출되었을 경우 그 언어를 수입한 나라에서는 비교적 보수적인 입장에서 차용어를 보존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⁵⁹⁾. 중국에서 한국으로 수입된

58) 박영순(1994)에서는 의미 변화의 원인에 대하여 Meillet(1905)는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으로 3분했고, Nyrop(1913)은 심리적 원인을 추가하였으며 S.Ullmann(1962)은 다시 외국어의 영향과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 이 두 가지를 추가 하였다고 하고, 즉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외국어의 영향 및 새로운 명칭의 필요성 이 여섯 가지 원인에 따라 한국어의 의미 변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용주(1972), 심재기(1981)등에서도 S.Ullmann의 견해를 소개하고 한국어에 적용시켜 한국어의 의미 변화를 논하였다.

59) 박병채 (1987:13)에서는 언어 차용국의 보수적 성질은 음운적인 면, 형태적인 면에서도 공통으로 보여 지고 있는데 오늘날 한국 한자음, 安南 한자음이 중국의 고대 음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는 데에서도 이는 증명된다.

수많은 한자어 형용사들은 현재 중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거나 혹은 사용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의미는 이미 원래의 뜻을 벗어난 것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한국에서 이러한 한자어 형용사들은 고전에서 쓰이던 본의 대로 쓰이거나 적어도 본의와 상당히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S.Ullmann(1962)은 의미 변화의 원인으로 인접하는 외국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차용어의 유입 과정에서 나타나지만 반드시 언어의 차용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의미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아편전쟁(鴉片戰爭) 이후에는 일본을 통해 대량의 한자어가 중국과 한국에 수입되었다. 또한 한국은 日帝強占期 동안 일본에 있던 한자어의 영향을 받은 것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2) 사회적

언어를 사회 현상이라고 볼 때 사회의 변화에 따라 언어의 형태나 의미가 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무릇 한 사회는 그 내부에 특수한 사회 집단들을 포괄하는 모양으로 존재한다. 중국은 鴉片戰爭이 나기 전에 경제적으로 발달하고 정치적으로 강한 東方禮儀之國로서 현재의 한국을 비롯한 주변 나라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한국은 중국의 한자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나라였다. 이는 1446년에 훈민정음이 반포되었지만 널리 보급되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이다.

아편전쟁 이후부터 중국이 나라의 巨人에서 간난하고 쇠약한 나라로 되기 인해 현재의 한국 사회 집단들이 중국과 오래 사용했던 한자를 좋지 않은 심지어 악한 감정을 생겨 감상적 애국론(愛國論)에서 한자 폐지론이 발상되었다. 물론 나중에 학자들이 한자폐지로 인한 불편을 다시 정확히 인

식했다고 해도 이미 한국의 한자사용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우리가 한자의 폐지는 한·중 한자어 형용사의 차이점 특히 체의 차이에 크게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3) 심리적

언어활동은 인간의 정신 작용이며 심리적 작용에서 비롯되는 현상이다. 언어가 인간의 심리적 작용에 의한 산물이라는 것은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의미 변화의 요인 중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심리적인 요인이다. 남기심(1998:269)에서는 심리적 원인에 의한 의미 변화란 어느 두 말의 의미가 서로 비슷하거나 또는 근접하여 나타나는 일이 많을 때 심리적인 연상 작용에 의하여 한 쪽의 의미가 다른 쪽에 전이하거나 은유의 형태로 뜻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는 대부분 인간 심리 작용의 표현이므로 의미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심리적 요인이 개입한다. 그리고 민족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 표시 습관도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물, 흥미가 있거나 두려운 사물, 직접적으로 지시하기 어려운 사물, 기대하고 싶은 사물 등에 다른 사물을 적용시켜 표현하려는 심리적 차이를 생겨 전이의 대상과 은유의 방식 등이 다르기도 한다. 따라서 한·중 한자어 형용사도 많은 부분이 이러한 심리적 원인에 의해 변화되었다.

(4) 어휘 양적

여기서 말하던 어휘의 양적인 차이는 한·중 두 언어에서 있는 한자어에 대한 말이다. 한국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자어는 외래어보다 아주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한자어도 한

국어에서 하나의 외래어일 뿐이다. 앞의 ‘고유어 형용사와 한자어 형용사의 10위 사용빈도 높임 표’의 분석에 이미 증명했듯이 같은 형용사로 사용하고 있어도 고유어 경우가 한자어보다 압도한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어의 양적으로 보면 한·중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와 사용상의 차이를 다시 인정할 수 있다.

광복 이후 1951년 한국의 문교부(지금의 교육부)가 제정·발표한 교육한자 1,000자를 정했고 1957년 300자를 추가하여 1,300자가 되었다. 그 후 1972년 다시 1,800자의 교육용 기초한자를 제정 공표하였고 지금까지 변함없이 그대로 사용해 왔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國家語言文字工作委員會가 1986년부터 사용자의 연구 시작하여 1987년에 ‘現代漢語常用字表’를 발급하고 제일 상용자가 2,500자로 두 번째 상용한자를 1,000자로 정했다. 숫자만 보면 한·중의 한자의 차이가 1700개 밖에 없지만 실제로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에는 현재 중국에 없는 것 혹은 한국 사람이 직접 만든 글자도 있기 때문에 양적인 차이가 1700 개 보다 많은 것이다. 중국의 3,500자가 더 많은 어휘를 생성하고 2009년에 중국의 商務印書館에서 ‘現代漢語常用詞表(草案)’을 제정하여 상용어휘를 56,008개로 정했다. 어휘 수가 많을수록 비슷한 뜻을 표시한 어휘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고, 사용할 때 그 차이점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범위에 한계를 만든다. 따라서 한·중 한자어 형용사의 의미와 사용범위적인 차이점을 발생되었다.

V. 결 론

한자 하나가 몇 개음을 가지고 있어 서로 교차 중복된 경우는 많이 있다. 중국어에서는 성조를 사용하여 음을 구분하는데 한국어에서는 성조가 없어서 몇 개의 한자어 형용사가 같은 한글로 표기하는 경우가 많다.

한자어 형용사는 한자어 어근과 접미사의 형태로 구성된다. 그리고 어근과 접미사는 자립성 유무에 따라 [+ 자립]과 [- 자립]으로 구분된다. 자립성이 있는 접미사는 조어력이 거의 없는 편이고 [-자립]의 접미사는 ‘-하다’의 조어력이 제일 강하고 그 다음에는 ‘-스럽다’, ‘-롭다’이다. ‘-하다’는 ‘어근이 있는 성질이나 상태가 있다’라는 의미이며, ‘-스럽다’와 ‘-롭다’는 ‘어근이 있는 성질이나 상태’가 되지 못하고 ‘그러한 성질이나 상태와 비슷함’이라는 속성이 있다. ‘-스럽다’와 ‘-롭다’는 의미가 많이 비슷하다. 그러나 몇몇의 단어를 통해 두 접미사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즉 ‘-스럽다’는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특징이 뚜렷하고 ‘-롭다’는 약간의 객관적인 본질성에 근거를 둔다. 3개 접미사의 관계는 객관적인 본질성에 보면 ‘-하다’ > ‘-롭다’ ≥ ‘스럽다’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중에게는 ‘-스럽다’와 ‘-롭다’는 보통 같은 것으로 사용하고 있다.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에서는 ‘-스럽다’ 혹은 ‘-롭다’만 결합할 수 있는 어근은 명사 밖에 없다. 그리고 ‘-롭다’는 주로 긍정적인 어근과 결합하고 ‘-하다’, ‘-스럽다’는 긍정과 부정적인 어근이 결합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스럽다’는 어근의 음운론적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 ‘-롭다’는 어근이 모음이어야 한다는 제약을 받는다.

어근의 특징을 보면 한자어 형용사 중 어근이 자립성이 있는 경우가 많

다.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은 보통 의미를 지닌 자립성을 가진 어휘이다. 주로 명사와 부사로 사용하고 있다.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들은 동작성, 상상성, 심리성이 있다. ‘-하다’로 이룬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은 동작성인 것이 많다. ‘-스럽다’는 심리적인 어근과 많이 결합하고 ‘-롭다’는 상태성의 어근 뒤에 붙어 형용사를 이룬다. 또한 한자어 형용사의 어근이 중국어에선 품사 종류의 상태를 보면 대부분은 ‘-하다’와 결합한다. 일부가 동사로 되어, 형용사로 사용되기도 한다. 어근이 ‘-하다’와 결합하여 동사로 되면 보통 접미사 ‘-스럽다’와 형용사로 이룰 수 있다. 그리고 대부분은 심리성을 지니고 있는 어근들이 ‘-스럽다’와 결합한다. 심리성이 있는 어근이 ‘-롭다’와 형용사를 이룰 수 없는 이유는 ‘-롭다’가 ‘-스럽다’보다 약간의 자질성이 있기 때문이다. 중국어에서 명사로 사용할 수 있을 때는 [+ 자립] 접미사와 많이 붙어 형용사를 이룬다.

의미적인 내용은 본 연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한·중 동형 한자어 형용사는 두 언어에서 통시적으로 보면 의미 차이에 변화가 있다. 중국어는 근대 역사를 바탕으로 새로운 어휘도 많이 생성되어 원래 한국과 의미가 일치하던 형용사들이 의미 범위가 축소된 현상으로 인해 ‘한국의미 > 중국의미’의 경우가 많이 있다. 반대로 ‘한국의미 < 중국의미’의 한자어 형용사 양이 많지 않는다.

한·중 동형 한자 형용사의 의미 비교는 사전과 화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기존 연구들에서 동의적인 내용을 이미 많이 제시하였고 따라서 여기서는 차이점만 설명하려고 했다. 동형의 한중 한자어 형용사들이 두 언어의 사전에서 나타나는 의미 차이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사전의 의미와 예문들을 정리 분류 시키고 동형의 한·중 한자 형용사 두 언어에 사용범위를 정리했다. 그리고 화용에 나타난 의미의 차이점은 의미 감정, 품사, 수사, 조절성과 직접 번역할 때의 차이 등으로 나누었다. 의미 분석을

통해 한국어 한자 형용사가 개괄성, 모호성, 투명성과 온정성이 중국어보다 강하고, 의도성 및 조절성은 중국어보다 약하고 문체적으로 보면 중국어의 경우가 한국어보다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중국인 학습자에게 중국에서 사용하는 동형의 한자어 어근이 한국어에서 품사활용을 위해 접미사와 결합하여 사용된다는 점을 인식하고 중국어 한자어 어형과 동일한 한자어 어형을 대상으로 접미사 ‘-하다, -스럽다, -롭다’의 선택에 대한 분석을 한 것이다.



참고 문헌

1. 사전

- 국립국어원(1999), 『표준국어대사전』, 두산동아.
- 김민수(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 김현철(2000), 『뉴밀레니엄 韓中사전』, 진명출판사.
- 백문식(2004), 『(어휘력 향상을 위한)우리말 파생어 사전』, 삼광출판사.
- 손예철(2006), 『동아 중·한 사전』, 두산동아.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1998), 『연세 한국어 사전』, 두산동아.
- 李億民(1995), 『現代漢語常用詞用法詞典』, 北京語言文化大學出版社
- 주양곤(2004), 『한·중 한자어 비교사전』, 동양문고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2011), 『新華詞典』(第11版), 商務印書館.
- 中國社會科學院語言研究所詞典編輯室編(2012), 『現代漢語辭典』(第6版), 商務印書館.
- 국립국어원 표준대사전, <http://www.korean.go.kr>
-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 ‘漢典’ <http://www.zdic.net/>
- ‘中文幫助’ <http://www.chinesehelper.cn/>

2. 한국 자료

(1) 단행본:

- 김건환(1996), 『대비언어학』, 청록출판사.
- 金光海(1989), 『국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국어학회.

- 金敏洙(1981), 『國語意味論』, 일조각.
- 김봉주(1984), 『형태론』, 한신문화사.
- 김정남(2005), 『국어 형용사의 연구』, 태학사.
- 김진형·김경남(2008), 『형태론』, 한국문화사
- 김진호(2010), 『외국어로서 한국어학 개론』 (개정판), 박이정, p18
- 김창섭(1999:1)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 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원.
- _____(2008), 『한국어 형태론 연구』, 태학사.
- 노명희(2005), 『현대국어 한자어 연구』, 국어학회.
- 朴英燮(1995), 『國語漢字語彙論』, 박이정, p.7.
- 서정수(1996), 『국어분법』, 한양대학교출판사, p726
- _____(2006), 『국어분법』 (수정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 송철의(1992), 『국어의 파생어 형성 연구』, 태학사.
- 신기상(2005), 『현대국어 한자어』, 북스힐.
- 유길준(1909), 『대한문전』, 역대문법대계 1-16, 탑출판사
- 유현경(1998), 『국어 형용사 연구』, 한국문화사.
- 李庸周(1974), 『한국 한자어에 관한 연구』, 三英社.
- 이영주(2000), 『漢字字義論』, 서울대학교출판부.
- 이익섭(2000), 『국어학개설』, 학연사.
- 임지룡(1992), 『국어 의미론』, 탑출판사.
- 임지룡·김동환(2010), 『의미론의 이해』, 한국문화사
- 정렬모(1946) 『신편고등국어문법』, 역대문법대계 1-61, 탑출판사.
- 주시경(1910), 『국어 문법』, 박문서관.

주시경(1910), 『국어문법』, 역대문법대계 1-11, 탑출판사.
 최광옥(1908) 『대한문전』 역대문법대계1-5 탑출판사.
 최현배(1937), 『우리말본』, 정음사.
 _____(2012), 『우리말본』(특별보존본),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황화성(2001), 『국어 헛내 단위의 의미와 단어 형성』, 月印

(2) 연구 논문

김광해(1992), 「고유어와 한자어의 대응 현상」, 『국어학 총서』 16, 국어학회.
 김건희(2005), 「한국어 형용사의 논항 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규철(1980), 「漢字語 單語形成에 관한 研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_____(1997), 「한자어 단어형성에 대하여」, 『국어학』 29, 국어학회.
 김성규(1987), 「어휘소 설정과 음운현상」, 『국어연구』, 77.
 김일병(2000), 「國語 合成語의 構造와 形成 研究」,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남(1998), 「국어 형용사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정은(1995), 「현대 국어의 단어형성법 연구」, 숙명여자대학교박사학위논문.
 김중섭(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 한자교육 연구」, 『어학연구』 33, 한국어문 교육 연구회.
 김찬화(2005), 「한·중 감각형용사 의미 연구」, 인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창섭(1984), 「형용사 파생접미사들의 기능과 의미」, 『진단학보』 58, 진단학회.
 _____(1994), 「국어의 단어 형성과 단어 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

_____(1999), 『국어 어휘 자료 처리를 위한 한자어의 형태·통사론적 연구』, 국립국어원.

金昌植(1986), 「國語 漢字語의 構成에 對한 考察」, 『安東大學論文集』 8, 安東大學, p32

노명희(1997) 「한자어 형태론」, 『국어학』 29, 국어학회, 309-339

_____(1998), 「현대국어 한자어의 단어구조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_____(2008), 「한자어의 구성성분과 의미 투명도」, 『국어학』 51, 국어학회.

도원영(2002), 「국어 형용성 동사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노해임(2011), 「한글문헌에 나타난 한자어 사용 양상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류영기(2000), 「중국어학습상의 어휘 오류현상」, 『중국어언어연구』, 한국중국어언어학회.

苗春梅(2006), 「韓國 漢字語 慣用表現의 類型 研究」,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문연희(2007), 「한·중 한자어 의미 대비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閔賢植(1984), 「-스럽다, -롭다' 接尾辭에 대하여」, 『국어학』, 국어학회.

박상진(2012), 「국어 감각형용사의 의미변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박영섭(1987), 「國語 漢字語의 起源的 系譜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형익(1997), 「현대 한국어 형용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방영심(2011), 「근대국어 형용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배수자(2007),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창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서중서(1975),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1월15일
- 성환갑(1980), 「한자어 대신현상에 대한 일고(一)」, 『人文學研究』 7-8, 中央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 _____(1983), 「固有語의 漢字語 代替에 관한 研究」 中央大學校 박사학위 논문, p3.
- _____(1987), 「固有語의 漢字語化 過程」, 『국어생활』, 국어연구소.
- _____(2004), 「語文規定에 나타난 語彙化 現象 研究」, 『人文學研究』, 중아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손금추(2011), 「한·중 어순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손동주·채영희·김창경(2003), 「韓·日·中 3國의 漢字의 受容과 變容」, 『동북아 문화연구』,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 손세모들(2000), 「국어 색채어 연구」, 한말연구6, 한말연구학회.
- 손해서(2009), 「한국어 한자어 형용사에 대응하는 현대 중국어 어휘연구」, 『부산 한글』 28, 한글 학회 부산 지회.
- 손해서(2013), 「한·중 의태어 어순 비교」, 『중국학』 45, 대한 중국학회
- 宋基中(1992), 「現代國語 漢字語의 構造」, 『한국어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p12-16.
- 辛基相(2005), 「漢字語의 國語化에 대한 연구」, 『語文研究』,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신순자(1996), 「형용사의 분류」, 『語文論集』 6, 숙명여자대학교 어문학연

구소.

_____(1996), 「現代 國語의 形容詞 研究」, 淑明女子大學校 박사학위논문,
p9.

심재기(1987), 「한자어의 구조와 그 조어력」, 『국어생활』, 국어연구소.

오문의(1994), 「現代中國語形容詞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왕단(2005), 「한·중 형용사 대비 연구」, 『국어국문학』, 국어국문학회.

이근효(1996), 「現代 漢語의 形容詞 研究」, 『中國問題研究』 8, 경성대학교 중국문제연구소.

이득춘(1994), 「한국 한자어와 중국어의 대조에서 나타나는 구조적 및 의미적 차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연세대학교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이명숙(2010), 「現代漢語形容詞作狀語現象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미지 (2012), 「한국어 교육을 위한 감정표현 어휘 연구」 부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이상정(2012), 『한·중 한자어의 의미 및 번역에 대한 연구』, 선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상태(1993), 「국어 접속문의 통사론적 연구」,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홍매(2009), 「정도부사 “극히”와 “심히”의 의미, 통사적 특성 고찰」, 『국어교육연구』,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임두학(1998), 「현대 한국어 형용사 연구」, 경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장호득(2009), 「‘X[漢字語]+하다’로 본 한중 통사구조 생성과정 및 어순처리 비교 연구」, 『동북아 문화연구』, 동북아시아 문화학회.

장효민(2013), 『漢語兼類詞의 語法特徵 및 統辭構造에 관한 考察』, 단국대학교 박

사학위논문.

정경애(2004), 「우리말 실사의 접두사 되기 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정민영(2000), 「국어 한자어의 조어 특성」, 『인문과학연구』 9, 서원대학교인문과학연구소.

鄭成美(2006), 「‘-하다’ 형용사의 형태 구조와 논항 구조 연구」,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원수(1988), 「한자어 단어형성의 특성」, 『어학연구』 18, 충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어문연구회.

_____(1991), 「국어의 단어형성 연구」, 충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인수(1994), 「국어 형용사의 의미 자질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재윤(1989), 「국어 감각동사의 의미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호성(2007), 「국어 접미사의 통시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조세용(1985), 「漢字語의 改鑄·歸化 現象에 대한 研究 序說(Ⅱ)」, 『論文集』, 건국대학교 부설 중원인문연구소.

주송희(2012), 현대 한국어 공간형용사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채옥자(2004), 「韓國한자어와 中國現代漢語語彙의 비교 연구」, 『이중언어학』 4, 二重言 語學會.

최규일(1990:394), 「한자어의 어휘 형성과 한자어에서의 접사 처리문제」, 『국어학논문집』, 태학사.

최영애(1989), 「中國 文字改革」, 『국어생활』 17, 국어연구소, p115

중국자료

(1) 단행본

- 高遠(2002), 『對比分析與錯誤分析』, 北京航空航天大學出版社.
- 高名凱·石安石(1962:19) 『語言學概論』, 中華書局, p19.
- 郭銳(2002), 『現代漢語詞類研究』, 商務印書館.
- 金基石(1997) 『朝漢語語彙對比』, 延邊大學出版社.
- 劉叔新(1990/1995), 『漢語描寫詞彙學』, 商務印書館.
- 柳英綠(1999), 『朝漢語語法對比』, 延邊大學出版社.
- 劉月華(2001), 『實用現代漢語語法』, 商務印書館.
- 劉沛霖主編(2004), 『韓漢大詞典』, 商務印書館.
- 馬真(1988), 『簡明實用漢語語法』, 北京大學出版社.
- 白林·崔健(1991), 『漢朝語對比和常見偏誤分析』, 北京 教育科學出版社.
- 北大現代漢語教研室(2006), 『現代漢語』, 商務印書館.
- 徐烈炯 (1990/1995) 『語義學』, 北京 語文出版社.
- 呂叔湘(1984), 『漢語語法論文集(增訂本)』, 商務印書館.
- (2002), 『現代漢語八百詞』, 商務印書館.
- 呂叔湘·朱德熙(1952), 『語法修辭講話』, 中國青年出版社.
- 王力(1993), 『漢語詞彙史』, 商務印書館.
- 王立廷, 沈基松, 張小平(1998), 『縮略語』, 新華出版社.
- 張國憲(2006), 『現代漢語形容詞功能與認知研究』, 商務印書館.
- 丁聲樹(1961), 『現代漢語語法講話』, 北京 商務印書館
- 鄭懷德·孟慶海(1991), 『形容詞用法詞典』, 湖南出版社.
- 曹常紅(2009), 『現代漢語語法』, 湖南師範大學出版社

趙元任(1959),『語言問題』,北京 商務印書館.

周建設(2001),『現代漢語』,人民教育出版社, p242.

朱德熙(1980),『現代漢語形容詞研究』,商務印書館.

_____(1980),『現代漢語語法研究』,北京 商務印書館.

_____(1982),『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_____(1985),『語法答問』,北京 商務印書館.

周薦(2004),『漢語詞彙結構論』,上海辭書出版社

崔奉春(1989),『朝韓語語彙對比』,延邊大學出版社.

許慎·段玉裁(1988),『說文解字注』,上海古籍出版社.

許余龍(2002),『對比語言學』,上海外語教育出版社

何兆熊(1989),『語用學概要』,上海教育出版社.

胡明揚(1999),『語言學概論』,語文出版社.

黃伯榮(1991),『現代漢語教程』,青島出版社. p337-338.

(2) 연구 논문

金敏呈(2001),「中韓漢字動詞比較研究」,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김정은(1999),「現代漢語完句成分研究」,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劉世剛(1997),「中、日、韓三國漢字一體化的初步設想」,『解放軍外語學院學報』,解放軍外語學院.

劉振平(2010),「近20年來形容詞作狀語研究述評」,『滁州學院學報』,滁州學院.

武氏河(2006),「現代漢語語序研究」,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朴錦珠(2006),「韓國語漢字心理形容詞及與之對應的漢語詞研究」,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 白蓮花(2011),「韓漢語語序類型對比研究」,上海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 山田留里子(1995),「雙音節形容詞作狀語情況考察」,『世界漢語教學』第3期.北京語言學院.
- 徐榮姪(2008),「漢韓形容詞重疊對比研究」,山東大學 碩士學位論文.
- 石鈺(2005),「漢語形容詞重疊研究概述」,『武漢理工大學學報』,武漢理工大學.
- 邵炳軍(2001),「現代漢語形容詞的詞綴與附加式構詞法」,『新疆大學學報』,新疆大學.
- 筱義(1988),「從“非謂形容詞”說到形容詞的再分類」,『湖北師範學院學報』,湖北師範學院.
- 楊寬仁(1985),「非定形容詞」,『中國語文』第2期,中國社會科學出版社.
- 楊梅(2006:22),「現代漢語合成詞構詞研究」,南京師範大學 博士學位論文
- 呂叔湘·饒長溶(1981),「試論非謂形容詞」,『中國語文』第2期,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冉蓉(1994),「形容詞“然”的生成與演變」,『重慶三峽學院學報』,重慶三峽學院.
- 吳錫根(1993),「形容詞研究概述」,『杭州師範學院學報』第4期,杭州師範學院.
- 吳善子(2006),「漢語區別詞與韓國語冠形語對比研究」,延邊大學 碩士學位論文.
- 吳之翰(1964),「形容詞使用情況的一個考察」,『中國語文』第2期,中國社會

科學出版社.

- 王力(1984),「詞義的發展和變化」,『云南師範大學學報』,云南師範大學.
- _____(1985),「在第一屆國際漢語教學討論會全體會上的講話[J]」,『語言教學與研究』,北京語言大學.
- 王文斌·周慈波(2004)“英漢‘看’類動詞的語義及詞化對比”,『外語教學與研究』第6期,北京外國語大學.
- 元蓮仙(2010),「漢韓語言對比研究及在對韓漢語教學中的應用」,南開大學博士學位論文, p48-63
- 尹海良(2007),「現代漢語類詞綴研究」,山東大學 博士學位論文.
- 張國憲(1993),「現代漢語動態形容詞」,『中國語文』第3期,中國社會科學出版社.
- _____(2000),「現代漢語形容詞的典型特徵」,『中國語文』第5期,中國社會科學出版社.
- 張光軍(1982),「南朝鮮語言中的日語漢字詞」,『教學研究』,解放軍外國語學院
- 全香蘭(2004),「漢韓同形詞偏誤分析」,『漢語學習』,延邊大學.
- 趙妍(2011),「現代漢語形容詞特徵探究」,『遼寧教育行政學院學報』第5期,遼寧教育行政學院.
- 趙永大(1995),「“當代漢語”及其特點質疑」,『吉林師範學院學報』第4期,吉林師範學院.
- 趙春秋(2009),「形容詞作狀語與補語的情況考察」,『沈陽師範大學學報』第5期,沈陽師範大學.
- 周剛(1956),「朝鮮語詞兒連寫規則」,『語文建設』,語言文字報刊社.
- 朱英月(1999),「韓中詞綴比較初探」,『漢語學習』,延邊大學.

- 陳剛(2012), 「漢英形容詞對比研究」, 浙江大學 博士學位論文.
- 陳志宏(2013), 「韓國語漢字詞綴與漢語詞綴的對比」,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 陳寶勤(2004), 「漢語詞匯的生成與演化」, 四川大學 博士學位論文.
- 崔惠玲(2011), 「韓國語詞類學的歷時研究」, 復旦大學 博士學位論文, p83-86.
- 崔紅花(2009), 「漢韓日體詞修飾詞類對比研究」, 上海外國語大學 博士學位論文.
- 賀國偉(1998), 「韓國語中的漢字源詞及對韓漢語的詞語教學」, 『華東師範大學學報』, 華東師範大學.
- 許紅菊(2012), 「漢語修辭與詞匯發展」, 華科技大學 博士學位論文.
- 黃貞姬(2009), 「韓國語漢字心理形容詞及與之對應的漢語詞研究」, 『延邊大學學報』, 第6期
- (2009), 「韓國語漢字形容詞研究」, 延邊大學 博士學位論文.
- (2010), 「韓國語‘하다’類漢字形容詞在漢語中的詞類分布」, 延邊大學學報.

4. 외국 자료

- Sebastian Löbner 지음, 임지룡·김동한 옮김(2010), 『의미론의 이해』, 한국문화사.
- 신지영·정명숙 등 지음(2012), 『한국어학의 이해』, 지식과교양.
- Jef Verschueren 지음, 김영순·지인영·이정화 옮김(2003), 『화용론 이해』, 동인도서출판.

진 에이치슨, 임지룡 옮김(2003), 『언어학개론』, 한국문화사.

Ullmann, S.(1962), 『Semantics : An Introduction to the Science of
Meaning [M]』, Oxford :Basil Blackwell ,p80-93.

